자연과 사람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
The-K한국교직원공제회가 만들어 갑니다

공동의 소행성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The·K호텔앤리조트 The·K제주호텔 The·K저축은행 The·K교직원나라 The·K소피아그린 The·K예다함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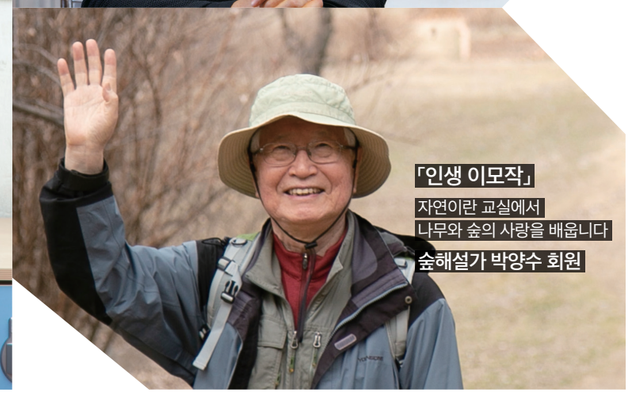
ccm 소비자중심 공정거래위원회

The·K

MONTHLY MAGAZINE

「꿈 너머 꿈」
교실에서 마을로 뻗어가는
생활 속 환경교육
창원 용남초등학교 임성화 교사

「좋은 사람 좋은 생각」
기후 위기 극복과 공존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배형민 교수



「인생 이모작」
자연이란 교실에서
나무와 숲의 사랑을 배웁니다
숲해설가 박양수 회원

2023 04
vol.68

생각 나누기	역사 속 숨은 영웅	독립운동가이자 학자로 휴머니스트의 삶을 이어간 작가 이미륵 선생
배움 더하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챗GPT 열풍으로 이미 도착한 미래
행복 곱하기	방방곡곡 숨은 명소	노란 유채꽃의 향연 시인의 고향에 찾아온 눈부신 사월 충북 옥천군
언제나 더케이	The-K Focus	한국교직원공제회 2022년 결산 편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APRIL. 2023 | vol. 68

04 **여는 글**
지구와 인류를 위한 선물, 나무

생각 나누기
삶의 깨우침을 주는 멘토,
추억과 공감을 나누는 회원들의 이야기

06 **한국교직원공제회 창립 52주년 기념사**

08 **The-K 예술가**
「The-K 매거진」 베스트 코너 특별 소장본
배리어 프리 하트 일러스트 컬러링 이벤트 당선작

10 **특별 소장본**
「The-K 매거진」 베스트 코너 특별 소장본 회원의견

14 **좋은 사람 좋은 생각**
기후 위기 극복과 공존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_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배형민 교수 겸 큐레이터

18 **역사 속 숨은 영웅**
독립운동가이자 학자로
휴머니스트의 삶을 이어간 작가 이미륵 선생

22 **우리 어렸을 적에**
정겨웠던 운동장 놀이터

배움 더하기
변화하는 교육 현장을 함께 고민하고 배워보는
교육 이야기 & 세대별 맞춤 콘텐츠

24 **오늘의 학교**
호기심 넘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지금부터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_ 영림중학교 윤상혁 교장 (前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장학사)

28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챗GPT 열풍으로 이미 도착한 미래

32 **미래 잡(job)자**
에너지 전환의 선도자
미래 에너지 컨설턴트

34 **꿈 너머 꿈**
교실에서 마을로 뻗어가는 생활 속 환경교육
_ 창원 용남초등학교 임성화 교사

38 **고민 상담소**
지금 이 순간,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자!
중년을 엄습하는 불안·공황장애 극복하기

40 **인생 이모작**
자연이란 교실에서 나무와 숲의 사랑을 배웁니다
_ 숲해설가 박양수 회원

- **발행일** 2023년 4월 1일
-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홈페이지** www.ktcu.or.kr
- **발행인** 김상곤
- **기획** 홍보소통부 미디어소통팀
  장영호, 최용호, 김경희, 오수민, 박연희
- **편집** 수석기자 이은정 / 객원기자 이성미 / 교열 박혜경
- **디자인** 아트 디렉터 이윤정 / 디자이너 이진희
- **사진** 포토그래퍼 이용기
-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제작** 하나로애드컴 02-3443-8005

*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행복 곱하기
힐링을 전하고 행복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 정보

44 **방방곡곡 숨은 명소**
제주 부럽지 않은 노란 유채꽃의 향연
시인의 고향에 찾아온 눈부신 사월
충북 옥천군

50 **마음쉼**
행복한 삶을 위한 긍정심리학
나를 움직이는 생각의 힘

52 **The-K 예방의학**
만병의 근원 대사증후군
개선하려면 생활습관 '싹' 바꿔야

54 **건강한 집밥**
지구를 건강하게! 내 몸은 더 건강하게!
꽃 구경과 함께하는 비건 도시락

58 **DIY 리사이클링**
십시일반으로 만드는 '희망의 숲'
대신 나무 심어주는 기업, 트리플래닛
& 재활용품을 활용한 미니 텃밭 만들기

언제나 더케이
회원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최신 정보와 주요 소식 & 이벤트

62 **The-K Focus 1**
당기순이익 4,374억 원, 9년 연속 흑자 달성
한국교직원공제회 2022년 결산 편

66 **The-K Focus 2**
한 눈에 살펴보는 2022년 「The-K 매거진」 만족도 조사 결과
회원님과 함께 만드는 「The-K 매거진」, 지난 한해 어떠셨나요?

70 **The-K News** 공제회 주요 소식 & 이벤트

74 **회원 의견**

78 **The-K Family**
2023년 나에게 딱 맞고 꼭 필요한 보험 선택 가이드

79 **스승의 날 이벤트**

80 **「The-K 매거진」 커피트럭 감사 편지**

81 **The-K OX 퀴즈**

82 **새로워진 「The-K 매거진」 온라인 이벤트**

83 **즉석 당첨 이벤트**

웹진 안드로이드앱 아이폰앱

The-K Magazine을 스마트폰에서 보는 법
「The-K 매거진」은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여 학교나 기관 등으로 발송해 드리며,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한국교직원공제회 • 회원콜센터 1577-3400 • 보험콜센터 1577-3993

지구와 인류를 위한 선물, 나무

어김없이 찾아와준 봄꽃이 유난히 반가운 4월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 행복을 주고 그늘을 내어주는 나무는 좋은 산소를 내뿜고 미세먼지까지 줄여줍니다.
나무가 숲을 이루면 자연재해를 막고 지구온난화를 지연시킨다고 하죠.
일상 속에서 소비되는 엄청난 목재량을 생각하면 새삼 나무의 고마움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사이에 급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위해
나무를 심고 키우는 작은 실천이 어느 때보다 소중한 요즘입니다.

이번 4월호에는 건축학자로서 지역사회와 친환경·제로 웨이스트 건축을 고민하며
기후 위기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배형민 교수의 '좋은 생각'을 소개합니다.
'꿈 너머 꿈'에서는 일상 속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실천하는 임성화 교사의 특별한 환경 교육법을 전하고
퇴직 후, 숲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양수 회원의 뜨거운 나무 사랑을 '인생 이모작'에서 만나보았습니다.
표준이 아닌 개인화, 지식습득이 아닌 가치창조로 우리 교육의 방향성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前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윤상혁 교장의 교육 철학을 '오늘의 학교'에서 들어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서는 교육 현장에 깊숙이 들어온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의 현재와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함께 고민해봅니다.
제주도에 가지 않고도 노란 유채꽃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는 옥천군을 '방방곡곡 숨은 여행'에서 소개하며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봄철 나들이 비건 도시락 레시피도 준비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를 위해 나무를 심는 사람들 '트리 플래닛'을 만나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DIY 리사이클링'에서 소개하며 재활용품을 활용한 미니 텃밭 만들기에도 도전해 봅니다.
The-K 매거진 창간 5주년 기념 베스트코너 특별소장본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회원님들의
소중한 사연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컬러링 작품들도 소개합니다.
2022년 말 기준 회원 89만여 명, 자산 57조 원을 운용하며 국민기업으로 자리 잡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한해 주요 소식과 자산운용 현황, 투자 수익 등 2022년 결산에 대해 'The-K Focus'에서 알려드리고
2017년 실시 이후 역대 가장 많은 회원님께서 참여해주신 The-K 매거진 만족도 조사 결과도 공유합니다.

자연을 잘 보살피는 일이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숙제라는 생각을 마음에 심는 봄날이길 바랍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창립 52주년 기념사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으로 도전과 인내의 역사를 함께한 회원 여러분의 든든한 금융·복지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쉰두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52년 동안 전국의 89만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제회는 **1971년 창립 당시 회원 7만 명, 자산 13억 원으로 시작**하여 많은 변화와 굴곡을 겪었지만, **지난해 회원 89만 명, 자산 57조 원의 국내 유일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제회가 걸어온 반세기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회는 창립 초창기의 어려움을 지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교육 가족 최고의 금융·복지 파트너로서 동행**해 왔습니다.

공제회는 **지난해에도 이어진 고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체계적 위험관리와 전략적 자산배분, 시스템화 된 투자의사 결정 등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공제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 가족과 전·현직 임직원들께서 도전과 인내의 역사를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도 여러 측면에서 쉽지 않은 투자 환경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최상의 회원 만족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지속 성장하는 공제회 구현'**을 중장기 경영 목표로 삼아 회원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우리 공제회는 **'공제회 임직원들이 열 걸음 앞서가기보다는 회원들과 다 함께 한 걸음 내디딘다'**는 자세로, 교직원 평생 복지기관으로서 '회원 관점'에서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복지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하여 **교육 가족의 행복한 삶에 공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분재는 뿌리를 잘라주지 않으면 죽고, 사람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분재는 뿌리를 잘라 옮겨 심어야만 새 뿌리를 내리면서 회춘(回春)하고 수명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낡은 생각을 주기적으로 잘라내야만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의 뿌리가 돋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공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창립 당시의 초심을 되돌아보며, 분재의 장수비결을 본받아 지금까지의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공제회 핵심가치인 신뢰·혁신·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100년, 100조 원의 자산을 이루기 위해 **'혁신을 통한 성장과 변화를 통한 도약'**을 새롭게 준비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공제회가 창립한 지 52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공제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교육 가족 및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의 세계 경제 환경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패러다임 변화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 트렌드의 등장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상상 이상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또한 기업의 혁신을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위기를 맞았을 때에도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역량을 키우고 힘을 하나로 모아 한 단계 더 도약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반세기 역사는 공제회에 가슴 깊이 각인되어 성장 DNA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위대한 역사를 계승·발전시켜 **백년기업으로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공제회의 쉰두 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현재의 **공제회가 있기까지 헌신해 주신 교육 가족 및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혜의 상징인 '검정'과 풍요의 상징인 '토끼'가 의미 있게 어우러진 계묘년, 모두의 슬기로움이 인생을 풍요롭게 해 의미 있는 한 해를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5일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김 상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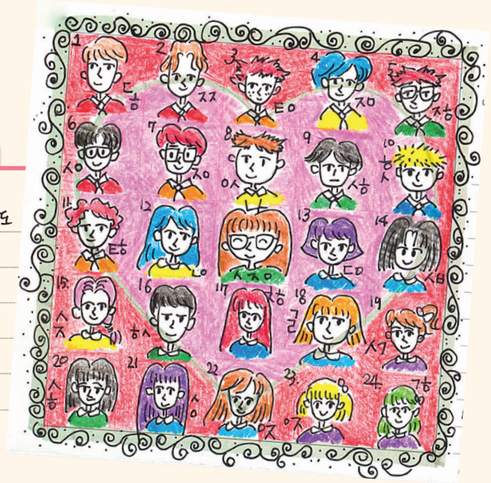
회원님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뜻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을 소개합니다

「The-K 매거진」 베스트 코너 특별 소장본
배리어 프리 하트 일러스트 컬러링 이벤트 당선작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021년 발달장애 예술인과 예술인을 꿈꾸는 일반 학생들이 어우러져 꾸민 배리어프리 캠페인 'Drawing Together: 하트 투게더'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The-K 매거진」의 창간 5주년을 기념하고 당시의 감동을 다시 한번 더 많은 교육 가족과 나누고자 「The-K 매거진」 베스트 코너 특별 소장본을 통해 엽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The-K 매거진」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독자 여러분께서 뜻깊고 마음 따뜻해지는 사연을 담은 작품을 만들어 보내주셨습니다. 25칸에 소중한 마음을 다채롭게 담아 응모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중 「The-K 매거진」 애독자분들과도 함께 나누면 더욱 좋을 이야기와 작품을 소개합니다.

정*연 회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각각의 색을 가진 다양한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 멋진 작품이 되듯이
장애인에 대한 구별없이 함께하면
알록달록 멋진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The-k 매거진 잡지의 색을 한조각씩
찢어 붙여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곁에 믿음직하고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는 The-K 교직원공제회를
매거진 잡지의 글을 인용하여
표현해 보았습니다.



심*영 회원 약사고등학교

2022년 나의 삶에 가장 핵심이었던 1학년 4반 학생들의 얼굴입니다. 생김새나 성격도 각양각색 개성이 넘치는 학생들이었고, 처음엔 이들과 어떻게 1년을 보내나 걱정이었는데, 어느새 1년이 지나고 지나온 시간만큼 추억이 쌓여 있음을 느낍니다. 내 틀에 맞추려 하지 않고 각자가 가진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 선안에만 있으면 아니 선 밖을 나가 떠돌아도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걸 이젠 믿습니다. 한명한명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며 그렇그런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이*미 회원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제 손에 The-K 매거진이 오기까지
그 역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더 풍성하고,
구독자를 더 생각하는 매거진을 도약해
나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The-K 매거진 제작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최*숙 회원 前서울등촌초등학교

현재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갈등과
무관심이 있습니다. 이 때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꾸준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사회에는 신뢰, 존중,
화합, 자유, 번영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희망찬 일들이
The-K 한국교직원 공제회와
회원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욱
풍성하게 열매맺기를 기대합니다.

김*진 회원 신도림중학교

누구에게나 부족한 부분이 있고
누구나 자랑스러운 면이 있겠지요.
부족한것은 서로 채워주고
잘하는것은 격려해주며
한 마음으로 성장해가는
교육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학생도, 부모도, 교사도,
장애가 있어도, 그렇지 않아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가되어요!

김*연 회원 상록고등학교

늘 감사드립니다 ☺ 매월 첫째주마다 늘 기다리고
더케이 매거진"을 이렇게 책자로 4권씩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받자 그리고 붙였던 그림이 있었지만
더케이에 대한 것으로 그려봅니다. 고등학교 옛이 떠올려
붙이기도 하시도 기금 행복했지만^^;; 미흡하더라도
예쁘게 봐 주시면 우리들의 꿈 속에 녹여가고 바라며...
2023년도 파이팅!! 더 많은 이벤트 부탁드립니다.
직장인에게는 큰 행복이기도...

강*원 회원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한지 3년이
되어가는데, 지나고보니 든든했고 안심
장기저축하여 수익액이 늘어나는 것을
보는 재미도 톡톡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건실한 기관으로
교직원의 든든함과 노후를 위해
보답한 모습과 이웃국들 발전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봅니다.
매거진도 많은 정보를 담아 더욱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e-K 매거진」 베스트 코너 특별 소장본

회원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소개합니다.

「The-K 매거진」을 사랑해주시는 회원님들의 오랜 요청과 성원에 힘입어 발간한 「The-K 매거진」 베스트 코너 특별 소장본을 받아보시고 많은 회원님께서 감동과 칭찬,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에 감탄하시거나 '한 달 살기'에 관한 기사를 보고 온 가족이 해외로 떠날 그날을 꿈꿔보기도 하고, '인생 이모작' 코너 속 열정 가득한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만의 인생 이모작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모든 의견 하나하나가 지난 5년을 압축한 듯 진한 애정이 담겨 있어 편집실도 더욱 꼼꼼하게 읽고 또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 가족 여러분의 활력소이자,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는 공제회 대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특별 소장본 보러가기

1월 1일 우편함에서 특별 소장본을 찾아와 겉표지를 보면서 '이것이 책인가, 아니면 앨범인가?' 너무나 아름답고 고급스러워 귀하게 느꼈습니다. 기대하면서 책을 펴보는 순간 주제별로 내용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어 읽기에 편리하고 지루하지 않아서 즐겁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The-K Focus'는 공제회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꾸며져 있고, 회원 복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순 회원 연세의료원

특별 소장본을 보면서 타인의 삶 속에서 배움과 나눔의 의미를 알게 되고, 추천하는 여행지를 통해 직장인에게 돌아오는 주말 휴식 장소로 도장 깨기를 하나씩하고 있으며, 건강 음식 레시피를 보며 건강을 챙기고, 복지 제도를 통해 인생의 큰 보험을 든 것처럼 행복합니다. 「The-K 매거진」과 함께하는 일상은 저에게 풍요를 선사하고 늘 활력을 주며 삶을 토닥거려 줍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더욱더 열심히 읽고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선 회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반가운 우편물이 도착해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설렜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특별 소장본이었습니다. 좋은 책은 여러 번 보아야 그 진가를 발견한다고 하는데, 특별 소장본도 저의 최애템이 되어 위편삼절(韋編三絕)이 되도록 즐겨 보겠습니다. 끝으로, 새해 첫날에 좋은 선물을 보내주신 교직원공제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무궁히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관 회원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2022년 너무나 힘들고 지친 한 해였습니다. 「The-K 매거진」 매월 호에 실리는 마음 상담 코너가 제일 와닿았고, 작은 지면이지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 소장본 이벤트에 선정되어 두꺼운 책을 받아보니 매우 마음이 설렙니다. 특히 'Be Myself' 코너가 가장 눈길이 갑니다. 여덟 가지 사연이 실려 있는데 한 글자 한 글자 빠짐없이 정독했습니다. 마음이 쓰리고 한기가 들 때 두고두고 읽고 싶습니다. 주옥같은 글들, 제 마음에 영원히 담아두고 싶어요.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열망'이라는 문장이 뇌리에 오래 남네요. 특별 소장본은 책장에 가보로, 또한 제 삶의 발자취로 두고두고 간직하렵니다. 소중한 책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인 회원 안산광덕초등학교

며칠 전 특별 소장본을 받았을 때 '와~ 이렇게 근사하다고??!!' 깜짝 놀랄 정도로 퀄리티가 좋아 좋은 책 한 권을 선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회원들을 향한 공제회의 묵직한 애정이 한 권의 책으로 와 닿는다고나 할까요. 주말이나 연휴에 국내 여행을 계획할 때도 그달의 「The-K 매거진」을 참고하여 부모님 모시고 좋은 곳 많이 다녀왔어요. 얼마 전엔 함양에 다녀왔는데, 「The-K 매거진」 속 '지금, 여기' 코너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순간순간을 채워주시는 「The-K 매거진」의 다양한 기사와 정보로 매일이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소식으로 찾아와 주시는 「The-K 매거진」, 연애편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달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 회원 복현중학교

특별 소장본은 회원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제회 회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회원들이 직접 선정한 베스트 코너 8개를 강조한 표지 디자인이 첫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특별 소장본에서 제게 가장 흥미로웠던 코너 두 가지는 각각 1, 2순위를 차지했던 '지금, 여기'와 '더-쉼'입니다. 특히 '더-쉼' 코너에는 실제로 현지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더욱 생생하고 유익했습니다. 터키랑 호주는 꼭 가고 싶었는데 한 달 살기 정보가 잘 나와 있어 나중에 여행 갈 때 꼭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성 들여 특별 소장본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 회원 서울구암초등학교

이번에 보내준 특별 소장본을 받아보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특히 '인생 이모작' 글들을 보고 퇴임 이후 무기력하게 자신만을 탓하고 살아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임하고 인생 후반기를 다시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무엇인가 나의 길을 찾아 나서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간 연금으로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닌,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찾아 내가 아닌 내 이웃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자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준 '인생 이모작'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되어준 「The-K 매거진」에 감사 드립니다.

김*진 회원 前 전주 상산고등학교

매달 「The-K 매거진」을 받아 보는 것도 교직 생활의 오아시스 같은 잠깐의 낙이었는데 방학을 맞아 소장본을 주욱 읽어보니 여유가 와닿으면서 더욱 즐겁네요. 참교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늘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The-K 매거진」은 그 역할을 해주는 매개체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교육에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이야기, 교직 밖에서 영감을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 역사와 문화 이야기로 「The-K 매거진」 안에서 펼쳐진 세계로도 충분히 깊고 넓네요. 늘 좋은 이야기로 가득 채워주시는 「The-K 매거진」에 감사드립니다

신*경 회원 서울공진초등학교

특별 소장본을 받고 너무 놀랐습니다. 우선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글자가 큼직해서 읽기도 편하고 그림과 사진도 너무 선명해서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설문조사에 참가한 회원으로서 뿌듯했습니다. 「The-K 매거진」을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찾아보기도 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의 의견이 들어간 특별 소장본이 나와서 찾아보기도 편하고 책장에 꽂아 수시로 꺼내 볼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주위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싶지만 한 권밖에 없어 절대 줄 수가 없네요. 혹시라도 특별 소장본을 경품으로 하는 이벤트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5주년에 발간하셨으니 10주년에도 꼭 다시 발간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 소장본 앞표지부터 끝장까지 편집부 직원분들의 땀과 열정을 느꼈습니다.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희 회원 前 서울묵동초등학교

퇴근 후 집에 도착한 특별 소장본을 받아 보고 너무 기쁘고 든든했습니다. 특히 정년퇴직이 10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슬슬 걱정되고 정보가 많이 부족했는데 특별 소장본은 제게 백과사전과 같은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및 퇴직생활급여 올 가이드'는 형광펜으로 그어가면서 정독하고 별 표시도 하면서 정리했습니다. 최근엔 주변 직장 동료들이 물어볼 때 척척 말해주니 어찌 그리 잘 아느냐 물어서 특별 소장본 자랑을 했습니다. 아울러 특별 소장본에서 더욱 신경을 써주신 점이 그냥 설명으로 지나치지 않고 '실제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분할급여금 및 퇴직생활급여 이야기' 코너를 실어주셔서 더 피부에 와닿고, 글자 하나하나 너무 소중한 사연에 힘이 나고 감사했습니다.

국*경 회원 고양일산초등학교

여행을 가기 전 항상 먼저 떠올리는 「The-K 매거진」. 이번 특별 소장본에서는 특히 '더-쉼' 코너를 보고 우리 가족 모두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로망이 한 달 살기인데, 비행기표까지 예매했다 코로나19로 한 번 좌절되고, 둘째의 자가면역질환 발병으로 또 한 번 좌절되었거든요. 꼭 한 달 살기를 하겠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약도 먹으며 건강관리를 하는 아이를 보며 저와 남편도 열심히 일하며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박차를 가해 '더-쉼' 코너의 멋진 사진과 기사를 보면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한 달 살기를 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새해부터 함께 많이 웃고 행복했습니다. 특별 소장본과 함께한 2023년 우리 가족의 소망이 현실이 되기를 기원하며 「The-K 매거진」을 보는 모든 회원님도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김*아 회원 서울정덕초등학교

매월 「The-K 매거진」을 받아보며 소장 욕구는 있되 모든 잡지를 소장하기에는 장소 부족으로, 뜻깊은 감동과 정보를 주는 내용을 잘라 스크랩을 하고 있었지요. 그 와중에 뜻밖의 특별 소장본을 받게 되니 고급 양장본 책 선물을 받은 듯하여 한 해 시작을 행복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인생 이모작' 코너에는 제 추천사까지 실렸더군요. 행복한 선물에 깜짝 이벤트를 더한 기분입니다. 특히 올해를 끝으로 퇴직을 앞두신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과 이 소장본을 함께 읽으며 두 번째 다가올 기회, 새로운 선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숙 회원 대구성명초등학교

「The-K 매거진」을 읽기 위해 매달 초 노트북을 로그인하고, 정독하면서 필요한 정보는 폴더에 캡처해 저장해 두는 루틴을 가진 저로선 너무나 반가운 특별 소장본이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정리한 센스!!! 역시 「The-K 매거진」이네요. 요것만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열람해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The-K 매거진」의 매력을 아직 모르시는 지인들에게 공유할 책임감을 느끼네요. 나날이 발전하는 「The-K 매거진」을 보고 있노라면 저 또한 열심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버릴 게 없는 「The-K 매거진」입니다. 애정이 너무 과한가요? 누가 뭐래도 이 애정 새해에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해가 더해 갈수록 더 많은 사랑받는 「The-K 매거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영 회원 부산성동초등학교

먼저, 특별 소장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회원들이 선정한 베스트 코너들의 다양하고 알찬 내용에 놀라게 되고, 그 편집과 발행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을 편집실 여러분의 노고와 수고로움에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무엇보다 창간 5주년의 결정체인 베스트 코너들을 독자 회원들의 의견을 통해 선정했다는 점이 더욱 인상 깊습니다. 아울러, 다양하고도 알찬 콘텐츠를 담은 여러 주옥같은 코너의 정보와 사진 자료들이 매거진 편집실의 고민과 열정을 대변해 주는 듯합니다.** 지금껏 늘 그렇듯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의 친근한 벗으로서, 앞으로도 항상 함께하며 진심 어린 여러 기사와 콘텐츠로 늘 가까이 있어 주길 기대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여, 늘 흥하라.

임*수 회원 광혜원고등학교

특별 소장본을 받고 생각보다 좋은 재질과 두께의 책자라 찬찬히 다 읽어보았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는 부분도 있고, 흥미롭게 읽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집에 놀러 오신 분이 소장본을 보고 잠깐 빌려 가려 해서 공제회 비회원이 보기에 재미없을 거라 했는데, 의외로 재미있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달해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바로바로 검색할 수 있는 정보의 바다에서 이런 향수 어린 소장본이 참 소중하네요. 소장본은 읽을거리가 너무 많고 줄 그어둘 부분이 많아요. 웹에서 즐겨찾기 하는 것과 다른 정겨움이 있네요. 오랜만에 매거진다운 책자를 받으니 소중하고 무언가 옛 감성에 젖게 되네요. 소장본이니만큼 소중히 간직하고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전*영 회원 대구사월초등학교

특별 소장본을 책자로 받아 보니 감회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양한 좋은 내용으로 구성된 특별 소장본을 다른 사람들과 두루두루 돌려보며 감동을 공유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보여 주니 교직원공제회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감탄하며 자신들도 교직원공제회처럼 뜻깊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미 깊은 특별 소장본을 집안 대대로 두기로 하고 양지 드는 좋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보기 좋게 놓아두었습니다.** 특별 소장본을 보면서 힘을 얻고 좋은 기운을 받아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 회원 가야대학교

저의 베스트 코너 '인생 이모작'의 존경스러운 선배님들을 다시 만나 뵈니 참 반가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도 궁금하네요. 회원 추천사와 함께 'Be Myself'를 읽으며 다시금 눈에 들어오는 글도 있고, 그때의 마음가짐을 점검하고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 지침서와도 같은 'Be Myself'의 글들은 반복해 연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같은 글도 상황에 따라 비타민으로 작용할 때가 있거든요. 진로 활동 시간에 '미래 잡(job)자'에 소개된 직업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생각해 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그 밖에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도 저의 빠질 수 없는 단골 교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The-K 매거진」을 통해 현재를 점검하고 과거와 미래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나 회원 인천간석초등학교

특별 소장본을 신청했는데 제가 선정되어 직접 받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 서재 책꽂이에 꽂아놓고 읽고 또 읽어보고 있는데 오래도록 소장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 소장본은 그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의 활동 상황, 공제회의 발전 과정과 회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의 발자취, 그리고 다양한 정보와 교양 지식 등을 주제별로 잘 수록해 우리 회원들에게 교양서적 같은 양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 소장본을 편집·발간·배송해주신 편집실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출 회원 목포대연초등학교

오랫동안 기다리던 편지를 받은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우편함에 특별 소장본이 도착한 날 설렘과 기대감에 받자마자 읽어내리기 시작했답니다. **표지부터 너무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그동안 읽었던 내용인데도 처음 읽을 때처럼 새롭고 얼마나 재밌던지 옆에 있던 남편도 어느새 옆에 와서 같이 읽었답니다.** 특히 요즘 퇴직 후 노후에 관심이 많아 '지금, 여기', '더 쉼', '인생 이모작' 코너를 집중해 읽게 되더라고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알찬 정보와 노하우를 알려줘서 너무 유익했고, 소개된 곳은 꼭 가보기로 남편과 약속했답니다.

김*현 회원 안청초등학교

특별 소장본은 **코로나19로 지치고, 물가 상승 등으로 걱정이 많은 회원 모두에게 2023년 새해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퇴직 이후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늘 고민하는데, '인생 이모작'에 소개된 가장 열심히, 즐겁게 사는 퇴직 회원분들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집밥'은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지는, 행복해지는 코너입니다. 다양한 요리가 테마별로 정리되어 있고, 중요한 부분을 형광색으로 표기해 특히 읽기 편했습니다. 다이어트하는 자녀에게 오이 카나페 등 몇 가지 레시피를 보여 주니 사진 찍으며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The-K Focus' 코너는 공제회의 여러 사업, 회원 혜택 등이 투명하게 잘 소개되어 공제회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관련 시설을 빨리 이용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정*경 회원 前 한국예술종합학교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특별 소장본을 기다렸는데 **역시나 두툼하고 멋진 책자로 배송이 와서 받는 순간 너~무 벅찼습니다. 「The-K 매거진」의 여러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중 회원들이 뽑은 8개의 베스트 코너를 각각 회원들의 추천 이유와 함께 담아놓았는데 진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일하면서 곁에 두고 수시로 시간 날 때 보기도 하고 집에서 휴일에 쉴 때 차 한 잔과 함께 책장을 넘겨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중에 전 'The-K Focus' 코너를 감명 깊게 다시 읽었는데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변천사와 그 과정에 CCM(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회원 웅양중학교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이 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저로서는 이전에 발행된 「The-K 매거진」에 수록된 기사들을 챙겨 보는 것을 막연한 계획으로만 남겨두고 있었어요. 워낙 방대한 양의 기사 중에서 무엇부터 읽어야 할지 선별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The-K 매거진」을 꾸준히 읽어온 회원들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기사를 담은 소장본이 만들어졌다고 해 참 기뻤습니다. 선별된 기사들인 만큼 믿고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짜배기 기사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보니 중요한 시험 전에 핵심 요약 노트를 챙겨 보며 복습하는 기분도 들고, 독자들의 선택을 통해 선정된 베스트셀러를 읽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알차고 유익한 기사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기 회원 인하대학교병원

방학을 맞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웹진을 활용해 소장본에 담긴 기사를 코너별로 한두 개씩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앨범 속 사진을 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 것처럼 소장본을 통해 깊은 울림을 주었던 기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 설레고 반가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주옥같은 기사들을 읽었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느낌도 들었답니다.

특별 소장본을 통해 평소 **「The-K 매거진」을 즐겨 읽는 여러 독자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코너마다 '회원 추천사'가 수록되어 있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왜 이 코너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기사의 어느 부분에 집중하며 읽었으며,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지 등 회원들의 감상을 공유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너무 이른 걱정이겠지만 이번 소장본이 마지막은 아니겠죠? 「The-K 매거진」은 앞으로 쭉 계속될 테니 시간이 흐른 뒤 이번 소장본처럼 가치 있는 소장본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민*기 회원 은여울초등학교

「The-K 매거진」을 함께 읽고 있는 **교육 가족들이 선정한 8개의 베스트 코너와 코너마다의 주제를 보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웠고,**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내용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책자도 마치 앨범처럼 디자인이 예뻐서 더 보고 싶어집니다. 오래도록 가까이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 볼 것 같습니다. 양이 많은 편이라 포스트잇으로 코너별로 구분해 두고 소중히 보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내용으로 **마음의 여유와 깨달음을 주고 시대에 부응하는 유익한 정보로 교육 가족의 성장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The-K 매거진」에 감사드립니다.**

이*경 회원 초곡초등학교

'The-K Focus'의 '교육 가족 삶의 풍경을 바꾼 지난날, 혁신으로 그려갈 내일' 기사를 통해 한국교직원공제회 50년 변천사 내용을 설명하며 신입 직원에게 왜, 어떻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해야 하는지, 얼마나 필수적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배에게 문의했을 때, 객관적인 내용보다 주관적인 설명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어 아쉬움이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공유했더라면 더 좋은 혜택을 누리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주변 신입 직원에게 필수 정보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과 윤리경영으로 확립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토대로 이룬 수익 성과와 브랜드 사업화를 통한 여러 전문 기업의 동반 성장은 오늘 회원의 행복과 내일의 풍요로움으로 퇴직 후 회원들의 삶의 질, 혜택과도 모두 연관되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까지 치료해 주는 공제회 회원들을 위한 종합 서비스가 더 믿음직하게 느껴졌고, 공제회 회원으로서의 자부심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직원공제회 50년사를 통해 함께 그리고 더 멀리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출발과 동행을 신입 직원과 함께, 교직원과 함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가지게 됩니다.**

지*호 회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특별 소장본을 받아보고 **기쁜 마음과 잔잔한 흥분감으로 다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코너 중 전남 순천 편을 읽으며 15년 전쯤 가본 낙안읍성을 올해엔 아내와 함께 다시 한번 꼭 다녀오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관광 명소이니만큼 다시 한번 들르고 아울러 아직 못 가본 '세계 5대 연안 습지'라는 순천만 습지에 들러 광활한 갯벌과 멋진 갈대숲, 그리고 다양한 희귀 조류들과 낙조를 감상하고 싶습니다. **'인생 이모작' 코너에서는 "나는 죽는 날까지 청년이고 싶다"는 평생학습활동가 김희동 회원님의 글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육행정직 직원으로 38년 넘게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고 퇴직하자마자 봉사 활동으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한 회원님의 열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시켜서 하면 노동, 내 의지로 하면 운동'이라는 철학으로 봉사를 평생직업으로 삼은 회원님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려 하는 지극한 마음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심*석 회원 문일고등학교

가입한 지는 5년이 지났지만 일하기에 바빠 「The-K 매거진」에서 오는 이메일은 들어가 볼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휴직하면서 다양한 이벤트와 이야기를 보내주는 「The-K 매거진」을 보면서 참 많이 힐링했습니다. 「The-K 매거진」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은 불과 몇 달 되지 않지만 신선한 소재거리로 많은 내용을 간접경험 했습니다. **진작 알았다면 일하는 중간중간 나의 힐링 매체가 되어주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와서 알게 된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돼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감사하게도 특별 소장본을 수령해 보았고, 너무 재미있어서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와 정기 구독도 신청했습니다. 복직하면 일에 지친 동료 선생님들과 같이 나눠 볼까 싶습니다.**

박*인 회원 서울대학교병원

창간 5주년이 된 「The-K 매거진」을 보며 교직 생활의 성장을 함께하는 것 같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잘 모르고 질문이 많았던 신규 생활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성장한 교사와 같이 「The-K 매거진」 또한 첫 콘텐츠부터 지금까지 바쁘게 달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땀 흘린 고생이 우리 회원들이 알차고 유용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애정을 가지고 「The-K 매거진」을 매달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반영해 주는 편집실 덕분에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함*인 회원 목운중학교

「좋은 사람 좋은 생각」은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시하는 멘토들에게 귀 기울이고 교육 철학과 인생의 가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기후 위기 극복과 공존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배형민 교수 겸 큐레이터

공간은 꽤 수다스러운 존재다. 공간을 만든 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누구인지 공간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어렵거나 무겁지 않게, 때론 직유로 때론 은유로 말이다. 배형민 교수가 만들고 머무는 공간은 '환경'과 '공존'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지금은 공간의 입을 빌리고 있지만, 배형민 교수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공존을 하고자 한다.

글 이성미 / **사진** 김수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건축가이자, 전시기획자로서 기후 변화의 위기를 알리고 공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배형민 교수의 좋은 생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세상을 공부하고 환경을 이야기하는 건축학자

낙산공원으로 이어지는 오르막길 옆에 배형민 교수의 작업실이 있다. 작업실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천장에는 세월의 손때 묻은 서까래가, 옆을 보면 H형강(H-steel)이 제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며 공간의 무게를 받치고 있다. 옛집의 형태와 재료를 최대한 살리되, 현대적인 방법으로 공간의 수명을 늘린 '배형민다운' 공간이다.

배형민 교수는 건축학자이자 큐레이터다. 그리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다. 과거 그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환경대학원을 졸업 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에서 역사, 이론, 비평을 공부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건축과 인문학을 두루 공부한 이력은 그가 공간 이상의 공간, 건축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눈을 갖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눈에 '위기'가 감지됐다.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 바로 기후 위기였다. 그가 역사가로서 공부했던 과거 혁명의 시대보다도 더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기성세대가 그러했듯 성장과 발전을 전제로 공부하고 활동했던 그도 변해야 했다.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기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가 공존할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2014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100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도 '지난 100년을 돌아보자'를 주제로 전시가 진행되었죠. 한국관 큐레이터로서 저도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을 돌아봤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단연 남북 분단이더군요. 남북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하면서, 자연스레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깊이 탐구하고, 사회를 더 면밀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에서 남북 건축을 한 공간에 두며 처음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Crow's Eye View : The Korean Peninsula' 라는 제목의 이 전시가 베니스 비엔날레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받으면서, 배형민 교수는 본격적으로 큐레이터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 도시의 문제를 다루었던 2017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전시 '기후미술관 : 우리 집의 생애'를 통해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이했다.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전시였다. 배형민 교수는 위기에 처한 우리의 크고 작은 집, 사람이 사는 집, 모든 사물과 생명체의 집을 중심으로 기후 위기를 이야기했다. 고사목(枯死木), 박제 동물 등을 가져다 기후변화, 환경파괴의 실상을 사람들이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했고, 근대 이후 우리나라의 살림집과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사물의 생애주기를 보여주며 성장 중심 건축의 위험성을 알렸다.

황금사자상 수상 기자회견 현장

기후미술관

기후미술관이 더욱더 특별한 이유는 그래픽, 공간, 홍보 등 전시를 이루는 모든 요소에 재사용과 재활용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배형민 교수는 '전시 디자인과 설치 자체가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기획을 전제로 전시 후 폐기되는 가벽, 전시대, 시트지, 인쇄물 등을 최소화했다. 대신 모듈형 벽체, 시트지, 이면지 등을 활용해 전시를 꾸몄다. 홍보물을 만들 때도 인쇄보다 에너지 소모가 적은 복사를 이용했다.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핀 덕분에 다방면에서 친환경 노하우가 축적됐고, 향후 관련 산업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창의성을 인정받아 배형민 교수와 디자이너 홍 박사 및 기획진은 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에서 본상인 위너(Winner)를 수상했다.

자연에서 온 삶을 다시 자연으로

크고 작은 전시를 통해 기후 위기와 공존을 이야기해 온 배형민 교수는 제5차 광주폴리 총감독을 맡으며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폴리(folly)'란 유럽 저택의 정원에 있는 장식적 건축물을 의미한다. 광주폴리는 한국 전통 정원에서 정자가 했던 역할을 현대 도시에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이뤄내기 위해 마련된 프로젝트다.

배형민 교수는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5차 광주폴리의 주제를 '순환폴리'로 설정했다. 에너지, 쓰레기,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대량 생산은 대량 폐기로 직행하고, 이러한 선형적 경제 시스템은 기후변화라는 문명사적 위기를 가져왔다. '순환폴리'는 친환경 지역 자원, 재활용을 전제로 한 순환경제의 건축을 실현하는 프로젝트다.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할 때 건축가의 기본 역할은 집을 많이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건축이 해야 할 일도 바뀌었죠. 이제 건축의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지어야 집인가? 둘째, 환경을 위해서는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하는가? 광주폴리 총감독 제안을 받았을 때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주폴리는 건축 프로젝트지만 여러 동반자와 함께 진행된다. 이번 광주폴리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우리 밀'이다. 식량안보의 중요한 자원은 우리 밀이다. 또 순환경제는 물류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구를 살리는 건축과 밥상" 바로 순환폴리의 표어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얼마나 다양한지 알게 된다. 필요한 것은 관심이다. 세상 곳곳에 관심을 두며, 배형민 교수도 "건축가는 건축 이후의 생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한다.

"건축가는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집을 지으면서 재료, 공간 효율, 에너지 등을 생각하고요. 하지만 집이 없어지는 과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건물의 수명이 가장 짧은 나라입니다. 부동산 논리에 의해 만들고 부수고, 다시 만들기를 반복하죠. 탄소배출, 쓰레기 문제도,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도 묻지 않아요. 저 역시 건축학과 교수이고 오랜 세월 건축학자로 살았지만, 집이 부서진 후 그 폐기물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큐레이터로 활동하면서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활동의 계기를 마련했죠."

기후미술관 준비 과정

헝가리한국문화원 한국현대건축 전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존'의 실마리 찾기를

근대 이전에는 우리가 입고 먹고 집을 짓는 것, 의식주가 자원의 순환 고리 안에 자리했다. 땅에서 얻은 재료로 입고, 먹고, 집을 지어 살았다. 쓰임을 다한 것은 다시 땅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이러한 순환의 고리가 끊어졌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인공으로 대량 생산하고 대량 폐기한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할 수 있는 한 현대적인 방법으로 그 연결 고리를 다시금 이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배형민 교수는 맨 먼저 "분야 간의 경계를 지워야 한다"라고 말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일을 정치가, 과학자, 기업, 환경단체나 환경운동가, 그 누구의 일로 한정지을 수 없다. 배형민 교수 자신이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 환경과 무관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 역시 우리의 일이다.

환경문제 앞에선 선생과 학생의 구분이 필요 없다. 이 문제에서는 동지다. 이러한 생각은 배형민 교수와 최문규 연세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의 건축 대화를 옮긴 책 『의심이 힘이다』에도 드러난다. 책에서 배형민 교수는 말한다. "최문규 교수는 건축가고 나는 학자이지만 우리가 학교 선생으로서 동감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선생은 문을 열어줄 뿐이다. 인연이 된다면 함께 문을 들어가 미래의 동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 '동료'로서 힘을 보태야 한다.

선생과 학생이 서로 존중하듯 배형민 교수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세상을 꿈꾼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존중하는 사회,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질문하고 함께 고민하는 사회를 말이다. 배형민 교수 또한 건축학자이자 큐레이터, 교육자, 한 시민으로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것이다.

"전시를 기획하고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제게도 평생의 과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성과 공존에 대한 과제 말입니다. 환경을 위한 전시를 올려놓고, 그다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옛 방식대로 쓰레기가 넘쳐 나는 전시를 올릴 수 없잖아요. 광주폴리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을 것입니다. 관심을 두고 지켜봐 주십시오."

끝으로 배형민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도 '공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학 강단에 서면서 배형민 교수는 학생의 등급을 나누는 평가 시스템에 대해 늘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정해진 답을 맞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각을 공유하며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교육,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공유와 소통과 공존을 체득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길 그는 바란다. 그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지구라는 공간도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과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통곡과 같은 폭우 대신 대지를 적시는 잔잔한 비의 목소리로, 비명과도 같은 폭염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어도 좋을 만큼의 더위로. 다시 아름다운 우리의 지구로.

「역사 속 숨은 영웅」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큰 의미를 남긴 교육자들의 흔적을 찾아서 그들의 헌신을 기리고 되새기는 코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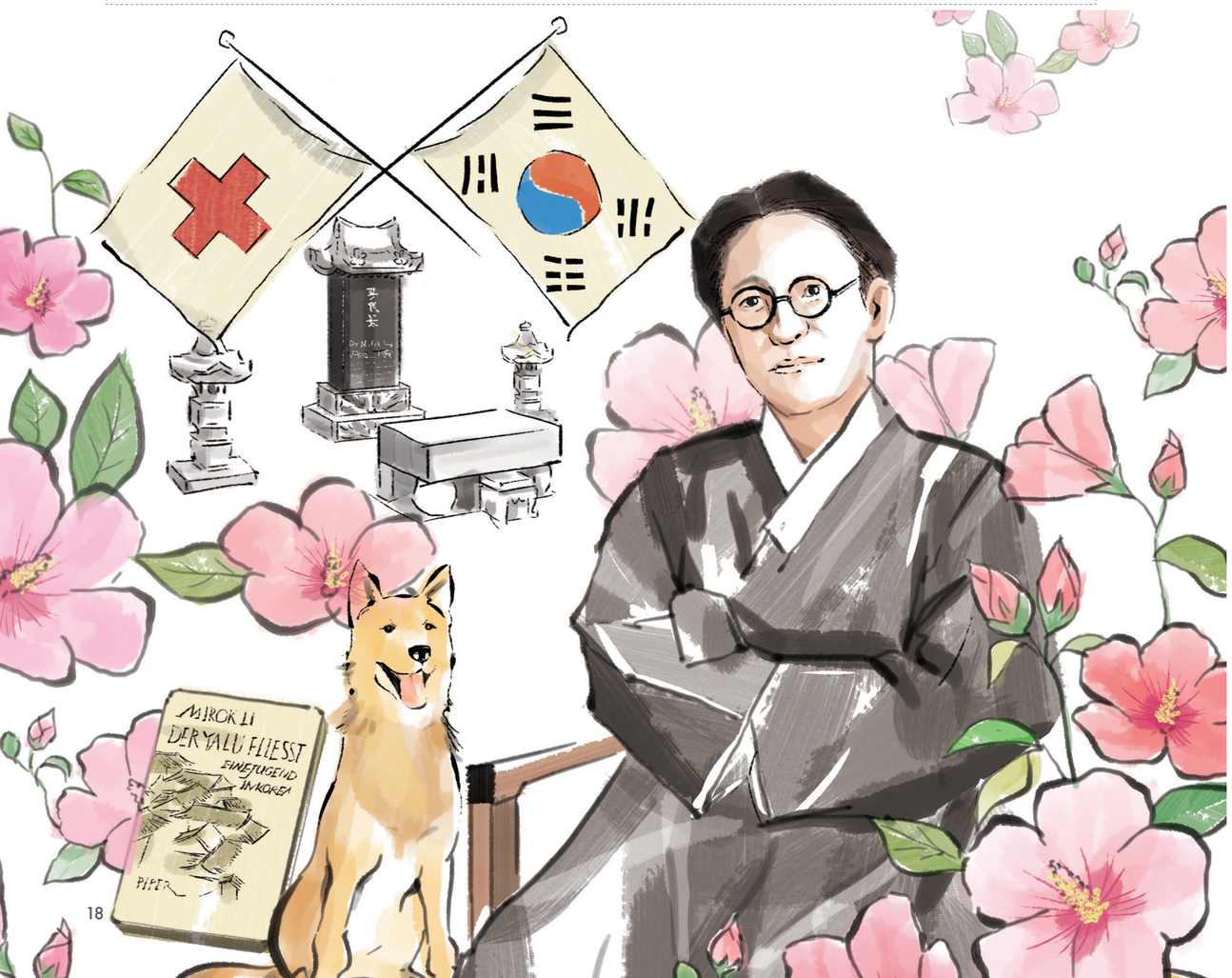
독립운동가이자 학자로 휴머니스트의 삶을 이어간 작가 이미륵 선생

3·1 운동의 주동자로 일본 경찰에 쫓겨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정부 활동을 돕다 독일에 정착한 이미륵 선생은 독일인보다 더 아름답고 간결한 독일어 문체를 구사했으며, 망명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도 인간적 따스함과 자존감을 잃지 않은 작가였다.

1946년 그가 자전소설 「압록강은 흐른다」를 출간했을 때 독일 언론은 '올해 독일어로 쓰인 가장 훌륭한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조선인 최초의 동물학 박사이자, 문인 그리고 한국어문학을 비롯하여 중국·일본 문학을 가르치는 동양학부 교수로 생활했던 그는 독일과 한국의 거리와 역사를 뛰어넘어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삶을 재생하고 기억하게 하고자 애쓴 휴머니스트였다. 암울했던 시기, 조국을 그리워하며 51년의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이미륵 선생의 삶을 반추해본다.

글 이경훈 화홍고등학교 역사교사

이경훈 역사 교사는 화홍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한일 간 역사 갈등과 화해를 연구하면서 「쟁점 한일사」 「마주 보는 한일사」(공저) 등을 출간했다.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지원교사, 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 위원 등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미륵불이 점지해 준 3대 독자

이미륵 선생은 1899년 3월 8일 황해도 해주의 부유한 천석꾼 집안에서 3대 독자로 태어났다. 마흔 중반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던 어머니가 집 근처 사찰의 미륵불에게 지극 정성으로 빌어 얻은 귀한 아들이었다. 본명은 이의경이나 어머니가 미륵불의 은덕으로 점지받은 아들이니 집안사람들과 아랫사람들에게 미륵이라고 부르게 해 미륵이 그의 아명이 되었다.

이의경 선생이 해주보통학교를 다니던 1910년에 조선이 일본에 강제 병합되었다. 설상가상 선생의 아버지가 병환으로 갑자기 사망하고, 이후 선생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업을 이어야 했기에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몇 년 뒤 집안이 안정되자 다시 학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독학을 해 1917년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 의사의 길을 걷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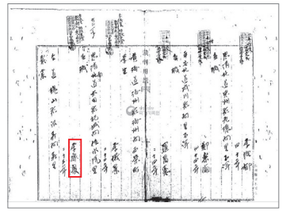
3·1운동 한복판에서 만세를 외치다

1919년, 이의경 선생이 3학년 새 학기 준비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던 무렵 3·1운동이 일어났다. 그는 경성의전 친구들과 함께 주저 없이 만세 시위에 뛰어들었다. 탑골공원에서 독립 만세를 외치는 시민들과 폭력으로 진압하는 일본 경찰들의 대립을 목격한 그는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이의경 선생은 전국적인 3·1운동이 잠잠해진 5월 외교 활동을 독립운동의 행동 지침으로 표방한 '대한청년외교단'(이하 청년외교단)이 결성되자 이에 가입해 단체 기관지 「외교시보」의 발행과 인쇄를 책임지는 편집국장으로 활동했다. 청년외교단은 일본이 조선을 강제 병합한 8월 29일을 기해 본격적인 만세 시위를 전개했다. 선생은 이날 배포한 '국치기념경고문'의 제작과 인쇄를 담당했다.

"신성한 우리 형제자매는 오늘을 기억해야 한다. 10년 전 오늘 8월 29일 우리 민족의 중추 기관은 하루아침에 중단되었다. 담대하라. 현재 우리 민족은 동서 열강에 분주하게 원통함을 호소한 10년 전의 국치를 씻으려 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이 기념일에 대한민국 만세를 삼창하라."(국치기념경고문)

이의경 선생이 활동하던 청년외교단은 경찰에 활동 정보가 누설되고 동지들이 체포되면서 조직이 와해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선생도 경찰의 체포 대상이 되었으나 어머니와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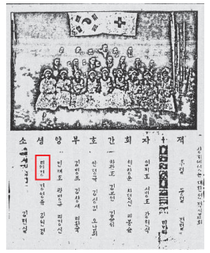


1920년 6월 29일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왼쪽 두 번째가 이의경 선생에 대한 판결 [출처: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지인의 도움으로 상하이로 피신할 수 있었다. 일본은 청년외교단 관련자들을 기소했고, 1920년 5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 역시 궐석재판이지만 재판을 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망명생활에서도 꺾이지 않은 독립운동의 의지

상하이로 피신한 이의경 선생은 1919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창립한 보건 후생 단체인 대한적십자회의 대원이 되었다. 의학도였던 그는 간호사 양성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마침 상하이에 머물러 있던 안중근 의사의 미망인과 가족을 만날 수 있었고,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 안봉근과 함께 1920년 4월 유럽으로 망명 생활을 이어갔다. 이의경 선생은 프랑스 마르세유를 거쳐 독일 뷔르츠부르크에 갔다. 뮌스터슈바르차하 수도원의 빌헬름 수사가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안봉근이 그를 잘 알았기 때문이다. 선생은 그 덕분에 수도원에 머물며 독일어를 익힐 수 있었다. 수도원의 도움으로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의학 공부를 이어가던 그는 1925년 뮌헨대학교로 옮겨 동물학과 철학으로 전공을 바꿔 공부를 계속했다.



대한적십자회의 활동을 알리는 기사(「신한민보」 1920. 4. 16.)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

일본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후 독립운동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독립운동 활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1920년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의경 선생도 머나먼 타국에서 망명과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예외는 아니었다. 일제는 '유럽 내 요주의 한인' 명단에 이의경 선생을 올려두고 감시했다. 이 때문에 그는 고향의 가족과 서신을 주고받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1927년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세계피압박민족회의가 열렸다. 그는 독일 베를린에서 유학하고 있던 이극로, 황우일 선생과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있던 김법린 선생 등과 함께 한국 대표단을 조직해 참가했다. 이들은 회의 주최 측에 '첫째 시모노세키조약(1894년 청일전쟁 이후 체결된 조약)을 실행해 조선의 독립을 확보할 것, 둘째 조선 총독 정치를 즉시 철폐할 것, 셋째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할 것'을 토의 의제로 제안했다. 또한 '한국의 문제'라는 자료를 제작해 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에게 배포하면서 한국의 실정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이의경 선생은 이처럼 망명 생활 중에도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활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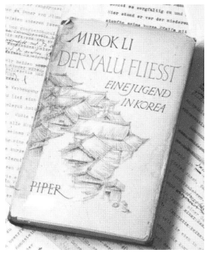
학자 이의경에서 작가 이미륵으로 전환하다

이의경 선생은 1928년 뮌헨대학교에서 '플라나리아의 재생'에 대한 연구로 동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가 받은 학위는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취득한 동물학 박사학위였지만 일제의 요시찰 인물인 그가 고국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또한 당시 독일 경제 상황으로 보아 외국인으로서 독일에서 직업을 갖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공을 살려 생활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는 이후 약 2년 동안 독일인들에게 서예를 가르치고 일본 유학생들의 논문을 번역하면서 생활했다. 이때 그는 동물학 박사 이의경에서 작가 이미륵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특히 이의경 선생이 뷔르츠부르크에 있는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 '저는 독일에서 몇 학기 동안 의학을 공부하다 자연과학과 철학으로 전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직업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활동이 더 절실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쓴 것을 보면 오래전부터 자연과학자로서의 삶보다 폭넓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작가로서의 삶을 염두에 두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1931년 「어느 날 밤 골목길에서」를 시작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글과 습작을 독일의 문예지와 신문에 발표하면서 작가의 삶을 시작했다. 「한국인의 조상숭배」(1933), 「한국과 한국인」(1934) 등 초기 작품을 보면 순수문학이라기보다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토속적인 풍습이나 이야기, 예절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점차 독일 문단에서 작가적 소질을 인정받게 되었고, 한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를 서구 유럽에 소개하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뮌헨 근교 그래펠핑에 살고 있던 자일러 교수 가족과 친분을 쌓고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생활에서도 안정을 찾고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1935년 「수암과 미륵」이라는 제목의 자전소설 형식의 글을 발표할 때 이의경이 아닌 이미륵으로 표기하면서 본격적인 '작가 이미륵'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독일어로 쓰인 가장 훌륭한 책 「압록강은 흐른다」



「압록강은 흐른다」 독일어 초판본 (1946) [출처: 연합뉴스]

이미륵 선생은 1946년 뮌헨의 피퍼 출판사를 통해 「압록강은 흐른다」라는 장편소설을 발표했다. 이 책은 1900년대 초반부터 사촌 수암과 함께 보낸 소년 시절, 가정과 학교생활, 한국의 전통 교육과 근대식 교육, 일제의 침략과 탄압 정치, 3·1운동, 압록강 건너 조국을 떠나 상하이를 거쳐 유럽에 도착해 독일 생활이 시작되기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 형식으로 담은 것이다.

이 소설은 그해 독일에서 발간된 잡지에서 '올해 독일어로 쓰인 가장 훌륭한 책은 외국인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그는 이미륵이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주목받았다. 「압록강은 흐른다」는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였지만, 이는 패전으로 지독한 상실감과 치명적 우울감에 시달리던 독일인들에게 평안한 위안과 아름다운 감동을 주었고,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고통과 허무의 기억을 일깨워주었기 때문이다.

3·1운동 참여와 대한청년외교단, 대한적십자회 활동, 한국 대표단으로 세계 피압박민족회의 참가 등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실천하고 망명 생활 속에서 식민지 청년으로서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던 이미륵 선생이 목가적 자전소설을 발표한 것에 대해 그를 아는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그러나 이것은 20세기 초반 한국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독일 독자들에게 연대기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한국을 알리는 것보다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전통과 사상을 소재로 전쟁으로 피폐해진 독일인들에게 인간의 내면적 가치를 소개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이미륵 선생의 작가적 판단이었다. 실제로 이미륵 선생은 독일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내적인 것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 피딱지와 오물 딱지를 씻기는 게 의사라고 생각할 테지만, 내적인 것을 치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인간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든다'라고 해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존재, 문학적 순수성을 통한 인간의 치유를 주장하는 진정한 휴머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작가적 의도를 알았던 것인지 「압록강은 흐른다」는 독일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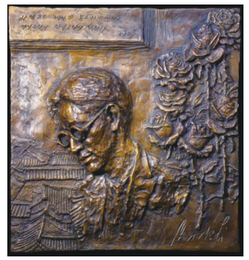
두루마기 차림의 이미륵 선생 (1936, 독일 그래펠핑) [출처: 이미륵박사기념사업회, 사진자료실]

독일과 한국에서 여전히 기억되는 이미륵

이미륵 선생은 장편소설 발표를 전후하여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다. 나치 독일의 치하에서 벗어난 독일 사회 분위기도 그의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그가 살고 있는 그래펠핑의 문인회 모임에서 매주 인문학 토론회를 가졌고, 독일작가협회 회원으로서 패전 이전 독일 문학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전후 독일 문학의 전망 등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1948년부터 그의 모교인 뮌헨대학교 동양학부에서 한국어와 문학, 중국과 일본 문학을 강의하기도 했다.

왕성하게 활동하던 이미륵 선생은 1949년부터 몸에 이상을 느꼈다. 바쁜 일정에 떠밀려 제대로 쉬는 시간조차 낼 수 없었던 그는 건강이 더욱 악화했다. 그때 양아버지처럼 따르고 스승으로 존경하던 자일러 교수가 질환으로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로 인한 슬픔이 그의 건강을 더 악화시킨 것인지 자일러 교수가 사망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미륵 선생도 위암으로 타계했다. 1950년 3월 20일이었다.

51년의 짧은 생을 마감한 이미륵 선생은 1965년 「압록강은 흐른다」가 대한민국에 번역 출간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기억되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1963년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하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고, 1990년 12월 건국훈장 애족장, 2007년 독립유공자 훈장을 수여해 그의 독립운동을 기렸다.


쿠르트 후버 거리에 설치된 이미륵 선생 동판 [출처: 연합뉴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2019년, 이미륵 선생이 살았던 독일 그래펠핑 시청 인근 쿠르트 후버 거리 입구에 그를 기념하는 동판이 설치되었다. 쿠르트 후버는 이미륵 선생의 스승이자 친구로 나치에 저항하는 백장미단을 후원하다 체포되어 1943년 처형된 뮌헨대학교 교수다. 선생은 후버 교수가 수감되었을 때뿐 아니라 그의 처형으로 가족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도 도움의 손길을 내민 유일한 사람이었다. 후버 교수 동판 옆에 위치한 그의 동판에는 그가 즐겨 사용하던 '사랑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가시 동산이 장미 동산이 되리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독일과 한국의 거리와 역사를 뛰어넘어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삶을 재생하고 기억하게 하고자 애쓴 휴머니스트로서의 이미륵 선생. 그의 묘비에는 그의 삶을 압축해 놓은 비문이 쓰여 있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똑같이 존중받으며 비상한 재주로서 동서양 간 이해를 위한 가교를 세웠노라." Ⓚ

이미륵 묘소(독일 그래펠핑시) [출처: 이미륵박사기념사업회, 사진자료실]

교사 출신 김완기 사진작가가 소장한 1960~1970년대 전후 추억의 사진을 만나보는 「우리 어렸을 적에」 코너를 통해 향수 어린 그 시절로 세대공감 여행을 떠나 보아요.

정겨웠던 운동장 놀이터

새 학년이 되어 학교생활이 안정되면 아이들이 더 활발해지면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 기구에 몰려든다. 서울을 비롯한 도회지 학교에서는 과밀한 학생 수에 비해 운동장이 비좁아 놀이 시설이 충분하지 못했다. 2부제, 3부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점심시간은 오전반과 오후반 아이들이 교대하는 시간이라 운동장과 복도가 항상 벅적거렸다. 시골 학교의 넓은 운동장에서 여유롭게 야외 놀이를 하는 장면은 도시 학교 아이들은 상상조차 못할 꿈같은 이야기였다. 수업 시작 직전에도 놀이 기구에 매달리는 아이들이 있었고, 쉬는 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미끄럼틀 앞에는 아이들이 긴 줄을 서는 것은 다반사였다.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미끄럼틀이나 시소가 인기 있었지만, 중학년이 되면 회전뱅뱅이나 구름사다리를 선호했고, 고학년들은 정글짐이나 늑목같이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구를 찾았다. 운동장 한쪽 가장자리에 세운 철봉이나 운동기구도 자연스레 아이들의 놀이 기구가 되었다. 또 방과 후 시간이면 축구 골대가 없는 운동장에서 책가방을 골대 삼아 축구를 즐기기도 했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며 마음을 열고 성장해 가는 귀중한 공간이었다. 교과 학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놀이를 통해 친구와 우정을 쌓으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어린 시절 놀이에 빠져들었던 추억을 간직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소중한 기억을 더듬어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격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놀이는 공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글 / 사진 김완기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 작가(前 성북교육청 교육장)

미끄럼틀 (1971)
수업이 끝나면 미끄럼틀에 아이들이 몰려든다. 비교적 어린 학생이 즐겨 타지만, 가끔은 고학년이 차지해 동생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한다.

회전뱅뱅이 (1971)
기민한 동작을 익히고 순발력을 키워주는 놀이 기구지만 뛰어오르고 내릴 때 주의가 필요하다.

구름사다리 (1971)
스릴을 느끼게 해주는 구름사다리. 전신운동이 되어 힘자랑을 하는 아이도 있었다.

정글짐 오르내리기 (1970)
저학년은 정글짐을 미로찾기 공간으로 이용하지만, 고학년은 정글짐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를 즐겼다.

방과 후 축구 놀이 (1972)
운동장이 비좁아 축구 골대가 없는 학교가 많았지만 방과 후나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가방과 가방 사이를 골대 삼아 축구를 즐기곤 했다.

회원 여러분의 '어렸을 적 추억'을 담아드립니다.

「The-K 매거진」은 회원 여러분의 학창 시절 추억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시절의 즐거웠던 순간이 담긴 사진을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도 「우리 어렸을 적에」 지면에 담아 많은 회원님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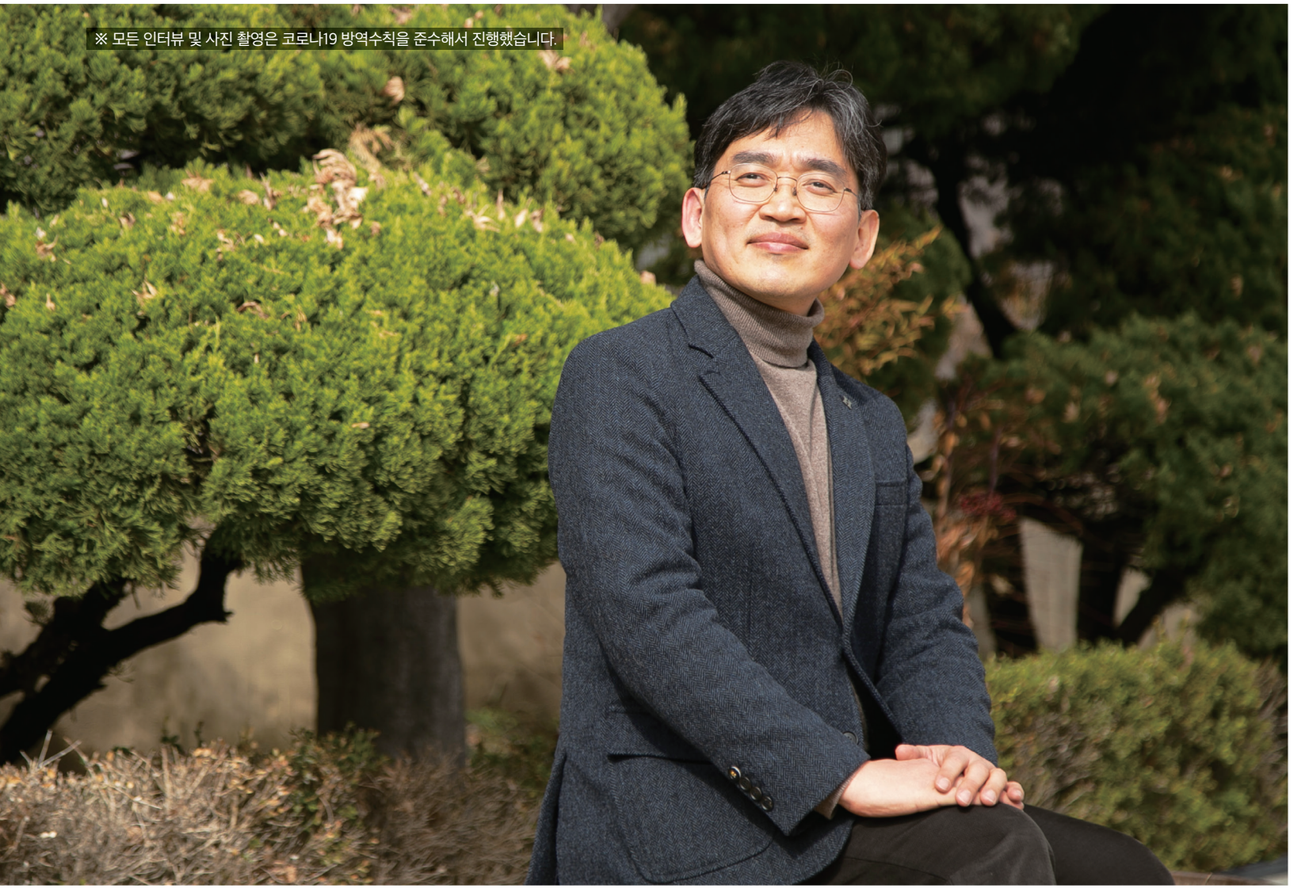
분야별 석학들을 만나 학교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칼럼 「오늘의 학교」입니다.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발상,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호기심 넘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지금부터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영림중학교 **윤상혁 교장**(前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장학사)

교육의 방향은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표준화된 기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많은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에는 스스로 정보를 찾고 판단하며 타인과 협력해 지식을 공유하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 이미 세계 각국은 '포스트 시대'에 걸맞은 학교와 교육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근무 시절, 서울교육중기발전계획위원회 최종보고서 「서울미래교육2030」을 기획한 윤상혁 교장 역시 미래 교육의 방향을 '혁신'에서 찾았다.

글 정라희 / **사진** 이용기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다가올 2030년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교육

서울시교육청에서는 4년에 한 번 '서울교육중기발전계획'을 세운다. 2019년에 수립한 계획이 2022년 말 종료되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다시금 서울 미래 교육의 나침반이 되어줄 중기발전계획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에는 4년 후가 아닌 8년 후, 2030년을 목표로 한 비전을 밝혔다. 2018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에서 근무했던 윤상혁 교장은 「서울미래교육 2030」을 준비하며 '2030년 세계와 미래 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보고서를 준비할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팬데믹 이후의 교육이 팬데믹 이전과 같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교육계의 공통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만드는 서울교육중기발전계획은 이제까지의 관성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 결과로 작년 4월 「서울미래교육 2030」이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것의 실행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2023~2026 서울교육중기발전계획」이 서울의 모든 교육기관에 배포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포스트 시대'의 교육에 대한 고민은 서울을 넘어 한국, 나아가 세계의 관심사였다. 유네스코(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2021년 발표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2030년 세계가 마주할 과제에 대응하려면 "학습의 이유와 방식, 내용, 위치, 시기를 다시 규정해야 하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라고 선언했다. 그 과정에서 유네스코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2030년의 세계가 부딪힐 시급한 과제로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67%), 폭력과 갈등(44%), 차별과 불평등(43%), 식량과 물, 주택 부족(42%) 등이 선정되었다. 나아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 원칙을 제시했다. 학생들의 자기 주체성을 강조한 교육 원칙은 한국의 입시 위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문제 제기이기도 했다.

좋은 삶을 위한 교육의 방향, 홍익인간 정신에서 다시 생각하다

'홍익인간'은 바람직한 미래 교육을 고민하던 윤상혁 교장에게 다시금 새롭게 다가온 말이었다. 실제로 한국 교육의

서울미래학교 프론티어 교사단 토론회

근간을 이루는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서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교육기본법의 전신이 1949년에 만든 교육법인데, 홍익인간이 여기에서부터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의 바탕에는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무척 오래된 말인데도, 교육기본법의 문구를 살펴보면 전혀 고루하지 않아요,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이라니요. 얼마나 세계적입니까. 기후위기를 말하는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신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 거창한 교육 목표를 가진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도, 정작 한국 교육의 현실은 '홍익인간'이라는 이상과는 거리가 멀죠."

모든 학습자의 전인교육과 잠재력 발휘,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지구의 안녕(Well-being)에 기초한 공동의 미래를 위한 노력 등 2018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OECD 교육 2030 : 미래 교육과 역량」에서 밝힌 교육의 역할에서도 홍익인간 정신과 맞물리는 지점이 보인다. 윤상혁 교장은 이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으로 '학습나침반'을 꼽았다.

"2018년에 정규교육 과정을 시작한 학생이 성인이 되는 시점이 2030년입니다. 학습나침반은 학생이 나침반을 들고 동료, 교사, 공동체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웰빙 2030'으로 가는 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육의 목적은 '좋은 삶'을 영위하는 것이고, 이는 곧 개인과 공동체, 지구의 안녕이 연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서울미래교육 2030」 역시 이러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존엄(시민성), 포용(다양성), 공존(지속가능성)을 서울미래교육의 핵심가치로 설정했다. 존엄(시민성)은 서울학생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며, 삶의 주체로서 다양한 자연·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 활동과 일상의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가치이다. 포용(다양성)은 인간의 존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포용하며 연대하려는 의식과 실천을 강조하는 가치이다. 마지막으로 공존(지속가능성)은 모든 생명체가 지구라는 시스템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의존적임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며 공존하는 것을 강조하는 가치이다.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국 교육

윤상혁 교장 역시 1999년에 교직 생활을 시작해 수학 교사로, 서울시교육청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장학사로 근무하며 한국 교육의 현실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경험하고 고민한 주역이다. 획일적인 교육, 주입·암기식 교육,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 등 한국 교육을 향한 날선 비판이 가끔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도 했다. 2010년을 전후로 국내 교육 현장에 '혁신학교'라는 대안이 등장했으나, 어떤 이들은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학생들의 활동을 중시하는 혁신학교를 두고 '입시 준비를 하지 않는 학교', '노는 학교'라고 낙인찍기도 했다.

"홍익인간과 같은 우리 교육의 멋진 이념과 달리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적자생존, 우승열패의 사고가 한국 교육에 만연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요구가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것처럼 모순적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윤상혁 교장은 "지금 우리 교육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한다. 이 대목에서 그는 한국 교육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혁신학교 정책의 위기'를 들었다.

"혁신학교 정책은 수업 혁신으로 시작해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총체적 혁신으로 확장되었고, 이후 행정과 인사 등 교육의 전반적 혁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혁신의 일반화 과정에서 그 본연의 목적이 퇴색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업 연구의 날을 운영하고, 교실 책상을 ㄷ자형으로 배치하고, 동료들과 함께 공개수업을 준비하고, 학년 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하고, 교육과정 중심의 교원학습공동체를 조직하고, 방학 동안 바쁘게 신학년 준비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은 혁신학교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교사의 헌신으로만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혁신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와 함께 강단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원학습공동체 대표 선생님들과의 좌담

서울미래학교 프론티어교사단 선생님들과의 좌담

혁신학교 최전선에서 혁신을 경험하며

2023년 1학기를 시작하며 혁신학교인 영림중학교에 공모제 교장으로 부임한 것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보고 싶은 생각이 컸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혁신학교로 운영 중인 영림중학교는 혁신학교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영림중학교 역시 혁신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 오랫동안 혁신교육을 일구어온 선생님들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그분들이 퇴임하고 난 이후를 생각하면 앞이 깜깜합니다. 반대로 코로나 시기에 교편을 잡은 초임 교사들의 경우에는 혁신교육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선배 교사의 지혜와 후배 교사의 열정 사이에 다리를 놓아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실제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일은 이상이 아닌 현실이다. 교장 공모 당시 심층 면접에서 그가 받은 첫 번째 질문은 '공석인 부장 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였다. 이어진 두 번째 질문은 '혁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였다. 이 두 질문은 혁신이라는 이상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학교의 리더로서 혁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보게 했다. 특히 많은 교사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혁신학교를 지속하는 일은 절대 만만하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공립 학교임에도 학부모의 88%, 교사의 75%가 여전히 혁신학교 운영을 지지하는 영림중학교의 사례를 통해 윤상혁 교장은 미래 교육의 희망을 본다.

"미래 교육은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똑같은 출발선에 세우는 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서로 손잡고 동그란 원을 만드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삶이 그렇듯 학교에서의 일상이 매번 즐겁고 감사한 일로만 가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혁신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에 학교에서의 희로애락을 기꺼이 함께 누리고 짊어지고자 한다. ⓚ

우리의 미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겪으며 혁신적으로 변화 중인 우리 교육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코너를 통해 함께 고민해 봅니다.

챗GPT 열풍으로 이미 도착한 미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은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 서비스인 챗GPT를 사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이의 관심을 끌고 있는 챗GPT(ChatGPT)는 현재까지 출시된 어떤 AI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수많은 영역에서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어느 때보다 현실에 가까이 다가왔다. 이미 도착한 미래, AI가 전 영역에서 일으키고 있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살펴보자.

글 김보배(「2025 미래 교육 대전환」 저자)

챗GPT와 변화하는 교육계의 움직임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계를 뜻한다. AI는 기존에 축적된 방대한 지식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습득한다. OpenAI(2015년 설립된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개발한 AI 기술 중 하나인 챗GPT는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양의 지식을 학습해 마치 사람이 쓴 것과 같은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대화형 AI'다.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구사하며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기억해 답변하기 때문에 사람이 쓴 것인지, 기계가 쓴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맥에 따라 미묘한 어감까지 구현한다.

챗GPT가 널리 이용되면서 국내외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다. 단순한 지식을 넘어 코딩이나 작곡, 더 나아가 신문 기사 같은 글쓰기 등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져 온 창작물까지도 내놓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요 대학에서 챗GPT가 과제를 대신해 주는 용도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자 이를 이용한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 챗GPT로 쓴 글을 잡아내는 'GPT제로'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한 국제학교에서 챗GPT를 활용해 영문 에세이를 작성한 학생 전원을 0점 처리한 사례가 화제였다. 챗GPT를 활용해 과제를 작성할 수 없도록 AI를 활용하여 규제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뒤따르고 있으나, 첨삭이나 수정을 더할 경우 챗GPT 사용 여부를 정확히 발견해 내기는 어렵다. 그 때문에 교수들은 과제를 낼 때 미리 챗GPT로 검색한 후 이를 활용해 제출할 수 없는 과제를 내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만이 방법일까? 물론 AI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챗GPT를 비롯한 AI 기술을 무조건 막기보다는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관련 능력을 언어, 수리와 더불어 기초 소양으로 강조한다. 우리 아이들은 AI 기술을 언어와 수리만큼 삶을 살아가는 기본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AI와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감정'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AI와 인간이 학습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다름 아닌 '감정'이다. 인간은 AI처럼 잠을 자지 않고 일하거나 공부할 수는 없다. 수많은 오류와 실수를 범하며 무기력이나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반면 흥미로운 대상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기고, 깊이 몰입할 때에는 더 수준 높은 과제에 도전하고 싶다는 도전 의식이나 자신감을 느끼기도 한다. 몰입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기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한다.

또 나와는 다른 의견을 지닌 사람들과 협업할 때 감정의 전이를 느끼며 배우는 즐거움이 고양되기도 한다.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창의적인 질문을 쏟아내거나, 공학과 예술을 넘나들며 다양한 관점의 융합적 문제 해결 방법을 창안해 내기도 한다. 이는 AI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나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등 사회·정서적 능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가 고시한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한 교육과정으로 2022년에 총론이 고시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15세 기탄잘리 라오가 최연소 올해의 인물로 뽑힌 이유

챗GPT는 현재 누구나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아마 질문의 수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단순히 오늘 먹을 점심 메뉴에 대한 대화를 해볼 수도 있다. 그 질문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간에게는 강력한 호기심이 있고, 그 호기심은 관심 분야의 궁금증을 유발하며, 그 속에서 여러 문제를 발견한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질문을 발견하는 것은 AI가 할 수 없는 중요한 능력이다. AI 시대의 새로운 인재상을 알아보기 위해 한 사례를 살펴보자. 2020년 미국 주간지 「타임」은 고등학생이자 AI 과학자인 당시 15세의 기탄잘리 라오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이 소녀는 9세 때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시 시민 10만 명이 납중독에 걸리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했다. 여러 연구를 거듭한 끝에 12세 때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해 물속의 납 성분을 감지하는 '테티스'라는 장치를 개발했다. 이후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이버 괴롭힘 조짐을 조기 감지하는 애플리케이션 '카인들리'를 개발하기도 했다.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관심사에 깊이 있게 몰입하다 보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이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지식 자료를 수집해 문제 해결에 이르는 이 과정은 AI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자신의 관심 분야를 끊임없이 파고들다가 내면에서 촉발된 강력한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에 부딪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몰입하며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AI와 공존하기 위해 우리가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점은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질문하며,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해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AI 시대, 교사와 학부모가 해야 할 일

앞서 언급한 AI의 출현과 새로운 인재상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방향의 주요 배경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AI에 대한 기초 소양을 높일 뿐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가진 다양성과 잠재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지식을 습득하고 암기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촉발된 호기심과 관심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고, 자신이 발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맞춤형으로 설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관심사와 진로에 따라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듣고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 같은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이 강화되며, 진로에 따른 학생 맞춤형 수업 과정 설계가 강조된다. 맞춤형 수업이란 학생들 개개인의 관심과 흥미,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주는 교육에서 시작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AI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활용될 것이며, 학생들이 지닌 다양성과 잠재력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역할에 그물처럼 엮여갈 수 있을 것이다.

챗GPT 같은 AI는 앞으로 한층 진화할 것이며, 그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따라서 제재와 규제를 마련하거나 표절의 윤리적 의미를 일깨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이 학습해 나가는 데 느끼는 감정에 따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타인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수 있도록 돕는 하브루타 교육법이나 집에서 강의를 듣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협력해 토론, 토의, 실험 등의 활동을 하는 거꾸로 학습법 등이 주목받고 있는 까닭이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눈빛을 보자. 그리고 그 눈빛에 민감하게 반응해 입을 열게 하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자. '왜'라는 질문 속에서 관심 분야를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돕자. 평균을 좇는 데에서 그 관심을 사람에게로 옮긴다면 미래 교육 또한 현재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로와 직업의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잡(job)자」는 직업 교육 전문가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 사회의 직업들을 살펴보고자 마련된 코너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선도자 미래 에너지 컨설턴트

지구의 미래는 기술 발전이 아니라 '에너지'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에너지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 이용 비율을 보면, 석유가 약 30%로 가장 많고, 석탄 27%, 천연가스 24%이며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약 9% 정도이다.(출처: VOAKOREA)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EV), 배터리의 쓰임이 확대되며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 격동기를 거치고 있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생산과 소비 흐름을 읽고 세계 정세를 이해하는 에너지 전문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미래 에너지 컨설턴트는 지구의 환경을 고려하면서 에너지의 효율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 고민한다. 미래 인류와 지구의 공존을 이끄는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이면서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미래 에너지 컨설턴트에 대해 알아본다.

글 한상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태양광 마을

베를린, '태양의 도시'를 선언하다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보다 획기적인 법안을 최근 발표했다. 2035년까지 독일 전체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전 대신에 천연가스의 비중을 늘렸고, 이후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 도시 미관을 이유로 태양광 시설이 흉물로 취급받기도 했지만, 최근 베를린에서는 태양광 도시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다. 이는 베를린이 앞으로 태양의 도시가 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에너지 대란과 더욱 가까워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현대 세계에서 에너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지난겨울 우리는 이른바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주요 산유국이나 천연가스 수출국을 제외하고 세계 각국은 심각한 에너지 문제에 봉착했다. 에너지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 시련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뿐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는 다양하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나뉜다. 신에너지로는 수소, 연료전지 등이 재생에너지로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해양, 바이오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태양광은 물론 해상풍력, 육상풍력, 연료전지, 수력 등의 비중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전력 시스템 분석 능력을 갖춰야 하는 미래 에너지 컨설턴트

미래 에너지 컨설턴트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해 자문하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그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의 도입·운영과 관련해 정부, 기업체, 사용자 등과 협의하고 설득하는 일도 맡는다.

미래 에너지 컨설턴트가 되려면 대학에서 전기전자공학, 재료공학, 신소재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기 네트워크와 전력 시스템, 전력망 설계와 운영,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등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미래의 리더

기존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의 중심축을 바꾸려는 시도를 에너지 전환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미래형 에너지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었다면, 이제는 단순한 도입을 넘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사람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문을 하는 컨설턴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친환경 에너지를 새롭게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을 자문하는 미래 에너지 컨설턴트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에너지 컨설턴트는 태양광발전 개발자, 풍력발전 개발자, 에너지 관리 기술자 등 다양한 그린 잡(green job)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꿈 너머 꿈」은 현업 활동과 더불어 또 다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 넘치는 회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코너입니다.

교실에서 마을로 뻗어가는 생활 속 환경교육

창원 용남초등학교 **임성화 교사**

소소함은 시시함이 아니다. 임성화 교사는 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실천들이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느리지만 뚜렷하게' 지켜봐 왔다. 그의 교실에는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환경 동아리 '그린 그램(Green Gram)'이 있다. 매월 주제를 정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생활 속 실천을 함께해 온 지 올해로 3년. '작은 아이들'이 '큰 물결'을 만들어간다. 초록을 1g씩 늘리며 우리의 미래를 바꿔 나간다.

글 박미경 / **사진** 이용기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초록을 1g씩 늘리는 환경교육 동아리

용남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 들어서면 이색 풍경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알록달록 색색의 손수건이 창가의 빨래걸이 위에서 꽃처럼 교실을 밝히고 있다. 이 학급에선 물티슈 대신 집에서 가져온 손수건을 쓴다. 아이들이 스스로 빨아 널어놓은 작은 헝겊들을 봄 햇살이 부지런히 말려주는 중이다. 교실 뒤편 게시판엔 환경 관련 그림이 빼곡하다. 지구를 걱정하며 아이들이 직접 그린 포스터다. 이 공간의 주인공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사람보다 교실이 먼저 속삭여 온다.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지난 3월 2일 용남초등학교에 부임했거든요. 직전 근무지였던 무동초등학교에서 환경 수업이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똑똑히 봤어요. 농부가 새봄마다 새 씨앗을 뿌리듯, 새 학교에 왔으니 새 마음으로 다시 해보려고 해요."

임성화 교사의 교실에는 '그린 그램(Green Gram)'이라는 동아리가 있다.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환경교육 동아리로, '초록을 1g이라도 더 늘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전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해 온 활동을 그는 또 힘차게 시작하려 한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열두 달 환경 교실

그의 환경교육 핵심어는 '열두 달 환경 교실'이다. 우리의 달력 안에는 매월 '환경을 위한 날'이 있다. 4월 22일 지구의 날, 5월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 각각의 날에 맞는 환경 수업을 그는 매월 아이들과 유쾌하게 진행해 왔다.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저녁 8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전등을 꺼보는 '지구촌 전등 끄기(Earth Hour)의 날'이에요. 이날이 다가오면 우리 아이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해요. '한 시간만 불을 꺼주세요', '가족과 함께 별을 세어보아요', '전등을 끄고 별을 켜요' 같은 문구를 넣어 포스터를 그리고, 인근 아파트로 가서 협조를 구합니다. 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포스터를 붙여두고 오는데 반응이 꽤 좋아요. 주민들에게 방송해 주는 관리소장님도 계시고, 학부모 커뮤니티에 사진을 공유해 주는 어머니들도 계세요. 고맙고 든든하죠."

아이들의 활동이 주민들을 움직인 사례는 그 외에도 많다. 그 가운데 2021년부터 2년간 세계 환경의 날에 진행한 '용기 내 챌린지'는 동네 분위기를 크게 바꿔놨다. 여기서 말하

는 용기는 '그릇'과 '마음'을 동시에 뜻한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집에서 쓰는 용기(容器)를 가져가 음식을 포장해 오자는 의미인데, 이게 제법 용기(勇氣)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그는 전교생 학부모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장을 보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자주 가는 학교 인근 음식점을 조사했다. 그중 열다섯 곳과 협약을 맺고, 그릇을 들고 음식을 사러 오면 100원씩이라도 가격을 깎아주도록 유도했다.

"아이들은 물론 부모님, 인근 가게도 모두 즐겁게 참여해 줬어요. 한 아버지는 지금도 '반려 용기'를 가지고 다니며 딸에게 떡볶이를 사다 주세요. 한 짬뽕집은 요즘도 그릇을 가져온 학생에게 1,000원씩 깎아주고 계시고요. 그런 변화들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변화의 주체가 된 아이들

재작년과 작년 7월에 진행한 '꽁초 어택(attack)'도 기억에 남는 활동이다. 길거리나 빗물받이에 버려진 담배꽁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자신이 버린 꽁초를 스스로 되가져가도록 하는 캠페인을 하기로 했다. 아이들이 그린 포스터를 통해서다. 그 과정에서 시가랩(Cigarap)을

알게 됐다. 시가랩은 담배꽁초를 돌돌 말아 담뱃갑에 보관했다가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연분해 포장지다. 협조를 구해 인근 아파트와 편의점에 시가랩과 포스터를 같이 비치했다. 얼마 뒤 그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고, 그 기사를 본 시가랩 측에서 아이들의 포스터를 포장지 디자인에 반영했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했다.

"담배 제조회사에 아이들이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플라스틱 필터를 친환경 필터로 바꾸고, 꽁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요구에 답변도 받았어요. 당장 필터를 바꾸긴 어렵지만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데 힘쓰고 있고, 꽁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자신들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말해줬어요. 앞으로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는 데 힘을 보탤 수도 있고, 훗날 직업인이 됐을 때 환경을 위한 결정을 내려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올해는 근처 재래시장에서 비닐봉지 없이 물건을 사고파는 활동을 아이들과 함께 시작하려 한다. 장바구니를 깜빡 잊고 와도 시장에서 바구니를 대여해 주도록 상인과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생각이다. 생활 속 환경교육을 시작한 뒤로 '온 마을'이 아이들의 교실이 되어간다.

그의 상복(賞福)은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2022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에서 교사로는 유일하게 우수상을 받았다. 2021년과 2022년엔 우수 환경 동아리 초등 부문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잇달아 수상했다. 아이들과 주민들 덕분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아이들의 가슴에 인류애를 심어주는 꿈

그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품게 된 건 2020년 여름방학 때다.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족 여행을 갔다가 새끼 거북이 방생 체험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지구 온도 상승으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거북이 알이 유실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순간, 큰일이라고 자각했다. 온도 변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이 발리의 거북이들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었다.

"개학하자마자 환경 수업을 시작했어요. 코에 빨대가 꽂힌 거북이와 그물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북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환경문제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공부해 나갔죠. 그 결과물로 색칠 공부 책 「바다가 쓰레기 섬이 되고 있어요」, 「우리 집이 탄소를 배출하는 공장이에요」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책을 묶어 저학년 아이들에게 나눠줬죠. 그게 '그린 그램'의 시작이에요."

지난 3년을 그는 '격변의 시간'으로 회고한다. 그 스스로 가장 많이 변했다. 일상에서 일회용품을 완전히 걷어내고, 식생활에서도 채식주의자로 완벽히 거듭났다. 아이들은 이제 우유 팩을 씻어 말린 뒤 화장지로 바꿔오는 걸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 물도 텀블러에 담아와 마시는데, 수분이 많이 필요한 여름엔 인근 가게들에서 아이들의 텀블러에 물을 공짜로 공급해 준다. 자원의 순환이, 지역사회의 연대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같은 꿈을 꾸는 동료들이 생겼다는 것도 그의 삶의 중요한 변화다. 그는 2021년부터 경남교육청 실천교사단 '기후천사단'에 가입해 서로 사례를 공유 중이다.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톡톡히 누리며 산다.

"2009년 광양 광영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사랑의 방식에 환경교육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환경에 눈뜨니 '인류애'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지구상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단단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가 창창한 미래로 나아간다. 씩씩한 아이들이 곁에 있어 묵묵한 날갯짓이 외롭지 않아 보인다. Ⓚ

'꿈 너머 꿈'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꿈 너머 꿈'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담는 코너입니다. 회원님이라면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꿈을 향해 쉼 없는 도전을 하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The-K 매거진」이 회원님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배움 더하기 고민 상담소

생애주기 중 허리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바로 4050세대입니다. 「고민 상담소」는 책임은 막중하나, 위로를 받기 어려운 4050세대들이 가진 가정·직장 내의 고민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자!'

중년을 엄습하는 불안·공황장애 극복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가 30%대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대별로는 50~60대 중년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0대가 넘으면 신체뿐 아니라 마음마저 활력을 잃고, 퇴직이나 자녀 분가 등으로 상실감을 크게 느끼는 데다 건강에도 하나둘 문제가 생기면서 우울하고 불안해지기 쉽다. 불안한 미래와 가정경제에 대한 걱정도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초래한다. 게다가 수면의 질까지 떨어지다 보니 불면증 등 수면장애도 생긴다.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불안감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 건강을 챙기는 법을 알아본다.

글 강일수 두디스코칭 대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불안, 초조, 긴장, 스트레스, 걱정 따위의 모든 두려움은 미래에 매달리고 현재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과거에 집착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불만족스러운 현재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미래에 매달리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면 '지금'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된다.

물론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를 회피하라는 것은 아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이성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지금'에 집중하며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삶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외적 이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지금 가진 것이 질병이건 건강이건, 부유함이건 가난함이건, 친구이건 적이건 상관이 없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는 성실함을 배웠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해 건강을 얻었으며,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열심히 묻고 배울 수 있었다"라고 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현명하게 사용한 셈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와도 비교하지 않으며, 그저 자신이 가진 것을 잘 사용한다.

삶은 소유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있음'이다

우리의 삶이 허약할수록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한다. 삶은 소유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있음이다. 마음의 평안과 자유는 우리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무엇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존재 상태다.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다.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면 안 된다.

거짓 자아에 속으며 영혼 없는 삶을 살지 말기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 해도, 존재의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라는 참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직 거짓 자아에 속는 것이다. 우울과 불안은 거짓 자아에 초점을 맞춘 상태다. 거짓 자아는 '나'가 아닌 것을 '나'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나의 것'은 진짜 '나'가 아니다. 거짓 자아는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아의식이다. 몸을 나와 동일시하게 만들어버린다. 거짓 자아는 욕구 충족을 목표로 한다. 그 길만이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나'를 만족시키는 방식이라고 추정한다. 거짓 자아는 생각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두려움은 죽음과 소멸에 대한 거짓 자아의 두려움이다. 이 죽음과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친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자아에 속으며 결국 영혼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본연의 나 자신으로 돌아가 지혜 안에서 신성한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삶은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 현실이다. 현재의 순간만이 내가 가진 전부라는 걸 깊이 인식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삶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한다. 시간 속에 살면서 잠깐씩만 지금 이 순간에 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살면서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과거와 미래를 잠깐씩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즉 미래도 과거도 아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고 강렬하게 집중하고 있을 때만 이 진정한 존재 상태를 느낄 수 있다. 진정한 평안과 자유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얼른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수록 우리는 마음의 불안과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

행동의 결과에 연연치 말고, 행위 자체에 주의 기울이기

우리는 삶에 당면한 여러 상황을 바꾸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개선되는 것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삶은 개인의 노력으로 바꾸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삶의 상황이 아닌 삶 자체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영혼의 삶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이런저런 삶의 상황에 반응할 수 있다. 이러한 존재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한 번에 한 가지씩 적절한 행동을 취하면 된다. 과거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깊이 기울이며 행동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행동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행위 자체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 열매는 저절로 열릴 것이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이미 행복하다. Ⓚ

「인생 이모작」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제2의 삶을 알차게 설계하고, 행복을 찾는 퇴직 회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자연이란 교실에서 나무와 숲의 사랑을 배웁니다

숲해설가 박양수 회원

박양수 회원은 '진짜 부자로 사는 법'을 알고 있다. 꽃잎에 맺히는 새봄의 아침 이슬, 나뭇가지 사이로 들이치는 한여름 오후의 햇살, 숲길을 레드카펫으로 만드는 늦가을의 산들바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을 원 없이 누리면서 '진짜'로 값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중학교 기술 교사일 때와 달리 숲이라는 교실에선 숫자가 필요 없다. 계산기가 무용한 자연의 품에서, 그의 삶은 날이 갈수록 풍요롭고 여유롭다.

글 박미경 / **사진** 이용기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숲에서 배우는 교감의 지혜, 나눔의 즐거움

자연 속 반복은 반복이 아니다. 같은 장소, 같은 풍경이라도 계절 따라 날씨 따라 매번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까닭이다. 그는 매일 집 앞 올림픽공원을 산책한다. 동이 채 트기도 전에 길을 나서 환한 햇살을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온다. 아침 산책길에서만 약 8,000보를 걷는다. 아니 걷는다는 말보다 즐긴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눈을 맞추며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이다. 불쑥 고개 내민 꽃잎이나 부쩍 통통해진 나뭇가지 같은 것에 번번이 처음처럼 가슴이 뛴다. 오늘도 소풍 같은 황혼의 날들이다.

"올림픽공원은 생태 다양성이 아주 뛰어나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의 상징성이 있는 나무를 이곳에 옮겨 심도록 했어요. 여기가 한성백제의 몽촌토성이 존재하던 곳이거든요. 오랜 역사를 지닌 자연식생과 새로 조성한 인위적 식생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 생태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낼모레 숲해설가 15명을 대상으로 이 일대를 안내할 거예요. 눈빛을 반짝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상상하면 벌써 기분이 좋아져요."

목본식물, 초본식물, 동물, 곤충, 토양, 수석, 미생물…. 숲은 그 모든 생명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터전이고, 숲해설가는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안내자'다. 그러니 끝없이 공부해야 한다. 숲해설가의 배움에 '완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를 한없이 겸손하게 한다. 그가 하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무와의 '교감'이다. 나무는 한곳에 뿌리를 내리면 그 자리에서 죽는 날까지 살아가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 유심히 살펴보면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어렵잖게 접할 수 있다. 나무의 이름이나 성질을 외우는 것보다 나무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는 믿는다. 그에게 숲은 '사랑'의 다른 말이다.

인생을 백팔십도 바꿔놓은 자연 감수성

"나무와의 교감이 시작되면 미처 몰랐던 세상을 만나게 돼요. 요즘 같은 새봄엔 뿌리에서 물을 공급받아 겨울눈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잎이 나고 꽃이 피면 또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죠.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숲해설가의 역할이에요."

그가 교직 생활을 마무리한 건 2011년 서울 한산중학교에서다. 37년간 기술 교사로 일한 그는 인생 1막에서 2막으로 건너오면서 감수성이 백팔십도 달라졌다고 고백한다. 학교에서 기술 과목을 가르칠 땐 정확한 공식과 오차 없는 숫자 등을 추구하느라 자연이 선사하는 넉넉함을 누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변화는 2003년부터 시작됐다. 건강을 위해 틈틈이 산에 오르던 중 자신이 산에 서식하는 식물들에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자각했고, 산에서 만나는 식물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 숲해설가 공부를 시작했다.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생태교육을 먼저 받고, 뒤이어 (사)한국숲해설가협회에서 마련한 숲해설가 양성 교육과정에 참여했다. 2년여의 교육이 끝나고 2005년 숲해설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아직 퇴직 전이었기에 주말과 방학을 활용했다.

"서울시에서 공개 모집하는 숲해설가로 선정돼 서울숲이며 방이습지 등에서 활동했어요. 유치원생부터 초·중·고교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눈높이에 맞게 숲을 안내하는 일이 참 즐겁더라고요. 2018년부터는 주로 숲해설가들에게 제 지식을 나눠주고 있어요. 재능 기부 형태로요. 숲이 제게 나눔의 즐거움을 선사해 줬어요."

나무 찾아 우리 땅 곳곳을 누비는 기쁨

정년퇴직을 한 직후부터는 한국숲해설가협회 목본연구회장으로 활약해 왔다. 목본연구회는 나무를 관찰하고 탐구해 그 결과를 자료집으로 묶는 연구 모임이다. 2011년 그를 포함해 한국숲해설가협회 정회원 5명이 단체를 설립했고, 현재 60명이 훌쩍 넘는 회원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각각 2011년과 2013년에 펴낸 「나무 이야기 자료집」, 「나무 이야기 자료집 Ⅱ」는 숲해설가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수종을 선정해 만든 목본연구회의 결과물이다. 2016년에 나온 「감동이 있는 나무 이야기」는 그간 만든 자료집을 도감 형태의 이야기로 담은 완성본이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펴낸 「나무수첩」은 조사문, 시, 수필 등 영역에 구애되지 않고 나무 이야기를 담아낸 '종합 선물 세트'다.

「2022 나무수첩」에는 '괴불나무 형제 알아보기'라는 그의 글이 실려 있다. 괴불나무는 남부 지방에서 백두산까지 분포 지역이 매우 넓다. 실린 글은 여덟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구석구석 발품을 팔며 그가 직접 탐사한 결과들이 그 안에 오롯이 담겨 있다. 그중 흰괴불나무 사진은 강원도에서 가져온 묘목을 손수 재배해 가며 찍은 것이고, 물앵도나무 사진은 백두산 등반길에 올라 직접 촬영한 것이다. 국립수목원 사진반에서 3년간 촬영 기법을 배워둔 것이 그때마다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카메라와 태블릿PC를 휴대하고 다니느라 어깨가 늘 아프지만, 우리 숲 곳곳에서 자신을 반겨줄 나무들을 생각하며 그는 기꺼이 우리 땅 곳곳을 누빈다.

"고향을 재발견하게 됐다는 것도 큰 기쁨이에요. 제 고향이 전남 무안인데, 그곳에 남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모두가 가난하던 어린 날 동네 친구들과 그 산에 올라 칡뿌리를 캐 먹고는 했는데, 숲해설가가 되고 나서 다시 가보니 해양성 수목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더라고요. 작은 산인데도 수목이 워낙 다양해요. 전시장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요. 그 산에서 대팻집나무를 만났는데, 간벌 때 잘려 나갈 뻔한 걸 제가 묶어서 살려놨어요. 지금도 잘 살아 있어요.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꽃과 잎이 없어도 숲이 찬란한 이유

나무들이 옷을 벗는 겨울에도 그는 쉬지 않는다. 그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겨울나무 동정(同定)을 시작한 때는 2004년이다. 어떤 생물에 대해 분류학상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것을 '동정'이라고 하는데, 잎도 꽃도 없는 겨울나무를 보며 나무를 식별하는 일이 숲해설가들에겐 매우 큰 공부가 된다. 작은 단서 하나로 탐정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듯, 겨울눈 하나만으로도 나무를 알아보는 과정이 그에겐 엄청난 즐거움이다. 그러니 겨울 숲도 찬란하다. 꽃이나 잎이 없어도 그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답다.

"숲해설가 공부를 시작한 뒤 약 8년이 지나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 덕분에 인생 1막에서 2막으로 공백 없이 건너갈 수 있었죠. 인생에 정답이란 없지만, 자신이 무엇과 잘 맞는지 은퇴 전에 충분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걸 만났어요. 자연 감수성이라곤 전혀 없던 제가 자연에 파묻혀 살고 있잖아요. 자신을 어디에도 가두지 말고 시야를 넓게 가져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서울살이를 오래 한 제가 10여 년째 텃밭도 가꾸고 있어요. 25평의 밭에서 온갖 먹을거리를 직접 길러 먹습니다. 경험한 적 없는 재미를 은퇴 뒤에 쏠쏠히 누리고 있어요."

그의 해설을 들으며 올림픽공원의 나무들과 일일이 눈을 맞춘다.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대나무가 이곳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겨울눈 상태의 솔방울이 머지않아 어떻게 변신해 갈지, 그가 시시콜콜 따뜻이 안내해 준다. 향선나무, 백합나무, 때죽나무, 참빗살나무, 미선나무, 산검양옻나무…. 마음을 내어준 적 없던 나무들이 그의 이야기를 타고 가만가만 반갑게 친구가 된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봄이 왔음을 알리는 풍년화를 숲길에서 만난다. 생강나무꽃보다 먼저 핀다는 봄의 전령이다. 수줍게 핀 그 꽃을 향해 그가 카메라를 든다. 향기의 주인공이 그인지 꽃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는다. Ⓚ

'인생 이모작'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재능을 기부하며 역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의미 있는 인생 이모작을 실현하고 있는 회원님을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The-K 매거진」 지면에 담아 많은 회원님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전해드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제주 부럽지 않은 노란 유채꽃의 향연
시인의 고향에 찾아온 눈부신 사월

충북 옥천군

시인 정지용이 꿈엔들 잊지 못했던 고향, 옥천에 유채꽃과 벚꽃이 화사하게 피어나며 본격적인 봄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다. 금강이 유유히 흐르는 충북 내륙의 고장은 지금 이 무렵이 사계절 중 가장 아름다운 시기. 화사하다 못해 눈이 부시기까지 한 옥천의 사월 풍경을 마음속에 한 아름 안고 돌아오자.

글/사진 우인재 여행작가 / **사진 제공** 옥천군청

우인재 작가는 10여 년간 출판사에서 여행 콘텐츠 기획 및 취재를 담당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 가이드북 로스앤젤레스 편을 비롯해 대한생명, 교보생명, 외환은행 등 보험·금융사 고객용 여행 가이드북을 기획 및 제작했다. 또 월간 「DOVE」, 「모터트렌드」 등의 매체를 비롯해 인천공항공사, 롯데백화점, 조달청, 롯데제이티비, LS전선 등 기업체 사보에 여행, 드라이브 원고를 기고했다. 현재 프리랜서 여행작가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다.

유채꽃 단지 전경

금강 물들이는 노란 유채꽃

충청북도 옥천군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에 기대어 선 내륙 깊은 곳의 고장이다. 대전광역시와 청주시에 가려 덜 알려져 있을 뿐, 알고 보면 옥천은 충북의 젖줄 금강이 숨겨놓은 비경들이 즐비한 지역이기도 하다. 대청호 남쪽에서 가장 수려한 절경인 부소담악을 품고 있을 뿐 아니라 금강수변 친수공원 유채꽃 단지, 구읍 정지용문학관, 옛 37번 국도변 벚꽃길, 장계관광지 등 자연과 문학이 어우러진 인증샷 명소들로 가득하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장소는 금강수변 친수공원에 조성된 유채꽃 단지.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의 금강 둔치에 있는 유채꽃 단지는 몇 년 전 인기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 소개되면서 회자되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유채밭은 개점휴업 상태였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옥천군이 4월 15일부터 향수 옥천 유채꽃 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 상큼한 노란빛의 유채꽃이 반짝이는 사월의 햇살을 듬뿍 머금은채 금강변을 노랗게 물들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봄의 절정을 경험하게 해준다. 무려 2만 5천 평에 달하는 너른 친수공원에 조성된 유채꽃은 동이면 주민들이 직접 유채씨를 파종했던 장소였던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른 곳이다.

실개천이 흐르는 시인의 고향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정지용 '향수' 中

둔주봉 한반도 지형

정지용문학관

용암사 일출

옥천에서 태어난 시인 정지용은 고향의 아름다움을 '향수'라는 시에 고스란히 담아 노래했다. 정지용 생가와 문학관이 위치하는 옥천 구읍은 70~80년대를 생각나게 만드는 정겨운 동네다. 양철 슬레이트 지붕과 전통가옥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일본식 건물 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장소는 '춘추민속관'이다. 지은지 160년이 넘은 이 전통가옥은 본래 대전에서 민속박물관으로 활용되었던 건물이다. 철로가 건물터를 지나게 되면서 춘추민속관은 지금의 옥천 구읍 소재지인 옥천읍 문정리로 옮겨지게 된다. 현재 춘추민속관은 시골밥상을 맛볼 수 있는 식당 겸 한옥 체험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영주차장을 사이에 두고 정지용문학관과 생가를 마주 보고 있으므로 두 곳을 동시에 둘러볼 수 있는 점이 좋다. 구읍을 관통하는 실개천을 건너면 시인 정지용의 서정적인 작품세계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정지용문학관이 있다. 청석교 다리 아래로 지줄대며 흐르는 하천은 정지용의 시 '향수'의 실제 배경이 아닐까 싶을 만큼 기시감이 들게 만든다.

옥천에서 1박을 할 예정이라면 용암사에도 한 번 들러보면 어떨까. 옥천읍내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용암사는 이른 아침 동트는 풍경을 찍기 위해 사진가들이 자주 방문하는 일출 명소다. 절집 바로 앞까지 이어지는 포장길을 따라 장령산 8부 능선 언저리까지 오르면 옥천사 대웅전과 범종각이 눈에 들어온다. 차를 두고 가파른 길을 따라 10여 분 정도 더 오르면 장령산 정상 부근에서 시야가 탁 트이는 지점에 다다른다. 용암사 일출은 봄과 가을에 가장 아름답다. 대청호가 토해낸 물안개가 두터운 구름층을 형성해 그야말로 '구름의 바다'를 이루기 때문이다. 운무와 안개에 가려 실루엣만 남은 산들이 수백 개의 층을 이루며 겹쳐져 수묵으로 그린 산수화 풍경을 보는 듯하다.

벚꽃 엔딩 펼쳐지는 옛 국도 드라이브

옥천군은 구읍에서 옛 37번 국도를 따라 군북면을 거쳐 안내면 장계국민관광지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정지용의 시 19편을 주제로 꾸며 '향수 30리길'이라 명명했다. 옛 37번 국도를 따라 보은 방면으로 달리면 가지마다 풍성한 핑크빛 꽃들이 만개한 벚나무 터널을 통과하게 된다. 매년 4월 중순부터 하얗게 눈꽃을 날리는 이 도로는 옥천을 대표하는 드라이브 길이기도 하다. 한참 드라이브를 즐기노라면 군북면 소정리의 도로변에서 독특한 버스정류장을 지나게 된다. 정류장의 구조물을 책상처럼 만든 뒤 잉크와 만년필 그리고 표지에 '향수'라고 적힌 책 조형물을 올려두었다. 책상 옆에는 거대한 의자 놓여 있다. 이 정류장은 옥천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포토존으로 꼽힌다.

향수 30리길 끝자락에서 만나는 장계관광지는 한 때 대청호 주변에서 가장 이름난 수변 유원지였다.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탈바꿈하기 전까지 장계관광지는 한물간 유원지로 쇠락하고 있었다. '멋진 신세계'라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옛 37번 국도 정류장

부소담악

장계관광지

이후 관광지 안에는 산책로와 독특한 형태의 전망대, 카페가 들어섰으며, 곳곳에 다양한 꽃들을 심어 4~5월경 환상적인 풍경을 과시한다. 롤러코스터와 회전목마, 대관람차 등 낡은 놀이기구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다양한 조형물로 채워진 공원이 생겨났다.

호수 위에 뜬 산 '부소담악'의 절경

다시 구읍 소재지로 돌아와 대청호 상류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에 도착하게 된다. 대청댐이 들어서 물길이 가둬지기 전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는 여덟 가지 아름다운 풍경인 추소팔경이 곳곳에 자리하는 아름다운 소읍이었다. 하지만 세월의 변천에 따라 고찰 안양사의 종소리는 사라지고 빼어난 자태를 자랑하던 문필봉도 더 이상 옛 모습이 아니게 된 것이다. 우암 송시열이 입이 마르도록 칭송했던 추소팔경 대부분은 지금 물에 잠겨버렸지만 '물 위에 뜬 산' 즉, 부소담악(扶疏潭岳)이라 불리는 호반의 절경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이 정말 다행이다.

추소팔경 중 제8경에 해당하는 부소담악은 추소리 마을 앞, 대청호 물 위에 솟아오른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길게 이어지는 이색 풍경이다. 호수 너머로 부소담악이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까이 다가서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즐거움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더 앞선다. 부소담악의 진면목이 깊은 물 아래 감춰져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대청호의 물길이 굽이굽이 산굽이를 돌아 스며든 고장인 옥천은 청원군과 대전광역시 그리고 와인의 고장 영동군의 틈바구니에 끼어 아직 그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전인미답의 때 묻지 않은 풍경을 간직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

금강이 내어놓은 내륙의 토속 음식

옥천이 자랑하는 토속 음식 생선국수

충북 내륙의 다른 고장들과 마찬가지로 옥천에서는 예부터 쏘가리, 동자개, 메기 등 민물고기를 넣어 육수에 말아 낸 생선국수가 별미로 전해 내려온다. 선광집(043-732-8404)을 비롯해 청산면 일대에 생선국수집이 여럿 있으며, 옥천읍내 식당에서도 생선국수를 맛볼 수 있다. 청산면 생선국수집 중에는 역사가 무려 60년이 넘은 곳도 있을 정도. 옥천군은 생선국수라는 먹거리의 스토리텔링이 충분히 여행자들에게 소구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곳 청산면 일원에 '청산 생선국수 음식 거리'를 조성했다. 14곳 가량의 식당이 음식 거리의 일원이 되었으며 홍보 조형물을 세우고 향토적 이미지로 꾸민 안내판과 간판 등을 제작해 개성을 추구하고 통일성도 겸비했다.

금강이 선물한 먹거리 도리뱅뱅이

금강 변에 살아가고 있는 옥천 사람들이 생선국수만큼이나 즐겨 먹었던 음식이 바로 도리뱅뱅이다. 매운탕으로 끓이기에는 애매한 피라미처럼 작은 생선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메뉴가 바로 도리뱅뱅이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음식 역시 충북이나 전북 내륙 지역에 널리 퍼져있는 토속 먹거리로 강에서 잡아 올린 손가락 크기의 민물 생선을 프라이팬에 동그랗게 담은 뒤 기름에 바싹 튀겨 양념 고추장을 얹어 완성한다. 동그랗게 담은 모양에서 착안해 '도리뱅뱅이'라는 이름이 붙어 지금까지 이어 내려오는 이 음식은 지역 방송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를 통해서도 향토 먹거리로 자주 소개되고 있다. 동이면과 옥천읍 혹은 청산면의 청산 생선국수 음식거리에서도 도리뱅뱅이를 맛볼 수 있다.

정갈한 상차림으로 맛보는 순두부전골

옥천군에서 가장 작은 면소재지인 안남에는 정갈한 상차림과 맛좋은 순두부로 상춘객을 맞이하는 배바우손두부(043-732-2137)가 기다리고 있다. 이 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직접 만든 순두부가 대표 메뉴이기에 더욱 믿음이 가는 맛집이다. 배바우손두부를 찾는 손님들 사이에서는 얼큰한 해물순두부전골, 들깨와 굴이 조화로운 들깨굴탕순두부 등이 가장 인기가 좋다. 28년 전 귀농한 주인이 운영하는 이 집은 음식 맛을 인정받아 지난 2015년 충청북도 '밥맛 좋은 집'으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옥천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마음을 돌아보는 일을 쉬이 미루기 마련입니다. 「마음쉼」은 놓치기 쉬운 우리 마음이 보내는 적신호를 발견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보듬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코너입니다.

yes! 행복한 삶을 위한 긍정심리학 나를 움직이는 생각의 힘

우리는 늘 행복해지길 바라고, 행복을 꿈꾸곤 합니다. '우리 가족 행복하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행복하게 잘 살자'라고 늘 말하고 있지만 정작 행복을 위한 노력은 그것을 바라는 만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만족보다는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극복하고 채워야 할지에 대해 몰두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글 (주)다인

'인간에게 올바르고 긍정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미국의 심리학 교수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심리학을 연구하였습니다. 긍정심리학이란, 사람들이 행복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건과 과정을 심리학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기존의 심리학이 우울, 분노, 불안과 같이 부정적 정서와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치료하는 것에 몰두하였다면, 긍정심리학은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서 출발하여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둡니다. 연구 결과 행복한 삶에는 3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1 즐거운 삶

즐거운 삶은 즐거운 기분을 자주 느끼며, 그 즐거움이 오래 가는 무언가를 실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즐거운 경험을 자주 하고 잘 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경험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행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몰입하는 삶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코앞에 있는 목표가 아닌 장기적인 미래 목표에 집중하며, 몰입을 경험하는 활동을 할 때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심리적 자산이 형성됩니다. 매일이 기대되고, 나날이 성장해 갈 것입니다.

3 의미 있는 삶

자신만의 강점을 인식하고, 강점을 사용하여 봉사하며 의미를 찾는 삶을 말합니다. 즉, 베푸는 삶을 통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실천한 배려의 양과 질을 기억하며,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의 느낌을 경험하고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1 마음의 창고를 긍정 정서로 채우기

부정 정서의 공간에 긍정 정서로 조금씩 채워간다면 긍정 정서의 경험의 양이 많아져 부정 정서는 점점 약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긍정적 사건보다는 힘들고 실패한 부정적 사건에 더 집중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잘 떠올려 보면 살면서 감동적인 순간, 행복해 눈물 났던 장면, 잊고 싶지 않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행복감과 만족감, 고마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차곡차곡 마음의 창고에 저장해 보세요. 책상 옆 노트나 핸드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적어보세요.

1. 최선을 다했던 시험 과목에서 만점 받았을 때
2. 아이가 태어나 처음 안아 봤던 순간
3.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던 날
4.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에서 좋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2 나의 성격 강점 찾아 키우기

나의 성격 강점은 무엇인가요?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성격은 별로야'라고 생각하셨다면 스스로를 살펴볼 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어릴 적 나무 밑에서 개미를 관찰하며 개미가 가는 길을 졸졸 따라갔다면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을 겁니다. 지하철에서 노선표를 오래 보고 있는 어르신이 있어 다가가 안내를 해드렸다면 사랑과 친절이 넘치는 분이실 것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친구에게 전해주며 웃음꽃을 피웠던 적이 있다면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일 겁니다. 미국의 긍정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과 크리스토퍼 피터슨은 이처럼 세계의 수많은 사람에게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미덕과 성격을 찾고 압축해서 다음과 같이 6가지 미덕과 24가지 성격 강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지혜와 지식: 창의성, 호기심, 개발성, 학구열, 예견력
2. 용기: 용감성, 끈기, 정직, 열정
3. 사랑과 인간애: 사랑, 친절, 사회성 지능
4. 정의감: 협동심, 공정성, 리더십
5. 절제력: 용서, 겸손, 신중성, 자기통제력
6. 영성과 초월성: 심미안, 감사, 희망, 유머, 영성

여러분은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계시나요? 단점을 가리려는 노력보다는 강점을 강화해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보세요.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나 감정 창고에 쌓인 부정 감정으로 인해 긍정 감정을 들여올 수가 없다면 가까운 상담 센터를 찾아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올봄에는 나의 성격의 강점을 찾고, 즐거움을 자주 느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발 내디뎌보는 건 어떨까요? ⓚ

♥ 「The-K 마음쉼」 이용 안내 ♥

- **상담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일반 회원
- **상담 신청**
  The-K 마음쉼 전용 홈페이지(www.ktcu-hue.com)에서 회원 인증(회원 번호, 이름 입력 및 휴대폰 인증) 후 이용 가능, 전화(080-080-5988)
- **상담 횟수**
  2년(22~23년도) 내 개별상담 1인당 5회
  집단상담(6인 이내) 4회 무료 이용 가능
- **상담 시간**
  평일 · 토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일요일, 공휴일은 상담사와 사전 협의)
- **상담 방법**
  1 : 1 상담(대면·전화·화상·이메일 상담) 및 집단 상담(6인 이내)

※ 모든 상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소속기관 및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상담 내용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음쉼 홈페이지 ▲

「The-K 예방의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일상의 식습관, 운동 처방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즌별, 연령대별로 알고 있으면 좋은 건강 상식도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만병의 근원 대사증후군 개선하려면 생활습관 '싹' 바꿔야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온갖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대사증후군 환자가 증가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공복혈당장애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 다섯 가지 중 세 가지를 동시에 지닌 상태로, 잘못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유발된다. 코로나19로 신체 활동이 줄고 배달 음식을 먹는 비율이 늘면서 2019년 19.2%에서 2021년 21.3%로 환자 수가 늘었다.(건강검진통계연보)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이 많을수록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암 등 중증질환 위험이 커진다. 다행히 생활습관병인 만큼 균형 있는 식사와 운동을 하는 등 생활 습관만 교정하면 건강 상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글 이슬비 헬스조선 기자

대사증후군, 만성질환 경고등

일명 '죽음의 5중주'라고 불리는 대사증후군은 한 사람에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비만(특히 복부비만) 등 심뇌혈관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인자가 겹쳐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섯 가지 위험 요인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만성질환 발병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만, 혈압, 혈당, 지방, 콜레스테롤 등 모든 요소가 긴밀히 연결돼 있어 한 가지 위험 요인이 있으면 다른 요인의 위험도 올라가기 쉽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을 받은 1,700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가장 흔한 위험 요인은 고혈압이었다. 대사증후군 요인이 있는 대상 중 절반이 고혈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고혈당, 복부비만,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 순이었다. 성별로는 60세 이전에는 남성이, 이후에는 여성 비율이 더 높았다. 대사증후군을 개선하는 방법은 생활 습관 개선뿐이다. 치료 약은 따로 없다. 생활 습관 개선으로 위험 요인 지표가 개선되면 중증질환 발병 위험은 현저히 낮아진다.

한편, 구체적인 대사증후군 위험 요소는 1)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 2) 혈압 130/85mmHg 이상 혹은 고혈압약 복용 중 3) 공복혈당 100mg/dL 이상 또는 당뇨약 복용 중 4) 중성지방 150mg/dL 이상 혹은 이상지질혈증약 복용 5) HDL 콜레스테롤이 남자 40mg/dL, 여자 50mg/dL 미만 혹은 이상지질혈증 약 복용이다.

대사증후군 예방 식습관

규칙적 식사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짧으면 폭식 위험이 높아져 비만으로 이어지고,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으로 대사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야식을 먹는 식습관은 피해야 한다. 밤에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의 영향으로 영양분이 저장되고,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내장지방으로 쉽게 쌓이기 때문이다.

천천히 먹기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까지는 20분 정도 걸린다. 천천히 씹어 먹으면 배가 불러 금세 음식을 그만 먹게 돼 총칼로리 섭취량을 줄이고 폭식도 예방할 수 있다.

저항성 탄수화물 섭취 흰쌀밥, 밀가루, 과자 등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높이고 지방을 축적해 대사증후군을 악화한다. 정제 탄수화물 섭취량은 줄이고,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느린 저항성 탄수화물로 영양소를 대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항성 탄수화물로는 크게 감자, 고구마, 통곡류 등이 있다.

튀기기보다는 찌기 식품을 튀기거나 굽는 것보다 쪄 먹는 것으로 조리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최정화 교수 연구팀이 4,056명을 대상으로 찐 음식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매주 1~3회 갈비찜, 아귀찜, 달걀찜 등 찜 음식을 먹으면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을 25%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음식을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 뜨거운 증기를 이용해 찌면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금주, 금연 특히 흡연과 음주는 대사증후군 위험을 높이는 주요 위험 인자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면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24% 높아지고, 한 갑 반을 피우면 79%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음주가 잦으면 상대적으로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낮은 20~30대 젊은 세대에서도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류호경 교수 연구팀이 20~30대 3,182명을 대상으로 음주와 대사증후군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남성은 25.5%, 여성은 9.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증후군 개선 운동법

중강도 근력운동 대사증후군을 개선하려면 체중 감량이 가장 중요하다. 복부에 쌓인 체지방을 줄여야 복부지방·혈중 콜레스테롤·중성지방이 모두 감소하기 있기 때문이다. 체지방을 빼려면 근력을 적절히 키워 몸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열량인 기초대사량을 늘려야 한다. 특히 고강도 근력운동보다는 열 번 정도 반복해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로 운동하는 중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대사증후군 개선에 더 효과적이다. 실제로 울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연구팀이 실험 대상자 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고강도 운동과 중강도 운동을 12주간 실시하게 하자 고강도 운동을 한 그룹은 허리둘레가 0.86cm 감소하는 데 그친 반면, 중강도 운동을 한 그룹은 4.44cm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강도 운동은 약간 숨이 가쁘면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이마에 땀이 맺히는 수준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 일상에서 집안일, 계단 오르기 등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신체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구팀이 심장질환이 없는 63세 이상 5,500명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과 심장 건강의 연관성을 2년 동안 추적한 결과 일상적인 신체 활동을 매일 적어도 4시간 정도 한 사람들은 2시간 미만인 사람보다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62%나 낮았다.

식사 후 산책 식사 후 20분간 가볍게 산책하면 몸에 쌓이는 지방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식사를 마친 후에 바로 앉거나 누우면 신체 활동량이 없어 소화된 영양소가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고 지방으로 변환된다. 20분이라도 산책하면 지방으로 바뀌는 포도당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다만, 식사 후 신체 운동량을 늘리겠다고 과도하게 몸을 움직이면 오히려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주변을 천천히 걷는 정도가 적당하다.

이 외에 **일정한 수면 시간**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에 교란이 생겨 체지방 축적량을 높이는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기 쉽다. 규칙적이고 편안한 숙면을 취해야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원활해진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인슐린 분비와 혈당을 높인다. 인슐린과 혈당은 내장지방 축적과 직접적 연관이 있으므로,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적절한 취미 생활을 유지해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한다. ⓚ

「건강한 집밥」은 냉장고에 있는 일상적인 재료와 제철 식재료만으로도 특별한 한 끼 상차림을 만들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요리법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지구를 건강하게! 내 몸은 더 건강하게! 꽃 구경과 함께하는 비건 도시락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우리 식탁에서 고기를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더욱 오래 즐기기 위해 올봄 나들이 때는 비건 도시락을 챙겨 보면 어떨까요. '내가 비건식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만, 한식은 본래 비건 메뉴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더욱 맛있는 도시락을 만들 수 있는 갖가지 팁도 알려드릴게요. 봄나들이 비건 도시락으로 더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보세요.

글 편집실 / 사진 쿠켄

비건 도시락 메뉴 구성하기

비건은 채식주의자 중 유제품, 달걀, 육류 등 모든 종류의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완전한 채식주의자를 말합니다. 전 세계 통계를 보면 식용 가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는 석유 생산 시 발생하는 양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비건에 도전하는 이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장, 가정, 학교에서 비건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을 지향한다는 뜻으로 비건 지향, 유연한 식습관을 가진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이라는 생활방식도 많은 이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비건 식단을 구성할 때 필요한 단백질은 대부분 콩을 활용한 제품으로 대체합니다. 요즘에는 대체육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어 고기가 들어간 메뉴는 이런 대체육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도시락 준비의 영순위는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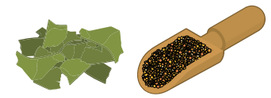
도시락을 쌀 때는 먹기 전까지 상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 때문에 어떤 메뉴를 만들까 고민된다면 우선 상하는 재료를 피해 메뉴를 정하도록 합니다. 비건식은 대부분의 재료가 채소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햄이나 맛살은 대체로 잘 상하기 때문에 일반 도시락을 쌀 때는 이점을 염두에 두세요. 두부도 되도록 익혀 넣어야 합니다.

또 음식이 상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미지근한 온도에 음식이 노출되면서 곰팡이가 활성화되는 것인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음식을 완전히 식힌 뒤 밀봉해야 합니다. 그래도 걱정된다면 아이스팩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마트나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작은 아이스팩을 함께 주곤 하는데 이를 보관했다가 활용하거나 여름이라면 생수병이나 텀블러에 물을 얼려 함께 넣으면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차량에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제철 재료를 적재적소에 쓰자

제철 재료를 잘 활용하는 것도 도시락을 구성하는 팁입니다. 봄에는 갖가지 제철 나물이 풍성하죠. 쑥, 달래, 냉이 등을 사용해 주먹밥이나 쌈밥을 싸면 흩날리는 꽃잎과 함께 계절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답니다.

식어도 맛있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도 비결 중 하나입니다. 유부초밥이 대표적인데요. 간단한 재료 대비 훌륭한 맛으로 남녀노소에게 호불호 없이 환영받습니다. 여기에 기본으로 제공하는 고명 대신 원하는 채소를 다져 넣거나, 밥 대신 두부를 볶아 넣으면 훌륭한 요리가 됩니다. 향이 강한 카레 같은 재료를 잘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강렬한 맛 덕분에 식어도 맛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볶음밥이나 튀김 등에 카레를 살짝 더하면 되니 활용법도 간단합니다. 이런 팁들을 참고해 이번 봄에는 색다른 비건 도시락을 준비해 나들이 한번 떠나보세요. Ⓚ



미역무침 차수수 비빔밥

비빔밥은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많은 사람과 함께 슥슥 비벼 먹으면 훨씬 맛있어집니다. 돗자리 펴고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사과 초고추장으로 맛을 낸 색다른 차수수 비빔밥을 즐겨보세요.

- **재료** 불린 미역 150g, 상추 100g, 오이 1개, 수수밥 4공기
- **부재료** 간장 1큰술, 다진 파 1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청주 1큰술, 물엿 1작은술, 소금 약간, 사과 1/4개, 고추장 1/2컵, 식초 3큰술, 설탕 2큰술

TIP 원하는 채소가 있다면 함께 채 썰어 넣을 수 있다.

* 만드는 방법

❶ 미역은 물에 충분히 불린 뒤 주물러 씻은 다음 끓는 물에 살짝 데친다.

❷ ①의 미역을 체로 건진 뒤 찬물에 넣어 바로 헹궈낸 다음 물기를 꼭 짠다.

❸ 상추는 가늘게 채 썰고, 오이도 어슷하게 썬 뒤 곱게 채 썬다.

❹ 차수수는 30분 이상 충분히 불린 뒤 물을 넉넉히 잡아 밥을 짓는다.

❺ ②는 가늘게 채 썰어 간장, 파, 마늘, 청주, 물엿, 소금으로 양념해 무친다.

❻ 사과를 크게 다진 다음 고추장, 식초, 설탕을 넣고 잘 섞어 사과 초고추장을 만든다.

구운 두부 채소 잡채

보드라운 두부 사이로 씹히는 아삭함이 입안에서 경쾌한 느낌을 주는 메뉴입니다. 고기가 없어도 두부와 채소 모두 수분이 많아 포만감도 좋답니다.

- **재료** 두부 1/2모, 가지 1/2개, 애호박 1/2개, 파프리카 1/2개
- **부재료** 올리브유 2큰술, 발사믹 식초 1큰술

TIP 두부에 전분을 묻혀 튀기듯이 구워 넣어도 된다.

*** 만드는 방법**

❶ 두부는 사방 2cm 크기로 썬다.

❷ 가지와 애호박은 반으로 갈라 어슷하게 썬다.

❸ 파프리카는 반을 갈라 씨를 털어내고 길게 채 썬다.

❹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른 뒤 두부, 가지, 애호박, 파프리카를 살짝 굽는다.

❺ 도시락이나 접시에 구운 채소와 두부를 담고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뿌린다.

오븐구이 채소 & 토마토 연두부 컵샐러드

비건 식단을 짜기 번거롭다면 간단하게 채소를 오븐에 구워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채소 본연의 맛과 함께 쉽고 간편한 비건 식단을 시작해 보세요.

- **재료** 가지 1/2개, 단호박 1/2개, 양송이버섯 3개, 방울양배추 4개, 고구마 1/2개, 토마토 1개, 연두부 1큰술
- **부재료** 올리브유 1 1/2작은술, 비건 플레인 요구르트 2큰술, 고추냉이 1/2작은술, 발사믹 식초 1작은술, 로즈메리·바질잎 적당량, 후춧가루·파슬리 가루 약간씩

*** 만드는 방법**

❶ 가지, 단호박, 고구마는 0.8cm 두께로 썰고, 방울양배추와 양송이버섯은 반으로 자른다.

❷ 손질한 채소에 올리브유와 로즈메리, 파슬리 가루를 솔솔 뿌려 가볍게 버무린 뒤 오븐 팬에 넓게 펴서 160℃로 예열한 오븐에서 15분간 굽는다.

❸ 비건 플레인 요구르트와 고추냉이, 파슬리 가루 약간을 더해 요구르트 딥을 만든다.

❹ 토마토는 가로로 잘라 윗부분은 뚜껑으로 사용하고 아랫부분은 속을 파내 씨를 제거한다.

❺ 연두부는 수저로 동그랗게 떠내어 토마토 속에 넣은 뒤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오일, 후춧가루를 섞어 드레싱을 만들어 가볍게 토마토 위에 뿌리고 바질잎을 올려 완성한다.

친환경을 실천하는 사회·문화계 인사들의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고 재활용품을 활용해 일상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십시일반으로 만드는 '희망의 숲' 대신 나무 심어주는 기업, 트리플래닛

& 봄맞이 재활용품 화분 만들기

대기가 건조해지는 겨울과 초봄에는 유난히 산불이 많이 일어난다. 한국과 호주, 미국 등 국가를 가리지 않고 축구장 10배, 100배 되는 산림이 단 며칠 만에 잿더미로 사라진다. 그런데 여기에도 기후 위기의 손길이 뻗어 있다고 하면 어떨까. 더욱이 개발로 얼마나 많은 숲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인류는 숲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데도 숲 회복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트리플래닛은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숲 재생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개인과 기업이 보다 쉽게 숲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기업이다. 지구를 살리는 이들의 활동을 알아보고, 집안 공기를 개선해주고 보는 즐거움도 주는 레고 장난감, 페트병 등 재활용품으로 미니 텃밭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 허나리 패션 스타일리스트 / **사진** 트리플래닛

땅이 없어도 심을 수 있는 나무

세계적으로 산림 황폐화 문제는 기후 위기를 심화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매년 470만 헥타르(ha)의 숲이 줄고 있는데, 이는 서울의 8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산림 면적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벌채지만, 유엔환경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와 토지 사용 변화로 2030년 최대 14%, 2050년 30%, 21세기 말 50% 증가하는 등 산불이 더 빈번하고 강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기후변화 자체가 산불 발생을 촉진하는 것이다. 지구에서 숲이 줄어들수록 기후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홍수는 더 자주 일어나며, 생물다양성도 감소한다. 그러면 또다시 산불의 위험성이 높아져 숲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트리플래닛은 이렇게 점차 줄어드는 숲을 복구해 자연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는 소셜벤처 기업이다. 2010년 설립됐으며, 현재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비즈니스모델을 세워 사회 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트리플래닛은 처음 동명의 게임을 출시해 게임 월드에서 나무를 심으면 실제 나무를 한 그루 심어주는 사업으로 시작했다. 비록 2017년 이 게임은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그 아이디어만은 여전히 남아 현재 트리플래닛의 핵심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리플래닛의 김형수 대표와 정민철 이사가 나무를 대신 심어주는 사업을 떠올린 것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같은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도서를 읽으면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환경 이슈가 중요해지는 날이 올 것'임을 예감하면서부터다. 이후 당시 막 보급되기 시작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에서도 숲을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을 개발했다. 사람들이 나무 심기를 버킷 리스트처럼 여기는 점에도 주목했다. 나무를 심는 일은 내 땅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쉽지 않다는 인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임'이라는 아이디어 덕분에 사업 초창기 일반인들의 나무 심기에 대한 문턱을 대폭 낮출 수 있었다.

기업과 개인, 학교까지 이어지는 나무 심기 활동

현재는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폭넓게 사업을 전개 중이다. (주)한화,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의 기업 임팩트 파트너들과 함께 '탄소중립 숲'과 '온실가스 감축 숲'을 재건하고, 소비자가 트리플래닛에서 화분을 하나 구매하면 그대로 나무 한 그루를 심어주는 '반려나무' 사업, 아이들에게 숲과 나무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교실 숲 환경교육', 직장에서 나무를

키워 나누는 '반려나무 키움 봉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숲 조성은 트리플래닛의 핵심 사업으로 2010년부터 15개 국가에 313곳의 숲을 만들었고, 심은 나무는 123만 그루를 훌쩍 넘는다.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도 창립 50주년을 맞아 2021년에 이들과 함께 '더케이숲 조성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더케이숲 조성 캠페인은 전국 50개 학교 237개 학급에 환경교육키트 및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 '교실숲 조성 캠페인'과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양양 일대에 5,000그루를 식재한 '더케이숲 조성 캠페인'으로 이루어졌다. 더케이숲 조성에는 임직원이 반려나무 한 그루를 입양하면 산불 피해 지역에 한 그루가 심어지는 캠페인으로, 매칭된 380그루가 포함되어 그 의미가 더해졌다.

'교실숲 환경교육' 사업은 트리플래닛에서 인기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해 교실에서 채워줄 수 없는 환경보호에 대한 전문적 인식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학교에는 학생 모두에게 나무 한 그루와 분갈이 키트, 한 달간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화분을 제공한다. 여기에 기후변화의 실태와 원인, 숲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법 등에 대한 교육도 동시에 이뤄진다. 매일 5~10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올 만큼 인기가 높다. 심지어 기업과 매칭해 진행하는 덕분에 경비도 거의 들지 않고 제공하고 있다. 앞서 사업을 시행한 3년간 230개 학교가 참여했고, 올해도 50~60개 학교가 참여할 예정이다.

식물과 환경 모두 챙기는 일석이조 효과

트리플래닛에서 판매 중인 한 달간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화분 '스밈'은 '교실숲 환경교육'을 진행하면서 탄생했다. 대다수 학교가 그렇듯 여름과 겨울 방학 때 학교가 비면 화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식물이 고사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트리플래닛은 관리 부담을 줄이고자 재활용 페트병과 일회용 마스크 폐기물로 제작한 화분 스밈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화분 덕분에 방학식 때 물을 가득 채워두면 한 달 동안 식물이 스스로 물이 필요할 때마다 빨아들여 관리의 부담이 확연히 줄었다. 출시 이후 식물 관리를 어려워하는 일반인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트리플래닛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반려나무를 구매하거나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트리피플' 행사에 참여하면 된다. 반려나무는 트리플래닛을 통해 나무 한 그루를 구매하면 똑같이 한 그루를 심어주는 사업이다.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대신 나무를 심어주니 그 의미가 작지 않다. '트리피플' 활동으로는 나무 심기 행사 참여, 분갈이 클래스 등이 열린다.

정민철 이사는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환경보호 활동은 자원순환 정도다. 그러나 우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큰 규모의 임팩트 있는 활동도 가능해진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환경보호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활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30년, 50년 후에도 숲이 온전하도록

숲은 온전히 제 기능을 하기까지 최소 30년이 필요하다.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일시적인 활동으로는 눈으로 성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트리플래닛은 지속 가능한 펀드를 구성해 사업을 꾸준히 유지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ODA(공적개발원조) 방식으로 이뤄지던 해외 사업을 직접 산림자원에 투자하며 숲과 그 주변 사람들도 살리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또 멸종위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식물을 생산하는 허브 설립도 눈앞에 두고 있다.

내가 구매한 나무 한 그루가 강원도, 인도네시아의 거목이 될 수 있도록 트리플래닛이 100년, 200년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를 응원한다. ⓚ

재활용품을 활용한 미니 텃밭 만들기

페트병으로 벽걸이 화분 만들기

❶ 바닥에 페트병을 가로로 놓은 뒤 칼과 가위를 이용해 페트병 가운데에 식물이 들어갈 홈을 냅니다. 그런 다음 송곳으로 페트병 바닥 부분과 뚜껑에 구멍을 뚫습니다.

❷ ①의 구멍에 실을 끼운 후 빠지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 페트병을 서로 연결하고, 벽에 걸 수 있도록 실을 길게 이어 고리도 함께 만듭니다.

❸ 글루건을 이용해 면실을 페트병 위 아래에 감고 레이스로 리본 등으로 묶어 페트병을 꾸민 후 수경식물과 물을 넣으면 예쁜 벽걸이 화분이 완성됩니다.

고무 신발 화분 만들기

❶ 고무 신발 바닥에 흙을 얇게 깐 후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다육식물을 신발 속 흙 위에 옮겨 심습니다.

❷ 고무 신발의 작은 구멍에는 크기가 작은 다육식물을 심는데, 이때도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❸ 옮겨 심은 다육식물이 단단히 자리 잡도록 그 위로 흙을 더 덮은 뒤 삽으로 살짝 다진 다음 이름표를 흙에 꽂으면 나만의 고무 신발 화분이 완성됩니다.

미니 블록 화분 만들기

❶ 준비한 화분의 가장 넓은 둘레에 맞춰 미니 블록을 쌓아 정사각형 모양으로 화분의 밑면이 될 틀을 만들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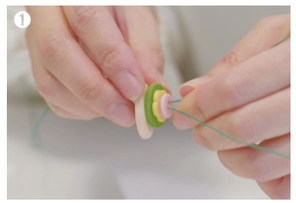
❷ 만든 사각 틀에 맞춰 그 위로 다양한 색이 교차하도록 화분 높이에 맞춰 미니 블록을 하나씩 쌓아 올립니다.

❸ ②의 틀에 화분을 넣고 피규어로 장식하면 알록달록 재미있는 레고 화분이 완성됩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사용하지 않는 미니 블록 장난감과 고무 신발, 페트병 등을 사용한 미니 화분을 만드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추 꽃 화병 만들기

여기저기서 모아놓은 각양각색 단추는 막상 사용할 곳이 없어 서랍 한구석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단추를 이용해 시들지 않는 꽃으로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커다란 단추 위로 점점 작은 크기의 단추를 2~4개 겹쳐 쌓아주세요. 그런 다음 초록색 철사를 단춧구멍에 끼워 겹쳐 쌓은 단추를 서로 연결해 줍니다. 단추를 연결하면 철사 아랫부분이 두 겹이 되는데, 이 두 겹의 철사를 꼬아 꽃줄기처럼 만듭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 단추 꽃을 여러 개 만들어 준비해 주세요. 여러 줄기의 단추 꽃을 모아 꽃다발처럼 만든 뒤 화병에 꽂고 작은 유색 돌을 채워 넣으면 귀여운 단추 꽃 화병이 완성됩니다.



총자산 57조 원, 준비금 적립률 109.2% 재무건전성 확보
당기순이익 4,374억 원, 9년 연속 흑자 달성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2022년 결산 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1971년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교직원 복지기관입니다. 공제회는 확고한 수익기반과 공익기업으로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높은 급여율을 보장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가족이 보다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교직원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평생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2022년 말 기준 회원 89만여 명, 자산 57조 원을 운용하며, 코로나19 재확산 및 인플레이션 압력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 1조 46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22년 주요 소식과 각종 성과들을 회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며, 앞으로도 최상의 회원만족과 안정적인 수익창출로 회원들에게 더 큰 만족과 감동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공제회 주요 소식 지난 한 해, 공제회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1월
- 보험콜센터 인천센터 개소
- 모바일 보험 전자청약시스템 오픈
- 20년유지회원 감사기념품 및 퇴직기념품 제도 신설

2월
- 목돈급여 가입구좌 수 확대(100구좌 → 300구좌)
- 퇴직생활급여 가입구좌 수 확대(60구좌 → 100구좌)

3월
- 분할급여대여 제도 개선 시행(신청 범위 확대)

5월
- 제11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 개최

7월
-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 인상(3.74% → 3.80%)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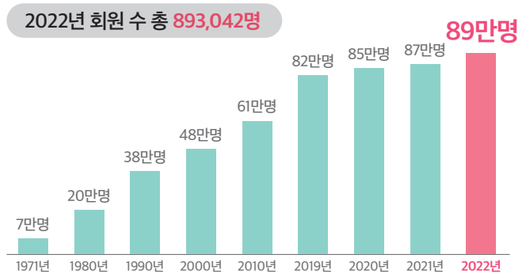
11월
- 제115회 대의원회 개최
- 202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인쇄사외보 부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상 수상

12월
- 2022 한국감사인대회 사회적가치실현기관상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 수상
- 소비자중심경영(CCM) 6차 인증 획득
- 2022 한국공공기관감사인대회 내부감사(업무와 회계) 부문 최우수기관상 수상

2022년 회원 수 얼마나 많은 교육 가족이 공제회와 함께 하고 있을까?

연도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수

2022년 회원 수 총 893,04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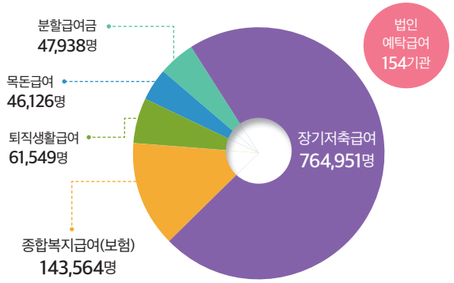
- **일반회원* 798,387명**
  일반회원 가입자격을 가진 자로서 '장기저축급여' 또는 '종합복지급여'에 가입한 교직원
- **특별회원 94,655명**
  특별회원 가입자격을 가진 자로서 '퇴직생활급여',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또는 '종합복지급여'에 가입한 교직원
- **법인회원 154개 기관**
  법인회원 가입자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법인예탁급여'에 가입한 법인

*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수 + 종합복지급여(순수) 가입자 수

제도별 가입 회원 수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님을 제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말 기준 공제회 대표 저축제도인 '장기저축급여'가 약 76만 명, 보험제도인 '종합복지급여'가 약 14만 명, 퇴직 회원님을 위한 '퇴직생활급여'는 약 6만 명, 현직 회원의 목돈 마련을 위한 '목돈급여'와 노후생활 보장제도인 '분할급여금'에 각각 약 5만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회원 154기관이 '법인예탁급여'에 가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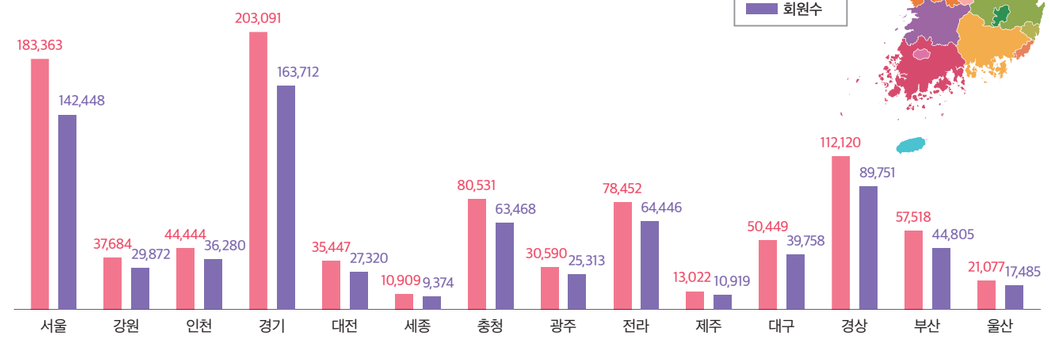
전체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회원 수는 약 89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2% 증가하였으며, 지난해보다 더 많은 교육 가족들께서 공제회의 평생 금융·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교직원수 대비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수

가입대상 교직원 수 총 958,697명 중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수는 총 764,951명으로 약 79.8%**에 이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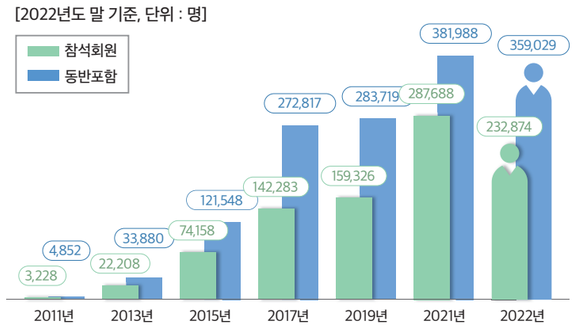


2022년 주요 회원 복지 현황 행복한 순간을 얼마나 함께 했을까?

2023년 The-K 행복서비스 문화행사 일정 보러가기 ▶

The-K행복서비스 연도별 문화행사 참석회원

[2022년도 말 기준, 단위 : 명]



공제회는 회원님들의 행복한 일상에 특별한 순간을 더할 수 있도록 공연·도서·영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첫 문화행사를 선보인 2011년 이후로 더 많은 회원님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행사 규모를 늘리고 있으며, **지난 2022년에는 약 23만 3천여 명(동반 포함 총 35만 9천여 명)의 교육 가족이 문화 혜택을 누리셨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보여주신 행사는 약 8만 9천여 명의 회원님이 응모하신 '씨네&JOY 영화예매권 행사', 그리고 6만여 명의 회원님이 응모하신 5월 '북&JOY 책과 커피의 향기' 이벤트 등이 있었습니다.

2022년 자산운용 공제회 자산은 어떻게, 얼마나 운용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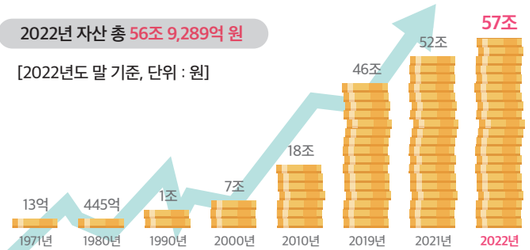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971년 13억 원의 자산 규모로 시작하여 2022년 말 기준 56조 9,289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견실한 국민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자산의 주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수입, 자산운용 수익 등이며, 이 자산은 국내외 주식·채권 등의 금융투자 부문, 국내외 부동산·SOC·PEF·헤지펀드 등의 대체투자 부문, 회원대여 부문 등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목적은 회원의 생활안정 및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수익성·안정성·분산투자·유동성을 원칙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철저한 리스크 분석과 분산 및 대체 투자 등 다각적인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자산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자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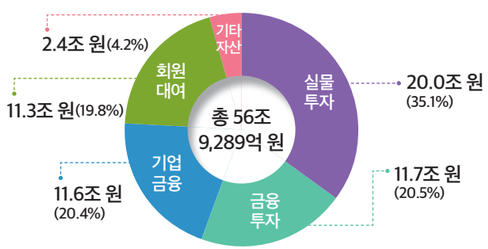
2022년 말 **총 자산은 전년대비 4조 1,491억 원(7.9%) 증가한 56조 9,289억 원**으로 목표대비 100.8%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당기순이익은 4,374억 원으로 목표대비 114.4%를 달성**하며, 지난 **2014년부터 9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자산 총 56조 9,289억 원

[2022년도 말 기준,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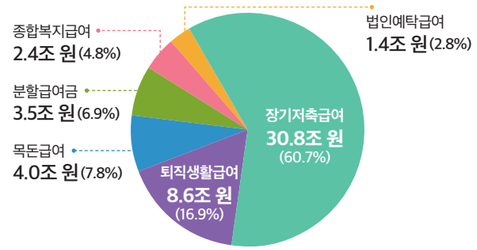


사업부문별 자산 현황



2022년 말 사업부문별 **자산 현황의 비중은 실물투자(35.1%), 금융투자(20.5%), 기업금융(20.4%), 회원대여(19.8%) 그리고 기타 부문(4.2%)**입니다.

제도(급여)별 준비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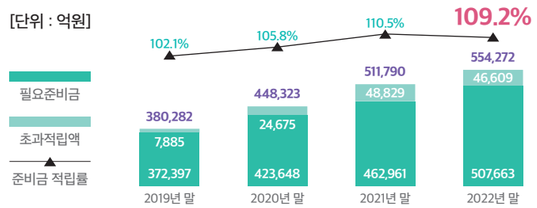
2022년 말 **제도별 준비금 현황은 총 50조 7,639억 원으로 장기저축급여, 퇴직생활급여가 각각 60.7%, 16.9%**에 해당합니다.

연도별 준비금 적립률

2022년 말 현재, 모든 회원이 퇴직, 탈퇴 등의 사유로 급여금 청구 시 본회가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납입 원금과 누적 이자는 50조 7,663억 원입니다. 공제회는 현재 55조 4,272억 원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여력비율 즉, '준비금 적립률'은 109.2%로 지난 2018년부터 100% 이상을 유지하며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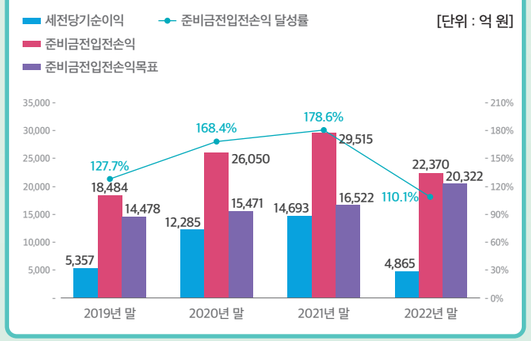
준비금 적립액(필요준비금+적립초과액) 55조 4,272억 원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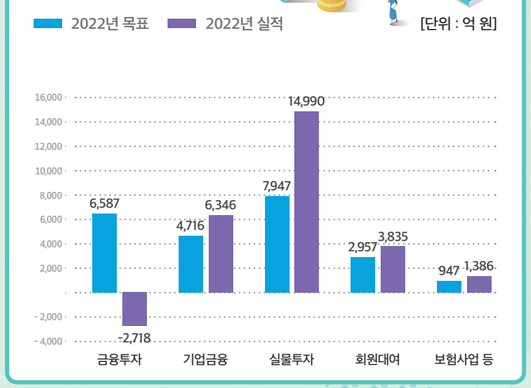


손익 현황

준비금전입전손익 2조 2,370억 원



부문별 손익 현황



2022년 투자 수익

공제회는 인플레이션 압력, 경제 침체 우려 등 대외여건 악화 및 금융 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리스크를 분산하고 수익처를 다변화하여 자산운용을 한 결과 **2022년 기금운용 수익 1조 46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투자자산 가운데 실물투자 부문이 12.3%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으며, 기업금융 부문에서도 8.9%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증시 악화와 채권 금리 상승에 따라 주식과 채권 부문에서 각각 -22.9%, -2.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내 부동산 부문은 그랜드센트럴, 삼성역오토웨이타워 등 코어 오피스의 자산가치 상승 및 판교 알파리움 타워 적시 매각 등으로 19.3%의 수익률을 달성했고, 국내 기업금융 부문은 UCK파트너스의 메디트 리캡 등을 통해 약 7.5%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해외인프라 부문은 Aberdeen PPP 인프라 투자자산 일부매각 등을 통해 약 6.9%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자산군별 보유비중은 주식 13.8%(5조 9,646억 원), 채권 13.2%(5조 7,060억 원) 기업금융 26.9%(11조 6,313억 원), 실물투자 46.1%(19조 9,741억 원)입니다. 공제회는 분산투자 원칙에 따라 매년 자산군별, 국내외별 보유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 목표수익률은 4.7%입니다. 2023년에도 우량 투자 건에 대한 선별적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통해 높아진 금리와 외부변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공제회는 어떤 미래를 그릴까?

교육 가족과 행복한 동행, 최고의 금융·복지 파트너

The-K 매거진 1월호
'제115회 대의원회' 기사 다시보기 ▶

공제회는 지난해 11월 25일, The-K 타워에서 제115회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부문별 주요사업 계획, 사업별 예산안 등을 종합한 「2023년도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고, 2023년 3월 20~21일 The-K경주호텔에서 제116회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결산보고서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 가족의 동반자로서 앞으로 함께 할 100년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 금융·복지기관으로, 전국 교육 가족들의 풍요롭고 행복한 일상과 안정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 경영, 미래를 위한 내실 있는 자산운용으로 매년 성장하는 공제회, 평생 함께 하는 '교육가족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는 '최고의 금융·복지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한눈에 살펴보는 2022년 The-K 매거진 만족도 조사 결과

회원님과 함께 만드는 The-K 매거진, 지난 한 해 어떠셨나요?

회원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는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이자 공제회와 교육 가족을 연결하는 대표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The-K 매거진'에 대한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지난 2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The-K 매거진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함에 따라 총 25,188명의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서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보여주셨습니다. "늘 회원들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매거진"이라고 격려해주신 회원님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제출해주신 모든 소중한 의견을 마음에 새기고 적극 반영해 나가며, 앞으로도 The-K 매거진은 교육 가족에게 희망과 기쁨이 되는 소식과 알찬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The-K 매거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 The-K 매거진, 어떤 형태로 주로 구독하고 계신가요?

전체 응답자의 43.3%(14,941명)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교육 가족께서는 '모바일 e-매거진'을 통해 매거진을 구독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기사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고, 이벤트 응모가 간편하다는 이유를 꼽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9,919명(28.7%)의 교육 가족께서 'PC로 보는 e-매거진'을 선호하시는 것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The-K 매거진

1위 모바일 e-매거진 (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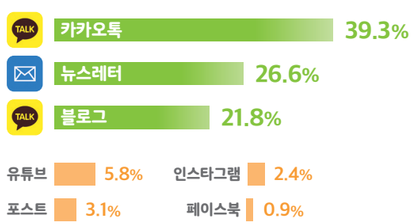
2위 PC e-매거진 (28.7%)

3위 The-K 매거진 앱 (14.8%)

4위 인쇄책자 (13.1%)

모바일 e-매거진

2. 공제회 온라인미디어 채널 중 어떤 채널로 The-K 매거진을 알게 되셨나요?



The-K 매거진을 처음 알게 된 경로로 '카카오톡(39.3%, 10,630명)'을 가장 많이 선택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제회 이메일 수신동의 회원님께 매월 보내드리는 'The-K 뉴스레터(26.6%, 7,198명)'와 공제회 SNS 허브 채널인 '네이버 블로그(21.8%, 5,885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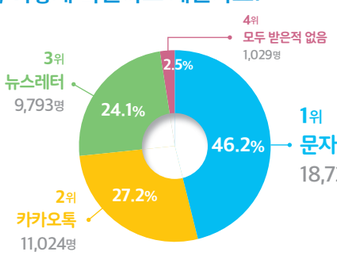
카카오톡

The-K 매거진 3월호 발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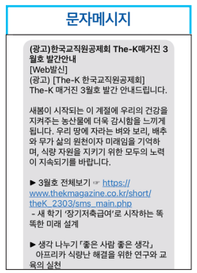
새봄이 시작되는 이 계절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산물에 더욱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땅에 자라는 벼와 보리, 배추와 무가 삶의 원천이자

3. 회원님께 보내드리는 The-K 매거진 발간 안내,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가요?

The-K 매거진은 공제회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동의, 카카오톡 친구 추가 회원님께 매월 The-K 매거진 발간 안내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회원님께서 '문자메시지(46.2%, 18,724명)'를 통해 발간 안내 소식을 받아보고 있으며, 받아보신 회원님 중 90.2%(24,395명)가 The-K 매거진 기사를 클릭해 읽어보신 적이 있다고 응답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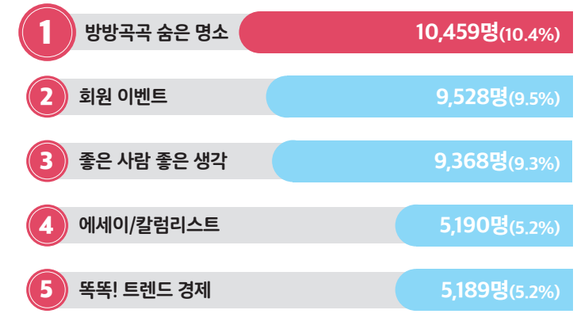
문자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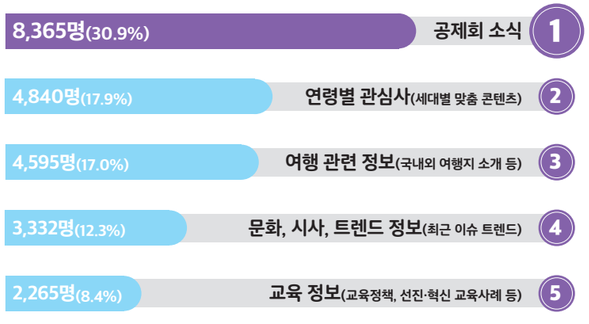
알차고 유익한 The-K 매거진, 어떤 콘텐츠가 가장 좋으셨나요?

1. The-K 매거진, 어떤 코너가 가장 유용하셨거나 기억에 남나요?

전국 숨은 명소를 전문 여행 작가가 소개해주는 [행복 곱하기] '방방곡곡 숨은 명소' 코너가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호응하고 참여하는 '회원 이벤트', 명사들의 교육 철학을 공유하는 인터뷰 [생각 나누기]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세상과 소통하고 성장하는 교육 가족의 공감 에세이인 [생각 나누기] '에세이/칼럼니스트', 그리고 경제 전문가가 들려주는 알기 쉽고 유익한 최신 경제 소식을 전하는 코너, [행복 곱하기] '똑똑! 트렌드 경제' 순으로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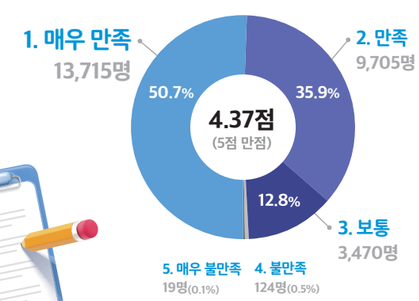
2. 앞으로 The-K 매거진이 더 '강화'했으면 좋을 코너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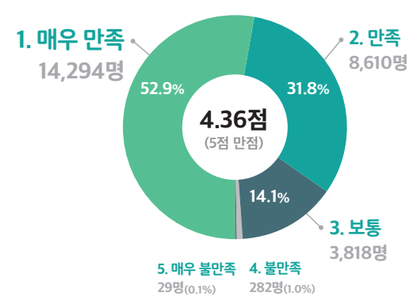
많은 회원님들께서 공제회 금융·복지서비스, 문화행사, 출사회사 소식 등을 담은 '공제회 소식'을 강화해달라고 응답해주셨습니다. 그 뒤로는 세대별 관심사에 맞춘 '연령별 관심사' 콘텐츠, 국내외 여행지 소개 등을 담은 '여행 관련 정보'를 선택해주셨습니다. 이밖에 재테크·경제 칼럼, 다양한 직군별 맞춤 콘텐츠, 퇴직 후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생활·문화정보 등 다채로운 코너들을 기타 의견으로 제안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The-K 매거진 기획·제작 시 꾸준히 반영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The-K 매거진, 각 부문별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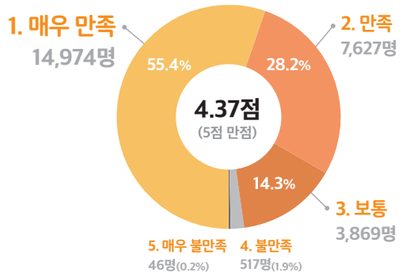
기사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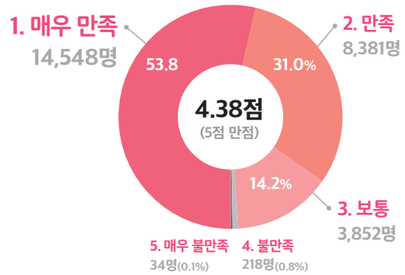
편집,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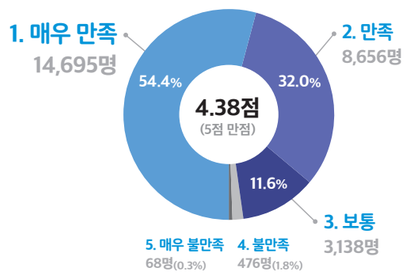
인쇄책자 외 웹(앱)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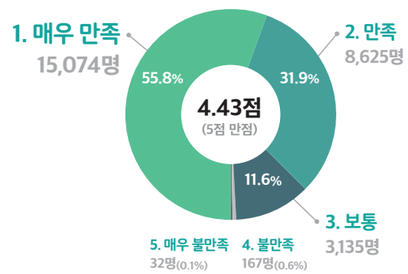
The-K 매거진 기사 콘텐츠, 편집 및 디자인, 접근성, 웹(앱)진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4.35점 이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위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항목은 웹(앱)진에 대한 종합 만족도로, 약 84.8%의 회원님께서 '매우 만족'과 '만족' 항목을 선택해주셨으며 5점 만점에 4.38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보내주신 주관식 의견들도 모두 읽고 참고하여, 편리한 접근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풍성하고 유익한 콘텐츠, 보기 쉽고 깔끔한 편집 디자인으로 The-K 매거진과 함께 더 행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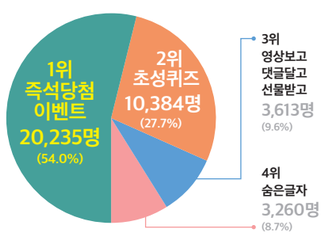
교육 가족을 연결하는 The-K 매거진, 다양한 이벤트와 소통 노력은 어떠셨나요?

이벤트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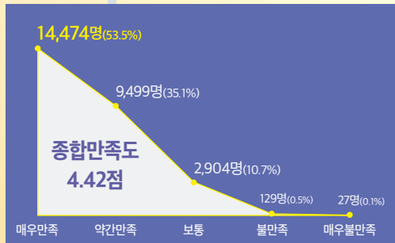


회원과의 소통 노력





The-K 매거진 기사 콘텐츠들을 재미있게 보신 후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벤트에 대한 만족도는 약 4.38점으로 약 86.4% 회원님들께서 '매우 만족'과 '만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중 가장 좋아하는 이벤트로는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즉석 당첨 이벤트'를, 그 다음으로는 기사 콘텐츠를 함께 즐기며 정답을 맞춰보실 수 있는 '초성 퀴즈 이벤트'를 뽑아주셨습니다.** 또한 The-K 매거진이 매월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분석하여 지면에 수록하고 반영·개선하며 더 나은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4.43점이라는 가장 높은 만족도**를 체크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교육 가족 곁에서 함께하는 The-K 매거진

The-K 매거진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23,973명(88.6%)의 회원님께서 '매우 만족'과 '만족'을 선택해주셨습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 덕분에 **2022년 The-K 매거진의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2점이라는 매우 높은 지표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만족도 조사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더 많은 회원님들이 만족하고, 감동하시는 매거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더욱 성장하겠습니다"

The-K 매거진 회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보내주신 이야기

The-K 매거진 만족도 마지막 주관식 문항에 남겨주신 회원님의 다양한 의견들 중 많은 회원님과 나누고 싶은 의견들을 일부 공유해드립니다. The-K 매거진을 읽으시며 느꼈던 점이나 바라는 점 등 회원님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더 많은 회원님에게 감동과 만족을 드리는 The-K 매거진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새롭고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어 유익하고 즐겁게 잘 읽고 있습니다. **퇴직자들도 소외감 느끼지 않고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모로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 꼭 잊지 않고 챙겨 보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의 유익한 기사를 기대합니다.

박*순 회원 前 법성고등학교

「The-K 매거진」에 실리는 기사들을 통해 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시는 멋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에서보다 좀 더 넓은 견해와 유연한 마음가짐을 주는, 저를 좀 더 나은 교육계의 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인터뷰들입니다.** 늘 멋진 분들의 인터뷰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장*현 회원 용인시지역교육청

「The-K 매거진」은 항상 구독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 같아 매우 신뢰가 가고 만족스럽습니다. 매월 새로운 호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한 해 동안 발간한 웹진에 대하여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2023년에도 설레는 마음으로 「The-K 매거진」 잘 읽겠습니다. 늘 교육 가족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전*경 회원 서울 구암초등학교

「The-K 매거진」은 교직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근할 때마다 즉석당첨 이벤트에 참여하는 재미부터 매달 초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은 너무 유익해서 다음 달 영상이 기다려질 정도입니다. **매거진의 기사들은 주제가 워낙 다양해서 읽는 즐거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교직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라 매달 꼼꼼하게 읽고 있습니다.** 더 바라는 것은 없고 지금처럼 교직원 옆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실 회원 성화중학교

항상 회원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이런 회원들의 반응 혹은 의견을 새롭게 반영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즉석 당첨 이벤트도 더 많은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당첨자 수를 늘렸던 것도 좋았고요. 예전에 처음 「The-K 매거진」을 구독할 때 보다 내용 자체도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내용도 중구난방이지 않고 체계화되어 다양한 정보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가독성 또한 높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발전하는 「The-K 매거진」 응원합니다!

김*은 회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제가 가입한 공제회의 금융복지서비스나 이벤트 소식을 알고 싶어서 구독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것은 번잡하기도 하고 한계가 있었는데 매거진을 통해서 보기 쉽게 상세하게 소식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거진을 통해서 다른 교직원분들의 취미생활이나 고민 같은 것도 공유하게 되어 반갑고 좋아요. 앞으로도 더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벤트도 적극적으로 참가하려구요!

하*준 회원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The-K 매거진」 늘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단순히 홍보를 위한 내용이 아니라 주제 선정부터 글의 편집까지 정성을 많이 쏟고 계신 것이 느껴집니다.** 처음 정독하게 된 이유는 OX 퀴즈를 풀기 위해서였지만 내용이 알차 나중엔 매거진을 다 보고 문제를 술술 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만큼 내용들이 하나하나 재밌고 유익하다는 것이겠죠. **새로운 분야에 대해 엄선된 정보만을 제공해 주는 창구는 항상 소중합니다.** 저에게 「The-K 매거진」이 그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김*영 회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The-K 매거진」은 휴대전화 클릭 한 번으로 구독이 가능하여 편리성과 접근성, 유용성, 다양성 등을 고루 갖춘 팔방미인 콘텐츠입니다. 주변 지인에게도 소개하며 안 읽으면 손해니까 자주 들어가서 좋은 고급 정보 얻어가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를 손꼽아 기다리며, 「The-K 매거진」 파이팅!

이*화 회원 논산고등학교

공제회 주요 소식 & 이벤트

고품격 음악 축제에 공제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The-K 콘서트 : PRESENT', 4월 12일 ~ 25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2023년 'The-K 콘서트 : PRESENT'에 공제회원들을 초대한다. 'The-K 콘서트 : PRESENT'는 배우 홍지민, 정선아의 뮤지컬 갈라쇼 공연과 다비치, 10cm 밴드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제회원들만을 위한 고품격 기획 콘서트로, 오는 5월 24일 오후 7시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진행된다. 회원 1,800명(동반인원 포함 3,600명)을 초청할 예정인 본 행사의 응모 기간은 4월 12일부터 25일까지이며, 당첨 발표일은 5월 9일 오전 11시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응모 시작일 이후 공제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 The-K행복서비스 > 공연/전시 > The-K기획콘서트 참조

3만 6천 명 공제회원에게 영화 예매권 1인 2매씩 증정

1차 씨네&JOY 4월 28일 ~ 5월 11일까지 응모, 상시 예매 할인 서비스도

공제회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예술 분야인 영화 관람 혜택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씨네&JOY 2023년 1차 영화예매권 증정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 응모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응모 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중 원하는 극장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다. 당첨 발표일은 5월 19일로, 총 3만 6천 명의 회원에게 모바일 영화예매권을 1인 2매씩 증정한다. 사용기간은 발송일로부터 6개월이며, 해당 이벤트는 마케팅 동의 수집 목적의 문화복지 행사로 응모 시 마케팅 수신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제회원이라면 누구나 영화 예매와 매점콤보를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휴 할인 서비스도 상시 제공하고 있다. 공제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할인 예매권 번호를 발급받아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 예매를 할 수 있으며(1일 1회 2매), 4월 3일 공제회 홈페이지상 매점콤보 할인쿠폰 온라인발급 서비스가 오픈되어 매점콤보도 비대면 할인이 가능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회원이라면 누구나, 매월 베스트셀러를 만나는 시간

북&JOY 2회차 행사, 회원 9천 7백 명에게 희망 도서 증정

공제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북&JOY 도서 증정 행사가 4월에도 찾아온다. ▲국내 대표 서점의 베스트셀러 20종 ▲스테디셀러 10종 ▲4월 테마 과학 분야 도서 10종으로 총 40종의 다양한 장르의 도서 중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응모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회원 9,700명에게 희망 도서 1인 1권을 증정한다. 당첨 발표일은 4월 27일로, 당첨회원에게는 응모 시 입력한 주소로 5월 중 순차 배송될 예정이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행사 시작일 이후 공제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 The-K행복서비스 > 도서/여가 > 북&JOY 참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립니다

회원 대상 법률·세무·노무 무료 상담소 추가·신규 개설

공제회원들을 위한 법률·세무 상담소가 지난 3월 28일부터 각각 대구, 광주에 1개소씩 추가 개설되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 및 세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와 세무 상담소를 각 대도시 지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제회원에 한하여 전국의 총 17개 법률 상담소와 10개 세무 상담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번호를 제시한 후 방문·유선·이메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무 관련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노무 상담소도 전국에 8개소가 신설되었다. 서울, 강원, 인천, 경기남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각각 1개소씩 신규 개설되어 전국의 공제회원들이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담소 이용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 복지서비스 > 법률·세무·노무 상담 참조

회원님들의 슬픔을 함께합니다

장기저축급여 상병·유족급여금 및 목돈급여 사망·상이급여금 인상 조정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상병 및 유족급여금과 목돈급여 사망 및 상이급여금이 2023년 4월 1일부터 인상 조정된다. 장기저축급여 상병급여금은 일반회원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일반회원이 상병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금 외에 폐질의 정도와 퇴직 사유에 따라 제공되는 부조금으로, 지급기준액이 최대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유족급여금은 일반회원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일반회원이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금 외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부조금으로, 일반 사망 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순직 시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목돈급여 사망 및 상이급여금은 가입자가 사망 또는 공상으로 퇴직한 경우 지급되며, 사망급여금은 구좌 당 지급액이 최대 4만 원으로, 상이급여금은 최대 1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교직원공제회 창립 52주년 기념식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3월 15일 여의도 본사 The-K 타워에서 창립 5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경영전략기획실장의 공제회 약사보고, 시상식, 창립 52주년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상곤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해에도 고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체계적 위험관리와 전략적 자산배분, 시스템화된 투자 의사결정 등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라며 "2023년에도 쉽지 않은 투자 환경이 예상되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최상의 회원 만족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지속성장하는 공제회 구현'을 중장기 경영목표로 삼아 회원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공제회 핵심가치인 신뢰·혁신·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100년, 100조 원의 자산을 이루기 위해 '혁신을 통한 성장과 변화를 통한 도약'을 새롭게 준비하겠다"라며 함께해 주신 교육 가족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The-K 호텔경주서 제116회 정기 대의원회 개최

한국교직원공제회 제116회 대의원회가 지난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간 The-K호텔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115회 대의원회 이후 올해 첫 정기 대의원회로,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상곤 이사장을 비롯하여 대의원 63명 및 시·도 지부장 11명, 출자회사 대표이사 8명 등이 참석하였다. 제115회 대의원회 회의록, 2022년도 감사결과 등의 보고가 진행되었고, 의안으로는 2022년도 결산보고서안, 운영위원 지명지구 변경안 등이 심의·논의되었다.
대의원회는 공제회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로, 전국 시·도별 회원들로 조직된 대의원 선출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원대표 82인(전국 17개 시·도별로 일반회원 78명, 특별회원 4명)으로 결성되었다. 공제회 정관의 변경,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 등을 의결한다. 2020년 11월 1일 제22대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2023년 10월 31일까지 3년 임기 중에 있다.

The-K 출자회사 4월 소식

The-K호텔서울

도심 속 야외에서 즐기는 우첼로 가든 바비큐 프로모션

The-K호텔서울은 4월의 연녹빛 봄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넓은 정원 '우첼로 가든'에서 여유로운 식사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우첼로 가든 바비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특히, 서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여유 있는 테이블 간격으로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가성비와 가심비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고객이 바비큐 그릴을 이용하여 직접 구워 먹는 셀프 바비큐로 운영하며, 양갈비 1kg 12만 원, LA갈비 600g 10만 원, 소고기 모둠·안심·등심·갈빗살·부챗살 구이가 600g 기준 9만 원, 돼지고기 모둠·삼겹살·목살·갈매기살 구이가 600g 기준 7만 원이다. 스페셜 메뉴로는 소시지·왕새우구이를 2만5천 원에 즐길 수 있으며, 식사 이용 고객은 샐러드 바를 무료로 이용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부위를 골고루 맛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 SNS 계정에 해시태그와 우첼로 가든 바비큐 현장 인증사진을 올린 선착순 3명에게 생맥주 1잔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4월 30일까지 매주 목~일요일 진행한다. 바비큐 운영 시간은 매주 목·금요일 저녁 18시~21시까지, 토·일요일은 점심 12시~15시까지와 저녁 18시~21시까지. 모든 식사는 1일 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공제회원 및 투숙 고객은 식음료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The-K호텔서울에서는 4월 30일까지 **객실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객실은 디럭스 트윈이며, 회원 특별가로 주중(일~목)은 9만9천 원, 주말(금~토)은 11만7천 원에 이용할 수 있다.

봄꽃이 만발한 양재시민의 숲도 거닐고, 드넓은 The-K호텔서울 정원에서 여유롭게 바비큐 파티도 하며 즐거운 봄 추억을 쌓아보는 것은 어떨까. 더 자세한 내용은 The-K호텔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571-8100(The-K호텔서울)

The-K호텔경주

봄이 되면 더욱 신비로운 경주, 4월 벚꽃 스토리 패키지

The-K호텔경주는 4월, 벚꽃 시즌을 맞아 공제회원을 위해 **2023년 벚꽃 스토리 패키지**를 진행한다. 스탠다드 객실 1실, 조식 2인 구성이며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회원 할인가로 11만6천 원부터 이용가능하다. 경주의 문화유산과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은 봄이면 특히 벚꽃의 운치와 어우러져 더욱더 신비롭게 보이는 만큼, 경주 전역에 걸쳐 다양한 벚꽃 명소들이 유명하다. 보문관광단지의 보문호반길, 보문정, 보문입구길, The-K호텔경주 입구길 뿐만 아니라 대릉원 돌담길, 김유신 장군묘 벚꽃터널, 암곡 벚꽃터널, 불국사 벚꽃동산(왕겹벚꽃) 등 경주 곳곳에서 벚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일상에서 쌓인 피로는 The-K호텔경주의 **천연온천사우나**에서 풀어보는 것도 좋다. The-K호텔경주의 온천은 경주시 지정 최우수 사우나로, 지하 630m에서 용출되는 천연 알칼리성 100% 온천 원수인 데다, 특히 야외노천탕은 자연 숲속에 위치하여 운치까지 뛰어나다. 뜨거운 야외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시원한 바깥 공기에 얼굴을 내맡기면 어느새 기분 또한 상쾌해진다. The-K호텔경주에서는 수영장, 헬스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문의 및 예약은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054-745-8100(The-K호텔경주)

The-K지리산가족호텔

The-K지리산가족호텔 추천★ 구례여행 후기 이벤트

The-K지리산가족호텔이 위치한 전남 구례군에는 자연과 문화, 역사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여행지들이 있다.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는 힐링의 시간이 되고, 자연과 문화에 관심이 많은 여행객들에게는 지식을 탐구할 기회가 될 수 있는 곳들이다. The-K지리산가족호텔이 추천하는 구례 여행지 첫 번째 코스는 한국압화박물관-섬진강 대나무숲길-구례5일장(3/8일장)-화엄사 코스, 두 번째 코스는 산수유 문학관-지리산 정원-지리산 치즈랜드-천은사-노고단 코스다.

The-K지리산가족호텔에서 공제회원들이 구례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4월 **The-K지리산가족호텔 추천★ 구례여행 후기 이벤트**를 준비했다.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더케이지리산가족호텔' 채널을 추가하고, The-K지리산가족호텔 투숙 시 위 추천 여행 코스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여행한 후, 카카오톡 채널에 등록된 '4월 구례여행 후기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여행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댓글 작성 시 여행지/투숙자명(예약자명)/객실번호/휴대전화 번호 뒤4자리 포함) The-K지리산가족호텔에서 추천한 구례 여행코스만 해당되며, 추첨을 통해 산수유엑기스 500ml 세트(2명), 산수유엑기스 500ml 단품(2명)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4월 투숙 고객에 한해 한 달간 진행하며, 객실 1실당 1인만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The-K지리산가족호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61-783-8100(The-K지리산가족호텔)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제주 봄의 색을 그리는 드로우 유어 스프링 패키지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공제회원들이 제주에서 봄 향기 가득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제주 봄의 색을 그리는 **드로우 유어 스프링(Draw Your Spring) 통합 패키지**를 출시했다. 비바 옐로우, 라벤더 퍼플, 로맨틱 마젠타 등 봄이 연상되는 컬러를 컨셉으로 다채로운 구성을 선보여 제주 여행 목적과 동반인에 따라 최적의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는 2인 조식 및 수영장 이용권이 포함된 **비바 옐로우 2인 패키지**, 피크닉 세트와 샌드위치, 무알코올 하이볼을 즐길 수 있는 **라벤더 퍼플 패키지**, 프러포즈 현수막과 와인, 치즈&과일 플레이트를 세트로 제공하는 **로맨틱 마젠타 패키지** 등이 준비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서 골프 여행을 계획 중인 공제회원들을 위한 골프 필드권과 원 포인트 골프 레슨, 그리고 이글 시 라운지에서 생맥주 4잔까지 제공해 주는 **이글 그린 패키지**, 어린이 가족 여행객들을 위한 실내 동물원 '캐니언 파크' 이용권과 델리 베이커리 2만 원권이 포함된 **젤리 오렌지 패키지**도 마련되어 있어 골프투어, 어린이 동반 가족여행, 프러포즈, 피크닉 등 상황에 딱 맞는 제주 여행을 골라 즐길 수 있다.

또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내부 Art in the Hotel에서는 다양한 색이 가득한 유럽 작가들의 예술 작품도 관람할 수 있어 호텔 곳곳에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공제회원 할인가 등 자세한 사항 및 예약문의는 호텔 대표번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64-729-8100(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귀 기울여 소통하고 함께합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The-K 매거진」

지난 2월호를 읽고 보내주신 773명 회원님들의 의견 중 더 많은 회원님과 공감하며 나누고 싶은 의견을 소개합니다.

「The-K 매거진」 2월호를 통해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지키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예술분야의 명사와 회원님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이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많은 회원님들이 깊이 감동받고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별과 만남이 교차해 아쉬움과 설렘, 두려움이 공존하는 2월이었던 만큼 회원님들의 의견 안에 '힐링', '용기', '감동', '위로'라는 키워드가 그 어느 때보다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공허함을 다룬 '마음쉼'과 소통하는 방법을 다룬 '고민 상담소'에 더 많이 공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으시다면 「The-K 매거진」을 읽으며 위로받고,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길 바란다"라는 한 회원님의 의견을 접하면서 매 호 회원님의 일상에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The-K 매거진」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늘 매거진을 정독하며 공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힐링과 위로를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직 및 퇴직 선배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본받을 만한 대한민국 위인들의 숨은 이야기까지 알찬 내용으로 가득한 「The-K 매거진」이 팍팍한 공직 생활에 단비 같은 시원함과 내 미래 삶을 위한 비옥한 밑거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 이 짧은 글로 대신해 전해봅니다. 길고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따뜻한 봄날이 오듯이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분들도 매거진을 읽고 위로를 받으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 봅시다. 파이팅!

김*호 회원 교육부

먼저 '2022년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인쇄 사외보 부문 수상을 축하합니다. 그럴 줄 알았답니다. 매달 「The-K 매거진」을 읽으면서 '참 좋다. 어떻게 교육 관련 분야라는 제한된 영역의 기사를 이처럼 다양하고 현실감 있게 그리고 깊고 따뜻하게 게다가 흥미진진하게 엮어내지?' 라고 생각하며 폭 빠져 읽곤 하니까요. 오늘 2월 첫날에도 오후 내내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저녁 식사 시간이 된 줄도 몰랐습니다.
10여 년 전 성북동에 있는 간송미술관에 들러 고즈넉한 경외감으로 그 소중한 문화유산을 만났는데 그때 감동이었던 간송 전형필 선생님을 다시 회고하는 뜻깊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이신 김종규 님의 존경스러운 삶, 30년 배우고 30년 일하고 30년 봉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충고도 뜨겁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갖게 되었고, 많이 배우고, 마음에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꿈도 느끼고, 주어진 일상이 소중해 감사하게 되는 행복 곱하기로 넘쳐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열 회원 前 인성여자고등학교

매월 이메일을 통해 「The-K 매거진」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벤트에 당첨되려는 소박한 마음으로 기사를 건성으로 읽었습니다만, 차츰 좋은 기사가 많고, 특히 꼭 알아야 할 필요한 정보가 넘쳐난다는 생각에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뭐랄까, 20년이 넘어가는 제 교직 생활처럼 「The-K 매거진」 역시 연차가 쌓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친숙한, 늘 기다려지는 그런 것 말이지요. 제 교직 생활과 함께하는 「The-K 매거진」의 무한한 발전과 건승을 빕니다. 그리고 공제회 회원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한*진 회원 화성장안초등학교

2월호는 정말 뜻깊은 기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에 대한 기사가 많아서 눈길이 갔는데요, 탈춤이라는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고 전파하는 데 평생을 바친 곽종화 선생님과 김은주 강사님, 전 재산을 바쳐 우리 문화재를 지킨 간송 전형필 선생님,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님 등의 기사가 모두 문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꿈만 같았던 김구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를 반세기 만에 이룬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앞으로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문화의 중요성을 더 많이 알리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를 통해 나라를 지키고, 통일을 꿈꿀 수 있다는 사실에 저도 앞으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후원도 하고, 아이들에게 문화재의 중요성을 가르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김*아 회원 서울정덕초등학교

한국교직원공제회의 「The-K 매거진」은 대한민국 교직원들을 위한 최고의 전문 잡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홍보 전문지와 교육 전문지라는 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퇴직 회원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후 생활 자산 증식과 재테크 등을 안내해 주니 안정된 인생 제3기를 펼치게 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기업, 최다 회원을 가진 한국교직원공제회로서, 대한민국 교직원들의 자부심을 증진하고, 나아가 교직원들의 미래·행복·희망을 선도하는 명품 「The-K 매거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 회원 前 논산동성초등학교

항상 「The-K 매거진」을 꼼꼼히 읽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가 2,500구좌로 확대되었다는 정보를 접하고 얼른 이벤트에 신청하고 증좌도 했습니다. 항상 좋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장기급여의 장점을 꼼꼼히 정리해 놓은 기사를 보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있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가입했을 때부터 최대한 가입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생활에 도움 되는 기사에 늘 감사합니다.

여*정 회원 산남중학교

겨울방학 즈음이면 주변에서 명예퇴직 등의 퇴직 관련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시기에 맞춰 2월호 '똑똑! 트렌드 경제'부터 'The-K Focus'까지 장기저축급여 관련 기사가 잘 소개되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기저축급여 구좌 수 확대에 맞춰 노후 생활 대비 저축 방법 등이 숫자, 표 등으로 제시되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특히 급여의 12% 저축, 매년 12%씩 증좌 등으로 자세하게 방법을 알려줘 저경력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회원이 세제 혜택 등을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2월호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퇴직한 선배 회원님들의 장기저축급여 활용 이야기도 궁금했는데, 잘 소개되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방*경 회원 남양주다산초등학교

'미래 잡자'의 '전통문화 스토리텔러'를 읽고 미래에는 이 직업이 꼭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나라의 전통문화야말로 가치를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중요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창의력 있는 필력이라면 사람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감동과 울림, 그 사람의 인생까지 바꿔놓을 정도의 파급력이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문화는 점점 더 인기가 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강조한 '문화강국'의 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중한 직업들이 많이 파생되고 전문화되어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고 이어나가는데 귀중한 주춧돌이 되길 바랍니다.

이*희 회원 율정초등학교

「The-K 매거진」에는 매월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중 2월호 '고민 상담소'의 내용은 특히 저에게 많은 관심과 공감을 얻고 배우고 실천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인 이청득심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법은 내용이 너무 좋았고 저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 내용을 몇 번이고 읽고 실천하였더니 매사 무뚝뚝하고 지시적이던 부부간의 대화, 자녀와의 대화가 원만해지고 한결 부드러워져 놀라웠습니다. 이제야 행복을 느끼며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 상담소' 내용을 제 처가 먼저 읽고 출가한 아들, 딸 부부도 읽게 하였더니 모두가 공감하고 감사하다 하며 실천하겠다고 다짐을 하네요 「The-K 매거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중 회원 前 와동초등학교

2월호에서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정말 유익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몰랐는데 가입 자격, 계약 조건과 저율과세가 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분할급여금 대여 부분도 알 수 있었고, 좀 더 유연하게 활용 가능한 퇴직생활급여에도 관심이 가서 정독하며 메모해 두었습니다. 소중하게 모은 목돈이니 자금 계획을 잘 세워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 회원 오마초등학교

「The-K 매거진」이 도착하자마자 인터넷을 켜고 구독했습니다. 이벤트 당첨이라는 사심도 컸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코너의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님의 문화 사랑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으로 본인이 죽는 순간까지 국민신탁 후원을 물으신다 하니 그 뿌리 깊은 소신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좌우명으로 말씀하신 '누구에게 베푼 것은 결코 생각하지 말며, 받은 것은 결코 잊지 말아라'는 제 좌우명으로 새기게 되었습니다.
'꿈 너머 꿈'에 나오는 멋진 수학 선생님은 아이들과 소통하려는 대화법이나 여러 가지 취미가 참으로 부럽고 다양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 또한 일상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 2023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생깁니다.

한*재 회원 조남유치원

다른 소식도 반가웠지만, 특히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 수 확대' 소식이 가장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규 임용이 되었을 때는 월급이 적어 적은 금액을 납입했는데 장기저축급여 제도의 장점을 알고부터는 최대 구좌로 입금하고 있어요. 게다가 타 공제회는 상한구좌가 훨씬 높아 부럽기도 했는데 이제는 다른 공제회 상한구좌보다도 높아서 올해부터는 최대 금액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The-K 매거진」을 통해 장기저축급여의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듣겠습니다.

방*실 회원 소망초등학교

「The-K 매거진」을 읽다 보니 제 마음의 골칫거리가 해결되는 실마리가 보이네요. 코로나19 이후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2022년을 보냈습니다. 2023년은 힘차게 출발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아이들 종업식과 졸업식을 마치고 허한 마음이었는데, 2월호는 특히 '마음쉼' 코너 기사가 마음에 와닿네요. 공.허.함. 요즘 제 심정이 딱 공허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명절에 북적북적 지내고 나니 좀 나은 것 같은데 때맞춰 '갓생살기'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네요. 꼼꼼히 읽다 보니 다시 연초의 계획했던 마음이 다져지고 저 역시 갓생살기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이 공허함도 떨쳐버릴 수 있겠단 용기가 생깁니다. 저처럼 많은 구독자가 매월 「The-K 매거진」으로 힐링하고 용기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희 회원 이리모현초등학교

「The-K 매거진」은 나의 일상입니다. 특히 핸드폰을 싫어하는 저로서는 책상에 앉으나 소파에 앉으나 언제나 손에 쥐여 있는 건 「The-K 매거진」입니다. 이번 2월호 「The-K 매거진」도 받자마자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고 있자니 우리 문화의 소중한 가치는 물론 바로 문화의 힘이 국력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역사 속에서 찾아보라'는 말이 있듯이 '역사 속 숨은 영웅',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 등은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가 담겨 있으며, '방방곡곡 숨은 명소'는 이제 나들이가 자유로워지면 꼭 가봐야 할 곳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처럼 국내 여행지 소개에는 조그만 지도가 있으면 금상첨화가 아닐는지요? 'The-K 예방 의학'이나 '건강한 집밥' 등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 손을 뗄 수 없는 「The-K 매거진」입니다.

신*열 회원 前 한밭대학교

이번에 장기저축급여의 구좌 수가 확대된다는 걸 얼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다들 너무 고마워하네요! 저도 「The-K 매거진」 덕분에 알게 됐다고, 홍보 요정 역할도 톡톡히 했답니다. 은퇴 후에 목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내 삶을 어떻게 바꾸고 꾸릴지 고민이 많은데 '인생 이모작'과 '방방곡곡 숨은 명소'를 보며 '은퇴 계획'과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앞으로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기사 많이 써주세요.

배*숙 회원 前 수원북중학교

「The-K 매거진」은 제가 매월 초에 받아 보는 유일한 월간 잡지입니다. 다양한 코너를 통해 새롭고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재미있고 쉽게 풀어 볼 수 있는 다양한 퀴즈 맞춰보기는 저의 행복감을 배가해줍니다. 이처럼 매월 받아 보는 「The-K 매거진」이 있어서, 교직을 평생직업으로 선택하고 아이들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저의 인생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윤*실 회원 前 숭덕여자고등학교

2월호 '꿈 너머 꿈'에 나온 김한결 선생님 기사를 읽으며 다양한 취미로 교육의 지혜를 찾는 멋진 선생님을 알게 되어 저 자신도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취미를 즐기는 멋진 교사가 되어보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꿈 너머 꿈'에서 현업과 동시에 또 다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 넘치시는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도움 많이 됩니다. 앞으로도 멋진 꿈에 도전하시는 회원들 많이 소개해 주시고 저 역시 '꿈 너머 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강*희 회원 청주내곡초등학교

현직에 있을 때는 시간이 없어 관심을 두지 못했는데, 퇴직하면서 공제회가 교직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전화 응대도 친절하시고, 고객을 우선해 일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he-K 매거진」의 알찬 정보도 퇴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행이나 금융 정보, 책 정보, 역사 공부까지 하게 되는 유익한 매거진입니다.

하*희 회원 前 복정초등학교

2월호는 유난히 'The-K Focus'에서 안내하는 공제회 소식이 돋보였습니다. 방학 중이어도 공제회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시간을 내 직접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The-K 매거진」을 보니 상세하게 안내된 장기저축급여 상한 구좌 수 확대,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한 급여율 조정 계획,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등 새로운 소식을 알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최근에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궁금한 게 많았는데, 61쪽에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된 설명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각종 세금과 관련해 60~61쪽처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코너도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모 회원 범박고등학교

바쁘게 업무를 하느라 잊고 있었던 문화생활을 공제회의 다양한 이벤트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번아웃이 오려는 듯 지치는 시점에 새로운 전환이 되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역사부터 일상생활, 새로운 문화 소개 등 다양한 주제를 흥미롭고 쉽게 전달해 주어, 매거진도 꾸준히 챙겨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 기관에서 근무하면서도 좋은 줄 모르고 지내다가 잘 짜인 매거진을 보며 내가 꽤 괜찮은 조직에 속해 있구나 하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어요. 더 많은 소통을 통해 다양한 주제와 새로운 문화, 잊으면 안 되지만 잊혀져 가는 사실들을 끄집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롱 회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The-K 매거진」이 이렇게 귀한 보석인 줄 퇴직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찬찬히 들여다보니 너무나 귀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들이 저에게 감동을 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인생 이모작', '마음쉼' 코너 등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없고 제 마음을 움직이고 다독여 주네요,
지금은 매달 초 설레는 마음으로 얼른 열어보고, 또 틈날 때마다 들어가 읽고, 지난 호들까지 다시 찾아 읽어보는 열성 팬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속감 없어진 저를 회원으로 튼튼히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까지 해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미 회원 前 서울신천초등학교

2월호 「The-K 매거진」 '고민 상담소'가 마음에 쏙 들어왔다. 무엇보다도 책임은 많고 고민을 어디 제대로 털어놓을 곳 없는 4050세대가 나처럼 참 많은가 보다 공감부터 하게 되었다. 김국환의 '타타타' 가사인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나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역지사지'라는 단어에서 늘 그렇게 실천하려고 애쓰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것도 꼭 내 맘 같았다. '이청득심'이라는 단어를 새기며 소통에 경청이 꼭 필요하다는 걸 또 한 번 더 확인하기도 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참 힘들지만 잘 듣다 보면 분명 관계가 좋아지고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새 학년을 준비하기 위해 전입과 전출 교사가 오고 가면서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한국교직원공제회원들 모두 '이청득심'을 마음에 꼭 새겨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파이팅!!

김*희 회원 부산 무정초등학교

2월호에서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 수 확대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 퇴직 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하고 있는 특별회원으로서 일반 회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기사라고 느껴집니다. 분할급여금을 받은 지가 벌써 만 5년이 되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현직에 있을 때 초임 때부터 상한구좌까지 넣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 지난 후였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상한구좌까지 납입하고 보니 분할급여금을 매월 받고있는 지금은 제2의 월급을 받는 기분입니다.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점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인 회원 前 청송 안덕초등학교

벌써 2023년의 두 번째 매거진이 발간되었다니 이토록 빠른 시간의 속도가 새삼 놀랍습니다. 2월호에서는 유독 기억에 남는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 나누기의 '역사 속 숨은 영웅'에서는 우리 문화를 지켜내신 간송 전형필 선생님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었고, 행복 곱하기의 '키워드로 읽는 시사' 코너에서는 MZ세대의 갓생 살기라는 새로운 문화와 신조어들을 소개해 줘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언제나 더케이'에서 다룬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 수 확대 소식입니다. 그동안 월 최대 9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150만 원으로 상향된다니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글을 읽지 않았다면 상한 구좌 수가 확대된 사실을 계속 모르고 지냈을 텐데, 「The-K 매거진」 덕분에 중요한 금융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매번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매거진을 발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달도 기대하겠습니다!

전*경 회원 서울구암초등학교

「The-K 매거진」은 회원들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뿐 아니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에게 주는 혜택과 복지, 그리고 주요 소식 등도 전하는 역할을 해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숨어 있는 지식과 회원들의 관심사를 파악해 전해 주는 전달자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방곡곡 숨은 명소' 코너는 여러 회원의 여유와 리프레시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만족스러운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회원 대상 설문조사 등의 피드백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매거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현 회원 부산대학교

2월호에 제일 관심을 두고 본 것 중 하나가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 수 확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연복리와 세제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고 연금 개혁에 따른 '소득 공백 극복'에 대비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사업비 차감이 없어 다른 일반 연금 상품보다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어 저축 효과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구좌 수를 2,500구좌로 확대했습니다. 항상 회원들의 복지와 재정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는 「The-K 매거진」 담당자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고*진 회원 서울중평초등학교

「The-K 매거진」의 내용은 빈틈이 없고, 버릴 것도 없는 알짜배기입니다. 2월호를 읽으며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 퇴직생활급여금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고, 메모해 보며, '참 좋은 제도로 퇴직 후에도 「The-K 매거진」과의 인연을 계속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The-K 호텔 소식을 읽으며 공제회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한 영상을 찾아보며 계획하고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 '건강한 집밥' 코너에 나온 꼬막 비빔밥을 꼭 한 번 식구들에게 대접하고 싶고,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었지만 분리수거, 장바구니 사용하기 정도에 그쳤었는데 알맹상점을 서울에 가면 꼭 한 번 방문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해 보겠습니다. 리필을 위해 용기를 내려고요.

유*경 회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느덧 퇴직 이후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나이가 되었네요. 매번 최대치로 갱신해 적립해 온 장기저축급여금을 보니 흐뭇해집니다.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의 차이에 대해 잘 몰랐는데, 두 가지를 구분해 놓은 기사를 밑줄 그으면서 보았어요. 선배 선생님들의 짧은 경험 문구도 흥미로웠어요. 퇴직 후에도 한국교직원공제회 특별회원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싶고 혜택도 받고 싶군요. 그리고 매거진을 넘기면 항상 나오는 여행 사진은 정말 멋집니다. 인생 이모작도 관심 있게 봅니다. 격주간 신문형태로 받았던 공제회 소식지를 잡지 형태인 「The-K 매거진」으로 계속 받고 싶습니다.

황*주 회원 구산고등학교

장기저축급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비과세, 저율과세라는 게 정말 맘에 들었고, 복리로 운영된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특별한 정보도 없이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적립해 왔는데 「The-K 매거진」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너무 든든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요즘 각종 매스컴에서 연금 개혁 소리에 연금 적게 받을까 봐 걱정하던 차에 장기저축급여가 이렇게 잘 운영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고, 추후에 증좌해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권*경 회원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역시 기대를 넘어서 더욱 알차고 풍성한 소식이 가득 담긴 2월호를 보면서 '아!', '오~~', '음…' 같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걸 어쩔 수가 없네요. 이번 호에는 특히 전통문화와 관련한 내용이 많아 좋았습니다. 일제의 감시와 압박 속에서도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애쓰신 전형필 선생님과 탈춤 지도로 전통을 지키고 이어가는 교사들 이야기, 또한 전통주를 빚는 교사와 퇴직 후 우리 궁을 지키는 문화해설사로 인생 이모작을 이루고 있는 퇴직회원 등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계승하는 분들의 노력에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2년의 소중한 소식을 담은 특별소장본도 다시 보니 정말 감회가 깊고 좋았습니다. 매월 다양한 소식과 정보 제공을 위해 애쓰시는 담당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덕 회원 前 부천양지초등학교

* 본문에 게재된 내용은 전체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개된 30명 회원님을 포함해 선정되신 50분에게는 편의점 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The-K 매거진」

설레는 마음으로 매달 1일을 기다려주시는 회원님들,
「The-K 매거진」도 설레는 마음으로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매월 많은 회원분께서 「The-K 매거진」을 읽으신 후 따뜻한 조언과 진심 어린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성스러운 회원 여러분의 관심은 「The-K 매거진」을 알차고 풍성하게 만드는 동력입니다. 때로는 지면을 채워주는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숨어 있는 보석 같은 이야기를 찾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는 「The-K 매거진」을 더욱 가치 있는 매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천이라는 점에 감사의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늘 한결같이 지켜봐 주시는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하며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드리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

회원 의견 보내는 방법

1. 「The-K 매거진」 웹진 '회원 의견' 배너를 통해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2.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 메일을 보내실 때는 보내시는 분의 성함, 분회명(현재 혹은 퇴직하신 소속 기관명),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주세요.

회원 의견 신청 바로가기 ▶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더욱 보답하기 위해 매월 50분을 선정해 편의점 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리고, 매거진에 소개해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성장하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

2023년 나에게 딱 맞고 꼭 필요한 보험 선택 가이드

교육 가족의 든든한 노후와 행복한 미래를 위한 국내 유일 교직원 맞춤형 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입니다. 새로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사회초년생 회원님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험만으로 보장이 충분할지 걱정하시는 회원님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새 학기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실 회원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호에서는 나에게 딱 맞는 보험 똑똑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어 5월호에서는 보험계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보험 용어 상식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나에게 딱 맞고, 꼭 필요한 보험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STEP 1 본인의 상황 점검해보기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보험을 고르기 위해서는 본인의 질환력, 경제력, 현재 가입 중인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등 여러 조건을 먼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선행되어야 이후 상품군, 주요보장 및 특약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력 또는 과거력으로 인해 어떤 질병이 고민인지에 따라서, 암보장 상품, 치매보장 상품 등 특별히 관심 있는 상품군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 중인 보험의 보장내용을 분석해보면서 새로운 보험상품 가입 시에는 어떤 특약을 추가하여 보장 공백을 메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수준이 매월 납입하기에 무리 없는 정도인지 거듭 확인해보면서 향후에 보험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져 중도해지하고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STEP 2 주요보장 정하기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계약을 통해 해당 보험상품의 핵심 보장을 준비하고, 부족한 보장 부분은 특약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DIY형 상품이라 해서 주계약은 재해사망으로 단순화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고 다양한 특약을 통해 내게 맞는 맞춤형 조립을 하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으니 이러한 설계 방법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STEP 3 '3대 질병' 보장 확인하기 '3대 질병'으로 불리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은 국내 3대 사망원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망원인 1위는 암(26%), 2위 심장질환(9.9%), 4위 뇌혈관질환(7.1%)으로, 이 질병들은 치료비도 많이 들어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신다면 '3대 질병'에 대한 보장은 반드시 포함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특히, 뇌, 심장질환 보장의 경우 보장범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출혈 진단비만 보장을 해주는 보험상품이 대부분으로 보장의 범위가 무척 좁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뇌경색증은 물론 뇌혈관질환까지 보장해주는 특약들이 나오고 있으며, 심장질환도 허혈성심장질환까지 보장범위를 넓히고 있으니 가입하고 계신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확인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43%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검과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STEP 4 설계사에게 상담하기 스텝1, 스텝2, 스텝3을 진행하셔도 일반적으로 내게 맞는 보험을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재정전문위원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장분석을 통해 내가 가입한 보험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내게 딱 맞는 보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도와드립니다.

교직원 맞춤형 생명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직원라이프 보험상품이 궁금하신 회원님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 상단 보험 메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보험료 계산 및 가입상담신청도 가능하며, 약관 및 상품설명 브로슈어 등 자세한 자료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직 1 ONE Life
우리의 온리원은 교직원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이렇게 만나세요!

홈페이지 '재정전문위원 찾기' 거주지역과 가까운 최고의 보험 전문위원에게 맞춤형 상품을 직접 추천받을 수 있어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하기' 상품별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상품을 선택하고,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간편하게 '전화 문의하기' **보험가입 상담 1577-3993**

선생님, 나의 선생님께

스승의 날을 맞아 진심을 가득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학창 시절, 깊은 사랑과 한결같은 가르침으로 바른길로 이끌어 주신 은사님께,
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선후배 동료 교육 가족에게
감사와 응원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만나지 못해 아쉬운 마음,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소중한 진심들을
「The-K 매거진」이 고스란히 전해드립니다.

- **참가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내 용:** 옛 은사님이나 동료 교육 가족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500자 이내로 적어주세요.
- **보내실 곳:** 「The-K 매거진」 편집실 이메일 (thekmagazine@ktcu.or.kr)
  ※ 보내시는 분의 성함, 분회명(전·현직 소속 기관명),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기재해주세요.
- **응모 기간:** 2023. 4. 1 ~ 4. 15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2023. 6. 1. 이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총 515분을 선정해
15분께는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5만 원),
500분께는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1만 원)을 드립니다.

그중 15분의 메시지를 선정해 「The-K 매거진」 5월호와 공제회 SNS 채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바로가기

편집실에서 보내는 편지

커피 향처럼 향기롭고 따뜻한 846개 사연이 모였습니다.

「The-K 매거진」 싣고 달려가는 커피트럭 시즌 II에 응모해주신 모든 교육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매거진 싣고 달려가는 커피트럭이 수많은 교직원분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주어서 「The-K 매거진」을 통해 행사 소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
> **정*주 회원** 개롱초등학교

> 커피트럭 행사로 현장에서 정말 수고하시는 교직원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해주는 모습을 보며 공제회가 있어 든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 **이*걸 회원** 홍천중학교

> 「The-K 매거진」 싣고 달려가는 커피트럭은 직장 동료들과 끈끈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어 더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
> **안*희 회원** 前 목동초등학교

> 매거진 기사 중 커피트럭 행사 사진 및 내용 등이 너무 좋네요. 일회성 행사 말고 장기적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
> **손*자 회원**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The-K 매거진」 싣고 달려가는 커피트럭' 행사는 2022년 「The-K 매거진」 창간 5주년을 맞아 교육 · 의료 현장에 직접 찾아가 응원 메시지와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진행된 행사들의 취재 후기를 접한 많은 회원님들께서 기획 의도에 공감해주시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함께 지속적 운영을 바란다는 의견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회원님들의 격려와 요청에 힘입어 「The-K 매거진」 2월호를 통해 2023년 커피트럭 이벤트 참여 희망 사연을 다시 모집했습니다. 늘 한결같이 곁에서 힘이 되어준 고마운 동료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소중한 선후배, 그리고 고생한 나 자신을 위해 응원의 마음을 담은 사연을 보내달라는 안내에 무려 846명의 교육 가족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언제나 밝고 친절한 미소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는 동료들이 있어 큰 힘이 되었다', '따뜻한 배려와 가르침 덕분에 힘든 신입 시절을 견딜 수 있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퇴직을 앞둔 선배님의 지성과 인품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퇴직 전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등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사연들이 갓 내린 커피 향처럼 향기롭고 따뜻했습니다.

맞춤형 응원 메시지로 예쁘게 꾸민 커피트럭에 「The-K 매거진」을 싣고 달려갑니다!

보내주신 정성 가득한 사연을 한 줄도 빠짐없이 신중하게 읽고, 위로와 응원이 더 필요한 전국의 교육 · 의료기관에 커피트럭이 4월부터 매달 찾아갈 예정입니다. 교육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The-K 매거진」이 향긋한 커피 한 잔과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 당첨자 선정 및 당첨 안내 공지사항 ★

- 커피트럭 이벤트에 참여하신 회원님들 중 선정되신 회원님께는 개별 연락을 통해 연내 구체적인 일정 조율, 장소 협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 달에 1~2개 기관 방문 예정)
- 커피트럭을 안전하게 주차하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된 곳으로, 행사 당일 기관의 최종 승인과 전기 사용 등의 행사 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 사연을 보내주신 회원님 및 즐거운 행사 모습을 취재하여 현장사진과 함께 「The-K 매거진」에 소개해드립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께서 더 즐겁고 알차게 「The-K 매거진」을 누리고, 고품질의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삶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시하는 각계각층의 명사, 멘토, 전 · 현직 회원님들의 지혜와 열정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획과 인터뷰 코너, 다양한 이벤트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The-K 매거진」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e-K OX 퀴즈

이번호 「The-K 매거진」을 잘 읽으셨나요?
아래의 OX 퀴즈의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5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 OX퀴즈 바로가기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 정답과 보내시는 분의 성함,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응모 기간** : 2023. 4. 1. ~ 4. 30.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3. 6. 1. 이후

3월호 퀴즈 정답

QUIZ 1. X
QUIZ 2. O
QUIZ 3. O

매월호 퀴즈 및 회원 의견 선정자는 웹진 (www.thekmagazine.co.kr) 혹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배형민 교수가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으로 기후변화와 탄소 저감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전시 이름은 '기후미술관 : 우리 집의 생애'다.
(p.14~17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참조)

2 정지용의 시 '향수'에서 꿈에서도 잊지못할 곳이라고 말했으며, 봄이면 유채꽃이 만발해 유명한 이 지역은 충북 음성이다.
(p.44~49 「방방곡곡 숨은 명소」 참조)

3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22년 한해 동안 준비금 적립률 109.2%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당기순이익 4,374억 원의 9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p.62~65 「The-K Focus1」 참조)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님들을 위한

새로워진 온라인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토끼 캐릭터 찾아 힌트를 얻고 퀴즈를 맞춰주세요!

◀ 이벤트 바로가기

「The-K 매거진」 웹진에 접속해 기사 속에 숨겨져 있는
토끼 캐릭터 아이콘을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토끼가 주는 힌트를 따라서 퀴즈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GS25편의점 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응모 기간** : 2023. 4. 1. ~ 4. 30.
- **응모 방법** : 「The-K 매거진」 웹진(PC·모바일)에 접속해 숨겨진 토끼를 찾아 클릭 ▶ 토끼가 출제하는 퀴즈 풀기 ▶ 퀴즈 정답을 맞추고 이벤트 배너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3. 6. 1. 이후

지금은 댓글 남길 시간!
영상 리뷰 댓글왕 이벤트

GS25 GS25모바일상품권 5천원권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달의 영상에 응모하시는 분의 댓글과 구글폼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GS25 편의점 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응모 기간** : 2023. 4. 1. ~ 4. 15.
- **응모 방법** : ❶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에 접속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❷ 「The-K 매거진」 4월호 '좋은 사람 좋은 생각'이나, 'DIY 리사이클링' 영상에 댓글을 다신 후
  ❸ 본문 글의 구글폼 양식에 응모하시는 분의 정보까지 입력해 주셔야 응모가 완료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3. 6. 1. 이후

「좋은 사람 좋은 생각」

「DIY 리사이클링」

* 댓글왕 이벤트는 응모 댓글을 남겨주신 후 응모단계에서 구글폼에 접속해 정보까지 별도로 입력해야 경품이 발송됩니다. 구글폼 링크는 '영상 제목'을 클릭하면 보이는 본문 글 내용 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이벤트의 당첨자 명단은 「The-K 매거진」 웹진 하단의 이벤트 당첨자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e-K 매거진」 4월 즉석 당첨 이벤트

푸른 하늘 아래 분홍 꽃비가 내리는 4월
「The-K 매거진」이 같이 걸어갑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달콤한 벚꽃, 개나리, 진달래 향기에
주말이 가까워지면 어디든 가볼까 발걸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The-K 매거진」이 그 나들이 더욱 즐겁게 해드릴게요.

응모 기간 : 2023. 4. 1. ~ 4. 30.

1,000개 이디야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GS25 GS25모바일상품권 3천원권 GS25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000개

참가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응모 방법 경품 옆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즉석 당첨 이벤트' 클릭
▶ 원하는 경품 선택 ▶ 참여 및 당첨 여부 확인 ▶ 당첨 확인 후 인적사항 기재

당첨 발표 응모와 동시에 확인 가능

경품 발송 2023. 6. 1. 이후 (회원이 아닌 경우, 당첨되어도 경품 발송을 하지 않음)

유의 사항
- 당첨은 경품별 매월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야 하며, 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발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음
- 당첨 시 입력하는 성명과 연락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정보와 동일해야만 경품이 발송됨
-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 정보로 참여 시 당첨이 취소되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이벤트 관련 문의 : 하나로애드컴 (Tel.02-3443-8005 / 월~금 09:00~18:00)